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1016 1017 1982년 12월 27일(월) 28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Tuesday, December 27, 28,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JAN 3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金大中사건·光州사태
관련자 48명 全員釋放

政府 일반受刑者등 1천2백6명 刑執行停止

(서울본사전화) 정부는 24일 광주사태 및 김대중씨사건 관련자 48명을 포함, 일반수형자(1천1백58명)등 1천2백6명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했다. 광주사태 및 김대중씨사건 관련자 48명은 ▲김대중내란음모사건관련 김대중씨등 8명 ▲광주사태관련 정동년씨(39,전전남대 4년)등 12명 ▲인혁당사건 관련 전창일씨(61, 전극동건설사원)등 7명 ▲전민련사건관련 윤성구씨(21,전서울대학수학과 3년)등 6명 ▲계엄법위반 전태삼씨(32, 전청계피복노조지부장)등 15명이다.

일반 수형자에 대한 특별 가석방에는 일반 무기수형자 1명, 10년이상 장기수형자 25명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대변인 이진희문공장관은 『이번조치로 제5공화국 출범이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관련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풀려났다』고 밝히고 『이번조치는 구시대 잔재를 일소하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려는 제5공화국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석방자 名單

金大中사건 관련자(8명)

▲김대중(57, 징역20년) ▲이문영(55, 전고대교수 징역8년) ▲문익환(64, 목사 징역5년) ▲조성우(33, 전고대4년 징역9년) ▲이신범(32, 전서울대4년 징역8년) ▲이해찬(30, 전서울대3년 징역6년) ▲송기원(35, 전중앙대4년 징역6년) ▲설훈(29, 전고대4년 징역6년)

光州사태관련자(12명)

▲정동년(39, 전전남대4년 징역20년) ▲배용주(36, 운전수 징역20년) ▲박노정(30, 인쇄공 징역20년) ▲박남선(28, 운전수 징역10년) ▲김종배(28, 전조선대3년 징역10년) ▲윤석누(21, 가구공 징역10년) ▲정상용(32, 회사원 징역10년) ▲하영열(32, 공원 징역10년) ▲윤재근(30, 공원 징역10년) ▲서만석(38, 무직 징역10년) ▲허규창(29, 전조선대2년 징역6년) ▲한상석(27, 전전남대3년 징역4년)

인혁당사건관련자(7명)

▲전창일(61, 전극동건설사원 징역20년) ▲유진곤(45, 전대성목재사장 징역20년) ▲김한덕(50, 불럭제조업 징역20년) ▲강창덕(54, 무직 징역20년) ▲이태환(56, 측량설계사 징역20년) ▲나경일(52, 노동 징역20년) ▲이성재(53, 지압사 징역20년)

계엄법위반자(15명)

▲황인호(26, 무직 징역20년) ▲권운상(27, 무직 징역10년) ▲정구원(23, 무직 징역10년) ▲권오창(46, 고물상 징역5년) ▲이순진(31, 공원 징역5년) ▲전상도(31, 공원 징역5년) ▲전태삼(32, 전청계피복노조지부장 징역3년) ▲황만호(25, 전체계노조경리감사 징역3년) ▲조태원(27, 전부산대 징역3년) ▲최윤(25, 전강원대생 징역3년) ▲이호열(26, 전서울대학원2년 징역3년) ▲박일남(23, 전고대생 징역3년) ▲신현이(51, 광부 징역3년) ▲방응찬(24, 무직 징역3년) ▲김현기(24, 무직 징역5년)

전 민련사건관련자(6명)

▲윤성구(21, 전서울대수학과3년 징역2년) ▲민병환(24, 전성대4년 징역2년) ▲김진철(23, 전서울대4년 징역1년6월) ▲최경환(23, 전성대사학과3년 징역1년6월) ▲손형민(23, 전연대수학과3년 징역1년6월) ▲김창기(25, 전외대영어과3년, 징역1년6월)

▲1천2백6명의 대사면—24일 김대중사건관련자를 비롯한 일반수형자들의 특별사면조치로 수감자들이 서울구치소를 나서고있다. (서울 AP)

오늘의 예금금리(11. 18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10.5%		9.5%
90일	11%		10%
180일	11%	10.75%	10%
365일	11%	10.75%	10%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위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報道陣 들끓고 많은 교포환영객들도 에드워드 케네디議員보좌관 마중

"애비 잘못만난 애들은 結婚도 못하고…" "나와 두아들 3父子가 美國서 공부하는 셈"

金씨 도착하던날 空港주변 스케치

○…김대중씨가 도착한 워싱턴DC의 내셔널공항에는 1백여명의 보도진이 들끓었으며 2백여명의 교포, 그리고 에드워드 케네디상원의원의 보좌관 잰칼리키등이 마중나왔다.

김씨는 매우 건강한 모습이었으며 준비한 성명서를 통해 『나는 최근 6년동안 외부와 단절된 속에서 살아왔으며 이제 바로 석방되어 여러분의 질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할수있는 준비를 갖추지않았다』고 말하면서 기자들의 양해를 구했다.

○…김씨는 NWA특별라운지에서 행한 환영행사겸 기자회견장에서 도착성명을 끝낸후 환영나온 교포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는 이자리에서 『비행기시간도 확실치 않은 가운데 이렇게 많이 나와 주어 환영해 주심에 감격스럽다』면서 숙연한 표정을 지었다.

또한 김씨는 같이온 부인과 아들을 소개하면서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결혼상대도 두번이나 포기하고 직장도 구하지 못했다』면서 『나도 공부하고 두아들도 미국에서 공부할 계획이라 3부자가 모두 공부하는 셈』이라고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김씨의 미국도착은 미국내 언론기관은 물론 일본등 외신기자들도 크게 관심을 가져 취재했는데 이날 공항서의 기자회견장에는 모든 기자들이 다들어갈수 없을 정도로 붐볐다.

이날 ABC, CBS, NBC등 3대TV방송은 물론 일부매스컴과 미국신문, 그리고 한국기자등 1백여명이 몰려 처음에는 미국기자들만 회견장에 들어간후 문을 닫았으나 한국기자들이 항의하자 다시 회견장을 오픈하기도 했다.

▲김대중씨가 워싱턴DC에 도착, 미리준비한 성명서를 낭독하고있다. (워싱턴DC-UPI)

金大中씨 워싱턴到着 會見

"나는 돌아가고 싶다"

"앞으로 무엇이 되겠다보다는 國民의뜻 따를터" 당분간은 하바드大서 공부하고싶어"

(워싱턴지사-김동현기자) 김대중씨는 가족과 함께 23일 하오 10시20분 NWA 070편으로 워싱턴DC 내셔널공항에 도착했다.

김씨는 도착성명을 통해 『나의 생명의 안전과 자유회복을 위한 염려와 성원을 보여준 여러분들과 특히 미국 국민과 레건대통령의 배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고국에돌아가국민을 위한 봉사에 몸바치기를 무엇보다도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 『민주주의만이 국민에게 자유와 정의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항에서 김씨와 가족일행을 위한 환영행사에서 김씨는 『치료가 끝나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하바드대학에서 당분간 공부를 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무엇이 되겠다는 것보다 하나님과 우리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는 내외기자들에게 『지난6년동안 외부와 단절된 속에서 살아와 현재 책임있는 회견을 할 수 없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내심정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항에서의 환영행사를 마치고 김씨일행은 워싱턴근교 스프링스필드 힐튼호텔에서 미국도착 첫밤을 보냈다. (관련기사 2면)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사무실
410 DUNDAS ST. E.
☎ : 961-2417
(12월20일부터)
537-3171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 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겸안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 (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 (블루아×영 남쪽)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 : 745 : 7400)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 (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사고시 전화문의 환영
215 TORYORK DR.
One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d.
☎ (B) 749-0555
(R) 881-4053
송 대 헌

DeWitt
JEWELS LIMITED
전품목재고정리
25% OFF
12월27일~31일까지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캐나다 미스코리아대회

본사 주최, 4월중 토론토서

우아하고 고상한 지성미로 캐나다사회에 또하나 한국인의 긍지를 심는 미스·코리아대회가 새해로 제8회째를 맞게 된다.

지난 1~7회 미인선발대회는 토론토한인회 주최, 캐라반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83년 제8회 대회부터는 본 〈한국일보〉토론토지사가 주최,

범교민적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4월하순 "미와 문화의 민간외교관"인 이땅 한인사회 최고미녀를 뽑게된다.

육체미, 용모, 지성미에 자신있는 캐나다 전국의 교포처녀들의 많은 참가를 기대하고 있다.

83년도 서울본사 주최의 모국에서의 전국결선대회는 오는 5월14일(토) 하오5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따라서 이번에 뽑히는 캐나다 미스코리아 「진」은 83년 5월8일(일) 하오5시까지 서울에 도착하기로 되어있다.

해군수뇌 인사개편

신임총장에 오경환

(서울)정부는 28일 예편하는 이은수 해군참모총장 후임에 오경환참모차장을 임명했다.

참모차장에는 김태영해군제독과 박희재해병중장이 각각 임명됐다.

54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오신임총장은 해사8기생으로 28년간 군생활을 했다.

무역촛점 태평양에

트루도, 연초 아세아 순방

(토론토 23일=연합)트루도수상의 1월초순 일본및 아세안(Asean) 5개국순방은 태평양연안국과의 경제·무역관계를 증진하려는 연방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고 연방고위관리들이 말했다.

이들은 트루도수상이 이번 순방을 통해 아시아국가 지도자들과 경제관계 강화를 중점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경제불황을 겪고있는 많은 유럽국가들이 캐나다와의 무역을 외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캐나다로서는 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무역활동에 더욱 역점을 두지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캐나다가 아시아및 태평양연안국과 거래한 무역량이 81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유럽전체와의 무역량을 능가했다.

트루도수상의 아시아순방과 캐나다의 아시아·태평양재단의 설립구상은 캐나다가 태평양 연안국들과의 관계를 증진하려는 확고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고위관리들이 말했다.

최근 트루도수상 자신도 "태평양연안국들과의 무역증진 전망이 세계어느지역보다도 높다"고 밝히면서 "태평양연안국들은 곧 캐나다교역정책의 주요 촛점이 될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캐나다 출입국관리 강화

이민자문위 건의…불법이민 방지위해

연방정부의 이민·고용자문위원회(Canada Employment and Immigration Advisory Council)는 캐나다의 불법이민자 증가를 막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앞으로 국경에서의 출입국 관리를 제도화하는 등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연방정부 이민·고용성의 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국회의 독립기구인 이 자문위원회는 지난 8일 이민·고용성에 보낸 불법이민자에 관한 대책에서 또한 앞으로 불법이민자 색출을 강화하고, 불법이민자 고용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도 아울러 건의했음이 본사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문위는 현재 1천만명의 불법이민자를 갖고 있는 미국의 경우로 보아 캐나다는 앞으로 불법이민자의 숫자가 크게 늘것으로 추산하고, 현싯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미 입국해 있는 불법이민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어 특별사면토록 이민·고용성에 건의했었다.

이 위원회는 그러나 이같은 사면이 무조건적이고 비효과적·비생산적인 조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상품 진출타격

(토론토 26일=연합)캐나다정부는 26일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금년연말로 소멸되는 칼러TV수입관세 12.5%와 고무신 발류수입관세 20%를 3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2개상품에 대한 한국의 캐나다 수출실적을 보면 81년도 칼러TV수출량은 총 945만 5천달러로 80년도보다 17.8% 증가했으나 고무신발류의 경우는 79년 5월 캐나다정부가 반덤핑관세를 부가한 이후 아주 저조했다.

구독 신청은
(416)533·2361

캐나다, 미국 물리치고 2승

세계청소년하키대회

(레닌그란드·소련)세계청소년하키에 출전중인 캐나다는 미국을 4:2로 물리치고 2승을 올렸다.

전년도 우승팀인 캐나다는 핀랜드, 소련과 같이 2승으로 공동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29일에는 핀랜드와 대전한다.

미국은 1피어리드까지 캐나다를 2:0으로 리드, 이변이 일어나나 했으나 캐나다는 곧 미국위스콘신대학에서 활약하는 토론토출신의 패엣·프레트리와 퀘백출신의 폴·보티리어의 파우어플레이골로 동점을 만들었다. 게임의 주도권을 잡은 캐나다는 2점을 추가, 가볍게 승리했다.

〈해 설〉

세계청소년하키선수권대회는 20세미만의 청소년들이 모여 대결을 벌이며 NHL스카웃터들의 주목을 끄는 대회이다. 작년에는 미국 미네소타에서 열려 캐나다가 처음 우승했다. 그러나 캐나다팀에는 NHL에 이미 스카웃되어 마이너리그로 활약중인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캐나다팀의 일부 선수들은 미국대학에서 활약중이다.

이대회는 세계하키 6개강국인 캐나다, 소련, 체코, 스웨덴, 핀랜드, 미국과 서독, 노르웨이등 8개팀이 참가, 리그전으로 자웅을 겨룬다.

밍크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폭스 ●세블 ●라쿤
록키모피 정승규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0189

金聖鍾 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38>

출발 ⑲

"물건 찾아낸후 4명 모두 제거하시요"

찾은 파일의 뚜껑을 열었다가 도로 닫았다.

「이 파일에는 뭐가 있지요?」

「여러가지 자료가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화번호및 4명의 인원에 관한 신상자료가 들어 있읍니다. 한국에 가시면 선생은 제일 먼저 그들을 찾아야하니까요. 그 밖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는 없읍니다.」

「그들을 찾아내면 어떻게 할까요?」

「물건을 찾아낸 다음 모두 제거해 버리십시오.」

「4명을 모두?」

「네, 4명모두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 조직에 쓸모없는 놈들이니까요.」

「쓸모 있건없건 나한테는 상관없는 일이요. 나는 물건만 찾아오면 됐지 그들을 죽여야할 의무까지는 없어요.」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고는 물건을 찾을 수 없을 걸요.」

「그건 부딪쳐봐야 알겠지요.」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선생이 죽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맙소.」

「우리가 선생한테 연락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나한테 연락을 취할 생각은 하지 마시오. 필요하면 내가 연락을 취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오.」

「그럼 우리는 선생한테서 연락이 오기만을 목을 빼고 기다려야 하겠군요?」

「그래야지요.」

「인내심을 가져야겠군」 선생이 우리한테 연락하려면 암호가 필요합니다. 선생의 암호를 말입니다.」

「그건 출발하기 전에 알려주겠소.」

「그럼 이쪽 암호도 그때 알려드리겠읍니다.」

[illegible] 사내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번진 진땀을 닦았다. 결으로는 침착한체하면서도 매우 힘겨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었다.

「그 물건이 어떤 경로로 한국까지 가게됐는지 좀 알고 싶은데?」

「자세한 경로는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그 물건은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나온 순도 90프로이상의 진품입니다.」

「황금의 삼각지대라면 타이, 라오스, 버마 국경지대말인가요?」

「잘 아시는군요.」

「헤로인 생산지로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물건은 방콕에서 출발했지요. 운반책은 4명이었읍니다. 두명은 여자였고 나머지 두명은 남자였읍니다. 여자 두명은 말레이지아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들이었읍니다. 남자들은 화교가 아니었읍니다. 한명은 프랑스인이고 또한명은 미국인이었읍니다.」

「트라이앵글의 회원은 모두 중국계가 아닌가?」

「회원이 증가하다보니까 그 원칙은 무시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지시를 내리는 간부들은 중국인들이지요. 중국계가아닌 외국인들은 지시사항을 이행하는데 그치고 있어요.」

「계속하시오.」

「그들은 말레이지아의 페낭으로 물건을 운반했읍니다. 거기서 물건은 다른 운반책들에게 넘겨졌지요.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때까지 운반책들을 수시로 바꿉니다.」

朴男 그림

"나는 조금도 변치않았다"

◆미국땅 밟은 김대중씨—23일 시애틀타코마공항에 도착한 김대중씨와 부인 이희호여사가 NWA020기에서 070기로 갈아타면서 환영나온 교포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하고 있다.(시애틀지사)

김대중씨 미국 도착

다리 절며 "옆구리 아프다"

(시애틀지사—조병우기자)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김대중씨(57)가 23일 상오 11시50분(서부시간) 노스웨스트항공 020편으로 시애틀 타코마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검은 코트 양복차림에 부인 이희호여사및 3남 홍걸씨(33), 막내 홍업군(17)과 동행한 김씨는 공항 보세구역세서 1시간22분간 머무른 후 노스웨스트 070편으로 미네아폴리스를 경유 워싱턴 DC로 향했다.

김씨는 공항체류동안 시애틀지역 인권협회 관계자등 20여명의 교포및 보도진들에게 일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비행기가 이륙하기 2분전인 하오1시10분께 트랩에 올라 부인 이희호여사와 함께 약20초간 손을 흔든후 탑승했다.

한편 김씨의 공항체류동안 이를 지켜본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 한인통역관은 김씨는 부인과 두아들과 함께 공항 보세구역내 대기실방에 머무르는 동안 커피한잔을 들었으며 가족들은 콜라를 마셨다고 전했다.

김씨는 H씨와의 대화에서 「미국에 신병치료차 왔다. 앞으로 1년간 체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짧게 깎은 머리에 손가방 하나만을 손에든 김씨는 양쪽다리를 약간씩 절룩이는듯한 몸짓을 보였으며 왼쪽 둔부와 옆구리를 가리키며 「관절염탓인지 아프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항에는 경찰 10여명등이 나와 삼엄한 경비를 펴는 가운데 환영교포및 보도진들이 김씨가 모습을 나타내기를 기다리자 공항경찰대변인은 「김씨가 병세로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레건 방한과도 관련

NYT, 양국우호증진에 기여

김대중씨의 석방은 한미관계의 증진과 장차 예정된 레건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되어, 양국의 여론조성을 위해 취해진 조치로 분석된다고 뉴욕타임스지가 23일자에서 제롬·코헨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보도했다.

레건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기전 전대통령은 김씨의 사형선고를 감형 조치했었다.

최근 한국은 교육열의 증진과 도시민의 증가로 민주발전 참여의 기회가 높아졌는데 만약 전대통령이 이를 추진한다면 한국의 장기적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는 돈이없다"

"生活費 어떻게 해결될지몰라"

김씨의 부인 이희호여사는 며칠전 뉴욕타임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리는 입원비와 생활비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모르고 있다. 우리는 현재 돈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에 오더라도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시사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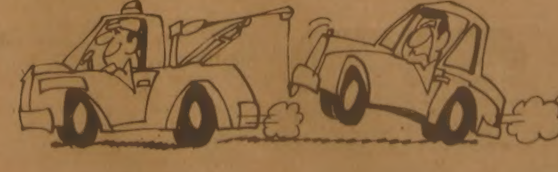
"민주투쟁 계속"

장남 김홍일씨

(서울—UPI)김대중씨는 23일밤 신병치료차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투쟁할 뜻을 보였다고 김씨의 장남 홍일씨(35)가 밝혔다.

김홍일씨는 서울대학병원에서 김대중씨와 만난후 이같이 말하고 또 「아버지는 혈색이 좋으며 밖에서 기다리는 기자들에게 말할 수 없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아버지는 신은 우리와 함께 있으며 나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최고의 기술로 교민에게 특별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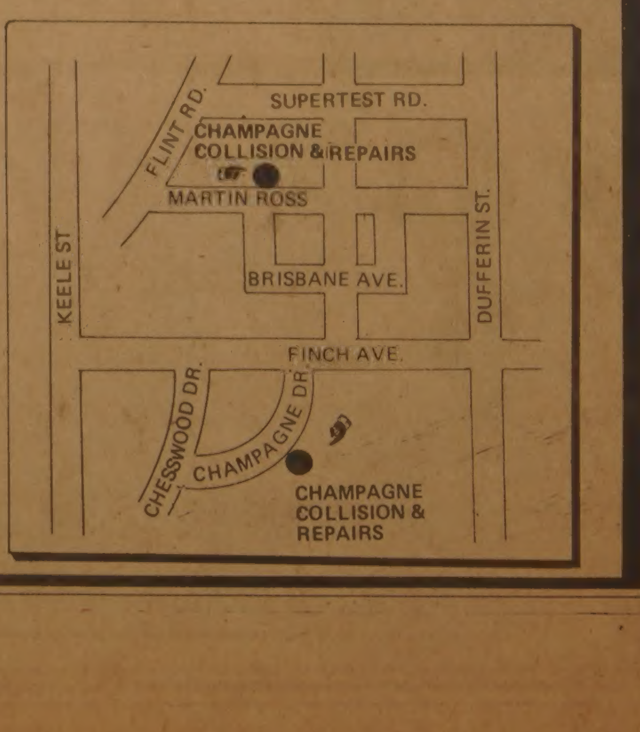


신용할 수 있는 바디 샵
- 차체와 파손차체 완전수리
- 무료견적
- 수리시 자동차 대여
- 최고의 페인트 기술봉사
- 에나멜과 아크릴에나멜 완성
- 특수한 트럭과 파이버 그라스의 기술봉사

①Collision & Frame Shop
86 Martin Ross
②Painting & Body Shop
375 Champagne Dr.

이 광 한
☎ : 630—2400·665—7175

CHAMPAGNE COLLISION & REPAIRS



아내 구타 남성에 $27,500 손해배상 판결

온타리오 사법 사상 처음으로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한 여성이 손해배상을 받도록 판결받았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마라아·세실리아 서파(36)씨는 23일 별거중인 남편 호세·서파(42)씨로부터 소송비용을 포함한 27,500달러를 배상받게 됐다.

마리아여인의 변호사 조엘·프리드만씨는 지금까지 온타리오주 법정에서 배우자로부터 받은 육체적 가해를 배상토록 판결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인측변호사로부터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마치 아내를 물건처럼 "소유"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서파씨는 언쟁끝에 아내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살인적인 공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의 판결에 대해 여권주의자인 변호사 린다·드레이노프씨는 "아내 구타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현상"인지를 알게해주며 또한 모든 남성들에 배우자를 존중토록 경고해준 판결이었다고 논평했다.

13년전 결혼한 포르투갈계 이민인 서파부부는 현재 이혼을 신청해 놓고 있다.

한맘노인회 회장 조연호씨

토론토의 한맘노인회(회장 김성근)는 최근 총회를 열고 새 임원을 선출, 1월2일 교체식을 가진다.

새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조연호
◉부회장: 김남집·함데레사
◉총무: 김운태
◉재무: 유제성
◉감사: 이춘영·김경호

인공심장 재료발명 한국과학자가 수훈

(서울 25일=연합)미국의 치과의사 바니·크락씨가 인류사상 처음으로 인공심장 이식수술을 받고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는 이면에는 한국과학자의 공로가 컸다는 것이 밝혀졌다.

유타대학교 메디컬센타의 김성완박사는 심장 이식수술중 응결되는 핏덩어리문제를 해결한 특수 합성섬유를 개발, 이를 이용해서 심장을 제작하는데 주요역할을 담당했다. 이같은 사실은 유타대학교에서 김박사와 함께 근무하는 W.J. 골프(Kolff)씨가 서울의 신문사에 서신을 보내 알려줌으로써 드러났다.

김박사는 유타대학에서 화학박사학위를 받은뒤 이 대학 메디칼센타에서 연구하고 있다.

◆1898년에 발행된 캐나다 최초의 우표이자 세계 최초의 크리스마스 우표.

세계최초의 성탄우표 캐나다 1898년에 발행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많은 국가들은 크리스마스 특별 우표를 발행한다.

크리스마스우표를 맨처음 발행한 나라는? 해답은 "캐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캐네디안은 그리 많지 않다.

캐나다가 1898년에 발행한 세계최초의 크리스마스 우표는 영연방이였던 캐나다전역에 우편제도가 창설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2센트짜리로서 연방국가들의 위치를 표시한 세계지도를 그린것이다. 도안속에 「X-MAS」라는 글이 들어 있으므로 성탄기념우표로도 볼 수 있다.

당시 캐나다의 우편국장은 윌리암·무록경으로 그는 토론토의 웰스리·스트릿근처의 자비스·스트릿에 거주했다.

「금년 인물」에 「콤퓨터」 타임지 처음으로 비인간 선정

(뉴욕)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55년의 역사상 처음으로 「금년의 인물(Man of the Year)에 인간이 아닌 콤퓨터를 선정했다.

「타임」지는 27일 이를 발표하면서 "미국인들의 자동차및 TV세트와의 지속적인 정사(情事)가 개인 콤퓨터에 대한 열정으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임」지 편집자들은 1927년이래 좋은면이던 나쁜면이던 그해 에 가장 영향을 끼친 개인에 1명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해 왔다. 지난해에는 폴랜드의 「솔리데리티」노조지도자 발렌사를 선정했다. 금년에 대상후보자로 물망에 오른 인물은 베긴 이스라엘수상, 댓처 영국수상, 미연방준비은행 볼크위원장, 금년에 가장 흥행을 한 영화 E.T.(외계인)의 주인공인 E.T. 등이었다.

82年 톱뉴스는「經濟不況」

UPI선정 2位「타이레놀」

〈뉴욕—UPI〉 82년도의 톱뉴스는 단연 수백만명의 실업자를 초래한 경제불황.

톱뉴스메이커는 이 경제불황타개노력으로 인플레억제, 세금안동을 주창하며 부단히 뉴스를 탄 레건대통령—UPI통신사는 23일 미국일간신문사의 편집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1982년도의 10대뉴스를 보도했다.

이조사는 뉴스표제가 미친 영향과 뉴스의 장기적 중요성에 따라 2개분야로 나눠 실시되었다.

이 2개분야의 10대뉴스를 순위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뉴스표제에 따른 10대뉴스

(1)경제문제 (2)타이레놀중독사망사건 (3)중동사태 (4)포클랜드전쟁 (5)레오니드·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의 사망 (6)레건대통령 저격범 존·힝클리 주니어의 무죄평결 (7)폴랜드사태:솔리대리티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 석방, 난동, 군사통치 (8)미국의회 중간선거 (9)워싱턴DC와 뉴올리언스의 제트여객기 추락사고 (10)미국소셜시큐리티 연금기금고갈문제

▲장기적 중요성에 따른 10대 뉴스

(1)경제문제 (2)중동사태 (3)레오니드·브레즈네프사망 (4)미국소셜시큐리티연금기금고갈문제 (5)군축문제 (6)연방예산 (7)폴랜드사태 (8)미국의회 중간선거 (9)우주왕복선 (10)여성동등권법안폐기

多事多難…「1년간의世界」를 본다 〈시리즈 ③〉

82 베스트·포토

世界가 경악…PLO難民 무차별虐殺

▲지난9월16일과 17일, 18일등 사흘간 팔레스타인난민들이 수용된 베이루트의 사브라및 차틸라 수용소에 레바논기독교민병대들이 진입, 대항능력이 없는 부녀자등 1천8백여명을 무차별학살해 세계를 경악시켰다. 학살의 참담한 현장뒤에 베긴이 이끄는 이스라엘 정부가 은밀히 방조했다는 혐의가 높아지자 세계의 놀라움은 분노로 바뀌었고 이스라엘 국내에서도 베긴정부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아져 3인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나서기에 이르렀다. 미국이 철수시켰던 해병대를 레바논에 재파병하고 다국적평화군이 다시 결성되어 치안을 수습하고있지만 학살이 몰고온 악몽은 해를 지나도록 씻겨가지않을 이시대의 비극으로 남아있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三國志 531 글·高羽榮·그림

여러분의 년말연시 축하광고및 인사는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일간 한국일보社에게 맡기십시요. (☎533~2361)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신년축복대성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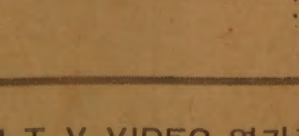
금번 저희 중앙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은혜와 능력의 종 최복규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하고저 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강사소개▶
ㅁ세계부흥선교회 회장 ㅁ대한신학교 교수
ㅁ북한선교회 이사 ㅁ한국중앙교회 담임목사
ㅁ선교100주년기념대성회 발기및 실행위원

◇일시: 1983년1월19일(수) —23일(주일)
매일저녁 7시30분·새벽기도 6시(토·일)·낮공부 10시(토)
◇장소: 토론토중앙교회(502 Bathurst at College)
◇강사: 최 복 규 목사

토론토중앙교회
당회장 정관일목사및 교우일동

ZENITH HI-TECH
BETA VIDEO RECORDER
SPECIAL OFFER!



VR9760W • Clear Special Effects Playback
• Dependable electronic tuning with 14-position channel selection
• Programmable 14-day, 4-event auto record timer
• Remote Video Action Control with Slow Motion
• Superb Beta picture quality with CLEAR playback
• Picture Speed Search in forward and reverse
• Audio Dub and more!

● ZENITH T.V VIDEO 염가판매
● T.V VIDEO STEREO & RADIO 수리합니다

Town and Country
882 KINGSTON ROAD ☎691—2000
SALES & SERVICE 김 광래

내년 成長率 7·7%예상

한국開發硏 金利도 引上할필요 없어

소비자物價 4·6%線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중 우리경제가 7·7%의 실질성장을 이룩하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전망은 정부가예상하고있는 7·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낙관적인전망은 내년에 세계경기가 서서히회복돼 우리나라의 상품수출 실질증가율이 올해의 4·6%에서 내년에는 10%로 늘어날것이라는데에 주된근거를 두고있다.

KDI는 23일발표한 83년 경제전망을통해 내년에는 수출이 2백42억달러로 늘고 농업소득증가와 실질임금증가에힘입어 총소비역시 4~5%의증가율을 보이게 되며 고정투자도 8~9·5% 늘어나 비교적높은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게된다고 예측했다.

물가는 연평균으로 따져서 도매가 3·2%, 소비자가 4·6%수준에 머물러 현재의 안정세를보이고 국제수지도 적자폭(경상수지)이 17억달러로 줄어 올해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계획대로 7%이상의 높은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세계경기회복을 최대한으로 활용, 수출증대를적극추진하고 국내경기 회복을 가속화시켜야 하며 인플레기대심리를 없애 그동안 다져진 안정기조를 계속 유지하는가운데 경제의 각분야에서 능률향상을 위한 각종제도개선 노력을 적극 밀고 나가야한다고 건의했다.

환율에대해서 KDI는 국내물가가 안정되고 美달러화가약세로 돌아서고있어서 올해보다 더안정시킬수있을것이라고 예상하고 금리에대해서는 실질금리가 충분히보장되고있으므로 더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요금에대해서는 국영기업의 경영합리화를통해 안정시키되 불가피한 인상요인은 즉각 반영, 현실화시켜야한다고 밝혔다.

◇國內經濟 전망

	1982	1983
GNP成長率(%)	6.0	7.7
經常收支(億弗)	-20	-17
貿易收支	-19	-15
輸出	213	242
輸入	232	257
物價上昇率(%) 都賣	4.7	3.2
消費	7.2	4.6

金총리, 어제하오 歸國

21日間 中南美巡訪마쳐

金相浹국무총리가 21일간에걸친 中南美 4개국 순방을 마치고 23일 하오 대한항공편으로 귀국했다.

金총리는 지난3일 출국, 콜롬비아·페루·칠레·멕시코등을 차례로 방문, 각국의 정부및 의회지도자들과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등 實質관계의 증진, 기존우호관계의 심화, 국제무대에서의 외교협력강화문제등을 폭넓게 협의했다.

金총리는 특히 巡訪國지도자들에게 우리의 평화통일방안을 설명하고 각국 원수들에게 한국을 방문해주도록 초청,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金총리는 귀국에 앞서22일 로스앤젤레스에 기착, 하루동안 머물면서 교민대표와 만나 이들을 격려했다.

한편 부인 金仁淑여사와 徐相喆동자부장관등 공식수행원 9명도 이날 金총리와 함께 귀국했다.

폴란드拘禁정치범 全員석방

自由勞組지도자 7명은구속

【바르샤바聯合=聯】폴란드 계엄당국은 23일 구금돼있던 모든정치범을석방한다고 발표했으나 해체된 지하활동을 계속해 온 自由勞組지도자 7명을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폴란드관영 PAP 통신은 12월31일을 기해 계엄령을 정지시킨다는것과관련 내무성이 모든정치범을 크리스머스이틀전인 23일 석방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중 7명의 자유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법적인 절차는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폴란드당국에 의해구금돼있는 정치범은 약 2백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벨기에外相 來10日 訪韓

레오·틴데만스 벨기에外相이 李範錫외무장관의 초청으로 내년1월10일부터 13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다고 외무부가 23일 발표했다.

틴데만스外相은 체韓기간중 우리정부 高位인사들과 만나 양국간의 기존우호협력관계의 심화방안을 협의할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駐濠「이」영사관서 爆發사고, 수명부상

【시드니AP聯=聯】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이스라엘영사관에서 23일 강력한 폭발사고가 발생, 수명이 다치고 영사관을 포함, 같은건물내의 수개층이 파손됐다.

경찰은 시드니의 웬스트필드·타워 7층에있는 이스라엘영사관 보안문밖에서 하오 2시께 미리 장치해둔것으로 보이는 폭탄이 폭발했다고 발표했다.

졸업정원 大學自律에

李文敎 「30%일률脫落」 개정방침

대학의 졸업정원제가 대학의 자율에 맡겨질것 같다.

李奎浩문교부장관은 23일 『졸업정원제의 실시목적은 대학의 면학분위기조성과 수준향상에 있는것이므로 각대학이 질적으로 보장된 졸업생만을 배출할수있을때가 되면 졸업정원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의 이같은발언은 현재 모든대학이 일률적으로 졸업정원의 1백30%를뽑아 30%를 탈락시키도록돼있는 졸업정원제가 실시결과 학과나 계열에따라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탈락 시키는 모순이생겨 이를 없애기위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李장관은 이를위해 각대학의 졸업정원의 1백30%범위에서 대학이 의무적으로 뽑도록돼있는 대학학생 정원령 제3조의 강제규정을 「졸업정원의 1백30%에 해당하는 인원까지 뽑을수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李장관은 학생정원령의 개정시기와 자율에 맡기는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않았다.

83학년도의 경우 입생모집이 끝났으므로 문교부는 84학년도부터 실시하기위해 빠르면 내년중에 대학학생정원령을 개정할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難民에 한국, 救急車기증

【카라치AP=聯】한국은 21일 냉방장치를갖춘 현대식병원 구급차 20대를 파키스탄에 살고있는 3백만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해 파키스탄의 아프간난민 담당관 사에드·아자르 쥬장에게 기증했다.

吳在熙 파키스탄주재 한국대사는 이날 간단한 의식과 함께 한국도 5백만난민들이 6·25동란 때 이와 비슷한 고난을 겪었다고 말하고 한국은지난2년동안 아프간난민구호를위해 트럭21대를 기증했으며 앞으로도 구호활동지원을 아끼지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X-머스이브에 눈

기온은 例年보다 4~5度높아

크리스머스이브인 24일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중앙기상대는 우리나라가 서해에서 동진하는 약한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24일 전국이 흐리고 곳에따라 눈이나 비가내리겠다고 내다봤다.

또 기온은 24일 서울이최저영하2도 大田영하2도 淸州영하3도 光州0도 全州영하1도 釜山영하1도로 전국의 기온이 예년보다 4~5도높은 포근한날씨가 되겠으며 성탄절인 25일은 전국이 흐리거나 구름이 다소끼겠으며 영하5도에서 영상2도의 조금 쌀쌀한 날씨가 되겠다고 중앙기상대는 내다봤다.

独立紀念館건립 誠金

우리의 작은精誠: 큰뜻 이루게

<23일접수> 電話접수 722-4171

(株)努我대표 洪宗彦씨外 2백만원

東原土建대표 황의성씨 1백50만원

大美實業 임직원 1백만원

鍾元企業대표 趙昌奎씨 1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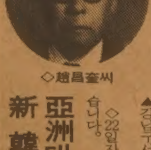
亞洲대회 육상선수단 24만원

新韓國鐵鋼 대표 20만원

▲(株)努我 대표이사 洪宗彦씨외임직원一同=2백만원 ▲東原土建(株) 대표이사 황의성씨외임직원一同=1백50만원 ▲大美實業(株) 임직원一同=1백만6천2백17원 ▲鍾元企業社대표 趙昌奎씨외임직원一同=1백만원 ▲제9회 아시아경기대회 육상선수단 韓昇哲코치外25명=24만원【日刊스포츠접수】 ▲新韓國鐵鋼商社대표 이광진씨외직원一同=20만원 ▲강남구서초2동 26통1반주민一同=2만원【양재보급소접수】

◇22일자 水原 애향상우회는 매향상우회이므로 바로잡습니다.

◇洪宗彦씨



◇趙昌奎씨

李振義문공 주관 文化藝術人 송년회

李振義문공부장관은 23일하오7시 중앙국립극장 대극장에서 문화예술인을위한 송년회를갖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국립박물관의 이전작업, 야외조각 전시장을 포함한 현대미술관과 국악전용연주장인 국악당의 건립등 정부의 문화예술 중흥에대한 의지를 엿볼수있을것』이라고 밝혔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서울市廳 옮기지 말도록"

全대통령 내년 金利 더 낮추고 物價안정노력

◇全斗煥 대통령내외가 서울지하철2호선2단계개통식에 참석한뒤 江南驛에서 시청앞까지 試乘하며 관계자들과 환담하고있다.

全斗煥대통령은 23일 서울 시청 移轉문제에 관해 『예산을 많이 들여 옮기는 것보다 현재의 建物을 활용하는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지하철 2호선 2단계 개통식에 참석한뒤 예고없이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청 移轉문제는 그동안 移轉추진위원회까지 구성돼 부지를 확보하고 이전을 추진해왔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移轉이 무기한 보류됐었다.

全대통령은 또 이자리에서 『내년도에도 物價안정 시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해 物價가 올해보다 더 떨어지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하고 『金利도 올해보다 오히려 낮추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下水道 시설문제와 관련, 『대도시의 하수도 시설은 도시公害와 오염을 막기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수도망을 확충하는등 수준높은 시설을 건설해나가라』고 지시하고 『특히 공사하기편한 곳부터 할것이 아니라 市중심부터 장기계획을세워 年次的으로 시설을 개선하고확충해 나가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수도, 전기, 가스등의공사들이 별도로 진행돼 같은지역에서 도로를 여러번 파는 중복공사를 하는예가 아직도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 체신부, 韓電등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여러공사를 동시에 시행토록하는 방안을 강구토록하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서울 江南區 강남역에서 있은 지하철2호선 2단계 開通행사에 참석, 테이프를끊고 강남역에서 시청앞까지 23.5㎞구간을 試乘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영부인李여사와함께 金浦공항에서 에브렌터키대통령을 환송한뒤 귀로에 강남역에 도착, 金聖培서울시장의 안내로 驛구내 시설을 살펴보고 禹命奎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장으로부터 지하철 건설계획등을 보고받은뒤 수행한 金俊成부총리등과함께 개통테이프를 끊었다.

地下鐵2호선 江南구간 개통

서울地下鐵公社는 23일 綜合운동장에서 을지로를 잇는지하철 2호선 江南구간(5.5㎞)이 23일 상오 10시개통됐다.

총공사비 8백50억원을들여 78년3월착공, 4년10개월만에 개통된 이 구간은 80년10월31일 개통된 2호선 1단계구간(新設洞-綜合운동장) 49.4㎞와 연결운행된다.

이로써 시청-乙支路-綜合운동장-江南驛-文來洞-시청을 순환 연결하는 지하철 2호선은 총연장48.8㎞중 14.3㎞가 개통됐으며 나머지구간중 3단계구간인 聖水역-乙支路입구역(8㎞)사이는 내년6월에, 乙支路입구-文來역-교대역을잇는 4단계구간(25.9㎞)은 내년말 각각 개통될 예정이다.

무역·經濟協力 강화

韓·터키共同성명 에브렌大統領 어제離韓

케난·에브렌터키대통령은 3泊4日간의 訪韓일정을 모두 마치고 23일상오 특별기편으로 다음巡訪國인 방글라데시를 향해 離韓했다.

에브렌대통령은 이날 金浦공항에서 全斗煥대통령과 영부인 李順子여사, 3府요인및 외교사절들의 따뜻한 환송을 받았다.

全斗煥대통령과 에브렌대통령은 이에 앞서 에브렌 대통령의 訪韓을 결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양국 대통령은 양국간의 旣存우호협력 정신이 강화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고 제반분야, 특히 무역 경제및 기술협력분야에서 양국관계를 보다 강화할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공동성명은 『양국대통령은 韓半島와 터키지역의 평화와안정이 세계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필요불가결하다는데 의견을같이 했다』고 밝히고 『양국 대통령은 한국 문제가 미해결인 상태에 놓여있음에 우려를표명하고 한국문제는 南北韓 최고책임자간의 대화를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양국대통령은 또 合作투자증진에 합의하고 새로운 협력분야에 대해 양국의 기존 잠재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같이했다고 이 공동성명은 밝혔다.

청소원등에 선물

全斗煥대통령은 23일 歲暮를 맞아 전국의 청소원, 자활근로대원과 탄광근로자들 모두 9만2천6백79명에게 겨울옷을 선물로 주고 위로·격려했다.

전국 각市道는 이에따라 市道知事와 출신국회의원,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전달식을 가졌으며 24일중으로 해당시장, 군수, 구청장들을 통해 2만9천50명의 청소원과 2천4백88명의 자활근로대원에게는 방한코트, 6만1천1백41명의 탄광근로자에게는 겨울내의 한벌씩이 전달될 예정이다.

社會漫評

「적당한 시기에…」

地平線

1년 내내 거리를 쓸고 깨끗하게 치워주면서도 가장 괄시받던 사람들, 그리고 가장 역겨운 일을 스스럼없이 해내고도 묵묵히 社會에서 까마득히 잊혀진 사람들. 全斗煥 대통령은 어제 특별한 배려를 하였다. 전국 2만9천50명의 청소원과 2천4백88명의 자활근로자들에게 防寒코트 한벌씩을 선물로 전달하였다. 또 어려운 작업여건 때문에 석탄 생산에 여념이 없는 6만1천1백41명의 탄광근로자들에게도 겨울內衣를 한벌씩 선물했다.

▼따뜻한 歲暮의 선물이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나 「초청받지 못한채」 큰 거리의 골목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 그모두가 「지극히 작은 무리」라 할지라도 우리 社會의 「겨자씨」와 누룩이 되는 사람들임에 틀림 없다. 이들에게 마음의 「선물」을 안겨다 주어야 하지 않을까?

▼내용은 좀 다르지만 같은 날 아침 서울市民들도 넘치는 큰 선물을 받았다. 歲暮를 조금 앞당긴 이날부터 地下鐵 제2호선의 제2단계 노선이 개통을 보게 된것이다. 올해 들어 유난히 地下鐵공사장에선 大小事故가 接續되었다. 그때마다 「地上」에서 지켜보던 市民들의 叱責소리는 작은것이 아니었다. 밤낮없이 24시간 비지땀을 흘리면서 공사관계자들에게도 나가는 할말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참고 견디며 모두를 값진 경험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경험위에서 또 한區間의 開通을 본것이다. 채찍질하던 市民에 대한 흐뭇한 영광의 선물로서다.

▼「우리 技術 우리 資本 우리의 땅으로써 地下鐵은 길이를 보태 나가지만 만들어 갈수록 더 훌륭한 시민의 『作品』이 되어가는듯하다. 이번 개통된 잠실綜合운동장-敎大앞구간의 5.5㎞는 4년10개월에 延人員 1백20만명이 동원된 힘든 공사였다. 특수용접으로 레일의 이음부를 모두 없애 소음을 방지하였고 地下의 환기장치를 완벽하게 시설하였다. 또 驛三역에는 처음으로 에스컬레이터를 12대나 설치, 승객들의 출입을 편하게 만들었다.

▼市廳앞으로 뻗은 2號線은 내년말까지 완공될 예정이고 3, 4호선도 84년엔 모두완공된다. 그때 서울의 地下鐵은 총연장 1백15.3㎞로서 하루5백만명을 수송, 市民교통량의 3분의1을 맡게된다. 2년뒤의 더 큰 선물이 미리 기다려진다.

故韓錫奐씨에 弔意

全斗煥대통령은 23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자문위원 韓錫奐씨가 지병으로 별세한 故韓錫奐씨(前濟州은행장)빈소에 李正植서울지역부의장을통해 조의를표했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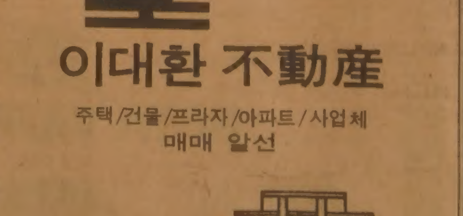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가격을 대폭 내렸읍니다

항상 싱싱한 야채와 맛있는 젓갈류와 밑반찬… 한국식품 이라면 제일 식품 712 BLOOR ST. W. TOR (아리랑 식당옆) 532-1054

이대환 不動産 주택/건물/프라자/아파트/사업체 매매 알선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으로 친절히 봉사합니다 (물게지 상담) 609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B) 535-1251 535-1260 R) 536-4250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Mrs. 전

대각사 大覺寺

자비의 전화 개설 안내

『따르릉~ 자비의 전화입니다』

중생의 괴로움을 함께 아파하여 그 해결책을 위해 상담에 응해 드리는 전화가 토론토에 자리했음을 알려 드리오며 교민 여러분의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가내의 만복을 비오며 소원성취 이루소서… 혜관스님합장

☎ : 463~8998 (매일아침 8시부터 10시사이) 11 DAWSON AVE. TOR.

수렁에 빠졌던 레바논事態 「平和타결」에 曙光

美의 중재2달 往復외교의 結實

한때 場所문제로 踏步 이미 協商내용은 作成

혼란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있던 레바논사태해결에 모처럼 曙光이 비치고 있다.

PLO (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레바논침공직후부터 당사국들간에 논란되어 오던 레바논주둔 모든외국군의 철수협상이 지난수개월동안의 난관끝에 미국의 중재로 레바논과 이스라엘간에 금명간 개시된다.

이스라엘서 양보

아직 양국간의 공식발표는 없으나 레바논정치지도자들과 보도기관들은 빠르면 크리스머스이전인 24일 1차회담이 베이루트중심가에서 남쪽으로 12㎞떨어진 교외의 할데에서 개최될 것이라고전하고있다.

반면에 일부, 특히 이스라엘소식통들은 미국이 레바논과 이스라엘정부에 각각 협의를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위해 시일연기를 요청한으로써 협상은 오는 29일에야 열리게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는 하비브 美특사의 중재왕복외교로 상호 철수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고 곧 이스라엘과 레바논사이에 협상이 열릴 것이라는 소식은 1주일전부터 간간이 나왔었다.

벽에 부딪쳤던 레바논협상이 이처럼 숨통을 트기 시작한것은 美드레이퍼특사가 워싱턴을 1주일간 다녀온후인 지난15일 「2단계철수案」이란 새로운 구상을 제시하고 부터였다.

이와함께 레바논협상의 가장 큰장애요인이었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개최주장이 19일 철회됨으로써 극적인 진전이 이뤄진 것이다. 레바논은 회담개최지를 예루살렘으로 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인상을 줄것을 우려,극구 반대해 왔던 것이다.

美압력이 주효

이스라엘의 양보뒤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도수높은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레이건미대통령이 베긴 이스라엘수상에게 친서를 보냈는데 이스라엘관리들은 이스라엘의 양보가 미국의 압력때문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양국은 레바논의 할데와 이스라엘갈릴리지방 북부의 키리야트·시모나에서 번갈아가며 열리고 합의한것으로 전해졌다. 이두곳은 모두 PLO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것이 흥미롭다. 할데는 PLO가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당시 가장 치열하게 항거한 곳이고 키리야트·시모나는 침공전 PLO 카투샤砲의주요공격 지점이었던 것이다.

전투치열 여전

미국이 내놓은 2단계철수안이란 철수협상이 개시되는 것과동시에 1단계조치로이스라엘주둔군(3만추산)은베이루트남쪽12~15㎞밖으로, 시리아군(4만)은 베이루트 동부산악과 베이루트·다마스커스공로상에서 베카계곡으로 철수를 개시한다는것이다. 다음 2단계조치로는 팔레스타인 잔존세력(1만) 등을 포함한 모든외국군은내년2월19일까지 레바논영토로부터 완전철수한다는 내용이다.

이「2단계철수안」은 예루살렘—베이루트—다마스커스—워싱턴을 왕복해가면서 약2개월동안 중재를 펴고 있는 협상의 명수 美중동특사하비브와 드레이퍼의활약으로 해당3개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놓은 경우로 알려지고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간에 협상이 개시되면 일단 레바논주둔외국군의 부분적 철수가 이뤄지게 된다. 그다음 레바논정부군이 이지역을 인수받게된다. 레바논과 이스라엘 협상팀들이 대좌하게되면 먼저 양국의 요구조항이 담긴 실무문서가 교환될 예정이다. 양국은 이미 비밀협상을 통해 어느정도 합의점에 도달한 「협정초안」을 작성해 놓고 있는 것으로알려지고있다. 레바논정부가 내놓은 협상내용은 ▲모든 외국군의 동시철수 ▲레바논전역에서의 주권행사 ▲다국적평화군의 증강 ▲하비브특사案의 철군일정준수 ▲레바논·이스라엘의 직접협상에 의한 안보조약체결등인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편 샤론이스라엘국방상은 협상초안에 ▲상호 적대행위중지 ▲레바논국경북쪽45㎞의 안전보장지역설치 ▲국경개방 ▲레바논내에 이스라엘외교공관설치등이 들어있다고 밝힌바있다.

이러한 양국의조건들은 상호간 합의에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이 성취되면 이스라엘로서는 레바논에서 PLO를 철수시키고 레바논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레바논침공의 당초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시리아태도가 마지막 變數
이의 가자지구 定着村건설도 장애

美의 役割기대

그러나 문제는 시리아에있다. 동시철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시리아가 얼만큼 실제로 행동에 옮길는지 아직 변수로 남아있다.

모든 외국군이 레바논으로부터 철수한다고 레바논에질서와 평화가 찾아오리라는것은 성급한 판단일수도있다.

할데에서 협상이 곧 개시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것과 동시에 할데를 포함한 베이루트남부지역에서 터진 팔랑헤기독민병대와 좌익 회교두르즈派와의 치열한 전투재개는 레바논의 앞날이 밝지않다는 것을 예언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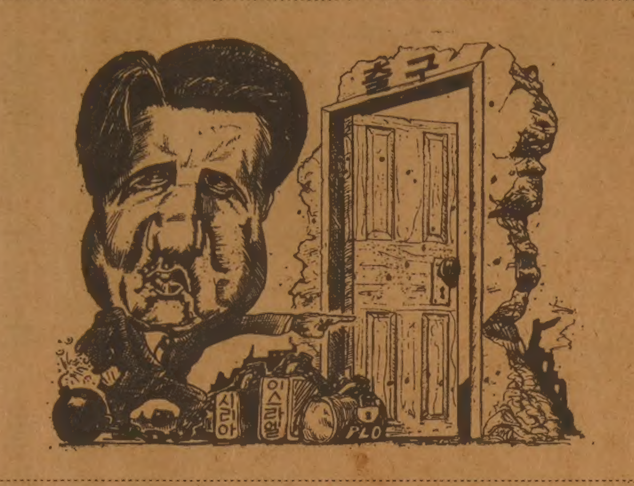
레바논은 외국군철수후의 치안공백을 메우기위해 다국적평화군의 증강과 정부군의 보강을 필요로 하고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같은 필수불가결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레바논주둔 외국군의 철수가 완결된다면 레이건대통령은 지난9월1일 요르단서안과 가자지구에 요르단과 연립정부형태의 팔레스타인 자치체를 세운다는 자신의중동평화안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게 될것이다.

현재 레이건은 워싱턴을방문중인 후세인 요르단국왕에게 자신의 중동평화협상에참여해 주기를 요청하고있으나 참여여부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후세인국왕이 미국측에 신예F16전투기 및 對空호크미사일등 미제무기공급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향후 미국의 중동평화안과 결코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외교관측통들은 보고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레이건의 중동평화구상에 정면으로 도전, 요르단서안과 가자지구에 계속 유태인정착촌을건설하고 있는 현실은 앞으로의 중동평화협상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崔海雲기자】



◇시한폭탄같은 외국군들이여! 제발 레바논땅을 떠나 주시오— 제마엘레바논대통령— <美이코노미스트誌>

메아리

豫言

金昌悅 <編輯委員>

세밑은 豫言의 철이다. 신문에는 내노라는 占장이들의 새해 점괘가 실린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외신은 벌써부터 세계 각지 占星家들의 豫言을 보내오고 있다. 世態를 반영하여 재미있는 것이 꽤 많다.

—작년에 저격사건을 겪었던 미국의 레이건대통령은 새해에 비행기 추락사고를 당하나, 九死一生으로 살아남는다.

—「세기의 미녀」 리즈·테일러는 모나코의 레이니어王과 애정행각을 벌인다. 그레이스王妃의 죽음으로 홀아비가 된 王과, 8번 다시 이혼한 미녀의 콤비가 그럴듯 하다.

—이스라엘의 베긴首相과 인도의 간디首相이 실각한다.

—이란의 호메이니翁이 죽는다. 점괘가 맞는다면 향년83.

전반적으로 보면, 이름난 占星家들은 새해를 「재앙의 해」로는 보지 않는것 같다. 政變의 豫言은 있어도 전쟁과 天災地變의 예고는 없다. 믿거나 말거나, 그것만해도 다행이다.

새해 점괘를 읽는 맘은 이미 과거가 된 舊年을 기억할 때에 한결 더하다.

오래된 것은 말고 올 82년을 점쳤던 점괘를 다시 보자.

—로스앤젤레스에 대지진이 난다. 레이건대통령은 캘리포니아농장에서 휴가중 지진을 당하지만 무사하다.

—리즈·테일러는 이혼하고, 연예인과 재혼한다.

—베긴首相 암살사건이 난다. 영국의 엘리자베드 女王이 찰즈 王子에게 讓位한다.

—호메이니翁이 죽는다.

아직 82년이 며칠남았으니, 이 豫言들이 맞았는지틀렸는지 속단은 禁物이다. 하지만 언제가 보듯한 점괘의 되풀이는 예년의 일이다. 그중에서도 새해에 죽게 운명지어진 정치지도자는 몇해에 걸쳐 여러차례 죽는것이 通例다. 70년대에는 브레즈네프, 60년대에는 毛澤東이 그단골이었지만….

올82년에는 이런것보다 훨씬 壯大한, 그야말로 宇宙的인 규모의 豫言도 있었다. 行星直列이란 것이다.

1천년만에 한번 일어난다는 行星直列은, 太陽系의 行星들이 일직선으로 늘어섬으로써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해서 대지진과 해일이 일어난다는 재앙의 예고다. 그것도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前직원이 天文科學의 이름으로 豫言한바요, 「재앙의 날」을 3월10일로 못박았으니, 제법 설득력이 있는듯 했다.

그러나 지구의 형제별들은 99도의 부채꼴안에 모였으나, 直列하지는 않았다. 3월중 天災地變을 호외로 보도한 신문도 없었다.

외국은 그렇다치고, 우리나라 점괘는 어떨까.

마침 신문사 조사부 자료에 79년치 우리나라 「哲學家」들의 묵은 점괘가 들어있다.

그에 의하면 79년 己未年의 우리 나라의 운세는 水風井—두레박으로 우물물을 퍼올리는 격의 大吉이다. 德談은 고맙지만, 그해10월에 일어난 참담한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껏 멍랑하다는 생각이 든다.

꽤아 볼것도 없이 점괘란 본디가 믿거나 말거나다. 그런줄을 알면서도 새해점괘로 화제가 솔깃한 세밑의 풍습이 지나간 한 해 보다 새해로 달리는 탓이다. 그래서 언제나 이맘때는 반쯤의 불안과 반쯤의 바람이 엇갈린다.

우리에게 事物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매임 없는 상상력, 그리고 「1%의 靈感」이 있다면, 豫言은 몰라도, 새해의 想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굳이 자칭 豫能者의 점괘를 의지할것도 없다. 그러나 그렇게 냉철한 「눈」을 이땅 어디에서 찾을까.

그러니 범상한 사람은 새해의 문턱에서 옛 庶民의 지혜를 빌 뿐이다.

『後場의 떡이 클지 작을지 누가 아나』 소박한 우리 속담은 누구라서 앞일을 알수 있으랴—고 말한다. 그러면서 後場의 떡이 더 크기를 기대한다.

해가 바뀌는 지금은, 우리모두가 주역인 한 드라머의 前場이 끝나고 後場으로 접어드는 轉換의 時點인지도 모른다.

기존友好관계 재확인
經協·通商강화
—에브렌터키 大統領 訪韓成果

우리企業 터키進出열어
中東시장 공동進出 새 突破口

3泊4日일정에 걸친 케난·에브렌터키대통령의 방韓은 양국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경제협력및 통상증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됐다.

터키는 6·25동란때 유엔군의 일원으로 1개여단 병력을 파견한 血盟이며 70년대에 들어 북한측의 修交제의를 계속 거부하는등 親韓정책을 고수해온 전통적인 우방이기도 하다.

23일 상오 에브렌대통령의 離韓에 앞서 발표된 양국공동성명에서 터키측이 「한국문제는 南北韓최고책임자간의 대화를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우리나라의 平和統一정책을 지지한것도 이러한 전통적인 우방관계를 바탕으로 하고있는것으로 볼수있다.

또 이에앞서 튀르크멘外相은 『한국의 유엔가입이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기여할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南北韓교차승인문제에 관해서는 소련이나 中共등 주요공산국가가 한국을 승인하기전에는 한국의 우방이 북한을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기도했다.

南北韓교차승인문제에 있어서 이처럼 우리측주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국가는 우리와같은 분단국가인 西獨을 제외하고는 거의 드물었던 이것은 정부가 南北문제에 관해 우리와 개념을 달리하는 여타 서방국가에 대해서도 우리측입장의 타당성을 납득시킬수있는 근거가 마련된것으로도 풀이할수 있다.

에브렌대통령은 22일의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양국공동성명에서도 양국대통령은 무역 경제및 기술협력분야에서의 관계강화와 합작투자를 증진할것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양국이 우방국이면서도 경제및 통상관계에 있어서는 미흡한 감이 없지않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면에서 실질협력관계를 심화시키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80년까지는 해마다 5천만달러 상당을 수출하면서 터키로부터 수입액은 1천5백만달러를 넘은적이 없을정도로 터키는 우리나라의 좋은교역상대국이었다. 그러나 터키의 外貨사정악화로 우리商社들이 對터키 수출을기피하고있어 81년이후 양국간의 교역실적은 급격히떨어져 계속감소추세에 있다.

에브렌대통령은 한국기업들의 對터키교역 기피현상을 감안했음인지 22일기자회견에서 『터키가 지난2년간 착실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對外지불문제도 호전됐고 10억달러이상의 외화보유고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터키는 총규모 1백50억달러에 달하는 5개년경제개발계획을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인데, 그것도 기간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들의 터키진출에 밝은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터키측은 다목적댐 건설과 관개 수리 농기계제작같은 농업기술, 에너지자원개발등 여러분야에 걸친 합작투자를 희망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국은 그동안 4차례에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에 의해 터키의 훌륭한 기술협력파트너로 부상되고 있다.

또한 터키는 中東시장에 대한 공동진출문제를 제의했다. 터키는 회교국가로서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등 아랍국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있으며 통상면에서도 과거엔 EC국가들에 의존해왔으나 수년전부터 中近東지역국가들과의 교역에 치중해오고 있다.

터키는 산업구조와 국민소득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정밀 기술면에서 우리가 한발 앞서고있기때문에 우리나라와 합작으로 中東시장 진출을 원하고있는것으로 보인다.

이런점에서 우리는 터키와 人力, 자재공급,기술분야의 분담으로 터키와공동진출 한는것이 국제경쟁력을 높일수있다고볼수있다.

여하튼이번에브렌대통령의 訪韓은 韓·터키 양국간의 정치외교및 경제적인유대관계뿐만아니라 한국과 전체 아랍국가간의 제반관계 강화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것이 틀림없다. 【李征武기자】

◇全斗煥 대통령과 에브렌터키 대통령이 에브렌대통령의 離韓에 앞서 金浦공항에서있은 환송행사에 참석, 나란히 의장대를 사열하고있다.

韓·터키 共同성명 요지

▲양국대통령은 韓·터키양국관계에 언급, 양국간기존우호협력정신이 강화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고 제반분야, 특히 무역 경제및 기술협력분야에서 양국관계를 보다 강화할것에 합의했다.

▲양국대통령은 合作투자를증진할것에 합의하고 기존의 양국관계를 새로운협력분야로 확대하기위해 통상,경제및 기술협력분야에서 양국의 기존 잠재력을 발전, 활용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 대통령은 무역증진,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양국간 제2차공동위원회가 개최되고 기존문화협정의 테두리 내에서 새로운 문화교류계획이 서명된것에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터키공화국대통령은 현하국제정세를 검토하고 양국이 제반국제문제에 관하여 동일한 견해를 갖고있음에만족을 표명했다.

▲양국대통령은 세계평화와 안정을위협하는 국제분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현존하는 국제분쟁의 조속한 종식을위한 모든 국가의 보다 단호한조치가 필요하며 유엔헌장에명시된 제반원칙의 준수를통한 대화의 계속과 범세계적인 자제와 협력의중요성을강조했다.

▲양국 대통령은 최근의 中東정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中東문제의 공정하고 영속적인 해결은 1967년 이후 점령한아랍영토로 부터의 이스라엘의 철수와 자결권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국민의不可侵의 권리에 대한 인정에 의하여 실현될수 있다는사실을 재확인했다.

▲양국 대통령은 中東지역의 평화와안전을 위협하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상금 계속되고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同분쟁의 평화적 해결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는점을 강조했다.

▲양국대통령은 최근의 東北亞정세를 검토했다. 全斗煥대한민국 대통령은 케난·에브렌터키공화국 대통령각하에게 최근의 한반도문제에 관해 설명했다.

양국대통령은 한국문제가 상금 미해결의 상태에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문제는 남북한 최고책임자간의 대화를 통하여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全대통령과 에브렌 대통령은 현하 세계 경제질서를 검토하고 선진제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개발도상국들의 對선진국시장 진출에 있어 선진제국의 고려가 있을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있는 국제테러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형태의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테러행위를 방지, 근절시키며 모든 외교관, 영사관, 기타 公共기관의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노력을 촉구했다.

◇플라스틱카드로 公衆전화 通話

동전대신에 자성을띤 플래스틱카드를 사용하여 통화하는 공중전화가 23일 도오꾜에 처음으로 등장하자 한 日本여성이 실제로 통화카드를 사용,통화를 해보고 있다。【東京23日AP電=聯合】

海外토픽

美軍위문公演 취소
★희극배우 봅호프 눈아파

해마다 크리스머스때가 되면 해외주둔미군들을 위한 위문공연에 나섰던 미국의老희극배우보브·호프가 올해만은 레바논주둔 美해병대위문 공연에 나서려던 당초의 계획을 심한 안질에 걸려 취소할수밖에 없다고 21일발표。

지난41년부터 해외주둔미군위문공연에 나섰던보브·호프는 이날 그와같이 발표하고 『베이루트공연에 나서지 못하는 내마음이 찢어질것같다』면서 자신의 공연을 초청했던 베이루트주둔 해병대로부터 쾌유를비는 편지를 여러통 받았다고 귀띔.

그의 대변인 캔·컨토르씨는보브·호프가 그의안질로 1개월간의 안정을 더 필요로 하고있다는 의사로부터의 권고를 받고 베이루트공연을 마지못해 취소한것이라고 설명。【할리우드=UPI】

달구지끌고 旅行
★벨기에男子 5천㎞나

노버트·쥘페네어스(36)라는 한 벨기에 남자가 2백㎏이나 되는 달구지를 끌면서 濠洲서쪽 퍼드에서 동쪽의 브리스베인까지 5천㎞를 도보여행할 계획이라고。

도보여행을 신년元旦에 시작해서 내년말까지는 끝내겠다는 이 사나이는 『남들은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2년동안 이 여행을 계획해왔으며 지난 7개월동안에는 적응훈련으로 4천㎞를 걸었다』고 설명。【퍼드=UPI】

敎皇에 防彈車선물
伊피아트 自動車社

이탈리아의 피아트자동차회사는 교황 요한·바오로2세에게 특수제작한 방탄차를 올 크리스머스선물로 선사。

피아트社의 화물트럭제작부에서 교황자신의 주문을 참조하여 만들어진 이 『교황차』는 뒷부분에 2㎜높이의 방탄유리로 둘러싸인 2층부분이 있는 한편 나머지 차체는 교황의 머리와 어깨가 다 보일만큼 낮다는것。【로마=UPI】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 Temperance St. / King / Yonge / 약도 / Ⓟ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中國良藥 大量供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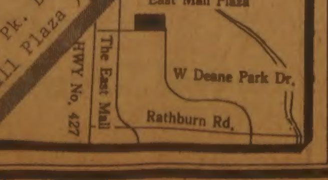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한인식품
SUN'S FRUIT MARKET

□ 도매업(감자·계란·각종 채소·화분등)
□ 토론토 전지역 주문배달
◎가주미 스페샬 $16.95
● 친절 봉사
● 저렴한 가격
● 철저한 신용

Tel: 622-2643
15 West Dean Pk. Dr.
(East Mall Plaza)



이스라엘·레바논 撤軍협상 개시

——오늘부터 베이루트郊外「할데」서

◇埃방문한 趙紫陽 이집트를 공식방문중인 趙紫陽中共수상이 22일 이집트박물관을 방문, 투트왕의 金像을 관람하고 있다. 【카이로22일AP=聯】

【베이루트·예루살렘(레바논)=外信綜合】 이스라엘군의 레바논철수를 위한 레바논과 이스라엘간의 협상이 24일부터 베이루트남부교외의 할데에서 양국대표및 미중동특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것이라고 정통한소식통들이 22일 말했다. ★관련기사3면

레바논신문들은 또 레바논과 이스라엘간의 철수협상이 개시된것과 동시에 레바논에 주둔중인 이스라엘군과 시리아군의 1단계 철수가 시작될것으로보인다고보도했다.

이스라엘관리들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다음주부터 할데와 이스라엘북부국경의 키리아트·시모나에서번갈아가며 이스라엘군철수문제와 양국간의안보협정체결에관한회담을시작할것이라고말했다.

한편 팔레스타인 아말과 중립지 안·나하르는 레바논과 이스라엘간의철수협상이 시작된것과함께 이스라엘군은 베이루트 남부12~15㎞밖으로, 시리아군은 베이루트 동부산악지대에서 철수하게될것같다고보도했다.

레바논정부가 이날 각의를 열어 승인할 것으로 보이는 레바논측의 6개항 협상내용은 ①모든 외국군의 동시철수 ②레바논전역에 걸친 레바논정부의 주권행사 ③다국적평화유지군의 증강 ④필립·하비브가 제시한 철군일정과 미국의 계속적인 중재역할 인정 ⑤철수는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되 늦어도 83년2월15일까지는 완료 ⑥레바논·이스라엘의 직접협상에 의한 안보협정체결등으로 돼있다.

PLO 카와스미 슐츠와 秘密회담

【암만(요르단)AP=聯】 요르단강서안 이스라엘 점령지인 헤브론시의 前시장이며 현재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위원인 파드·카와스미씨는 21일 자신이 지난달 워싱턴에서 조지·슐츠 美국무장관과 비밀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80년 이스라엘에 의해 시장직에서 해임된 카와스미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요르단강서안 할훌市의 前시장 모하메드·밀헴씨가 야세르·아라파트 PLO의장의 『허락하에』 슐츠국무장관을 만나 평화를 이룩하려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소망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日 나까소네首相 개인참모중에 前CIA요원도 끼여

議會서 是認

【東京=聯】 나까소네(中曽根康弘) 수상의 개인적 참모가운데 前CIA(美·중앙정보부) 극동책임자가 끼여 있음이 밝혀져 22일 日本 참의원에서 논란을빚었다.

나까소네수상은 이날 야당의원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수상취임전 외국 기자들에게 배포한 영문소개 책자의 감수를 담당한 세이야씨가 前CIA극동책임자였다』고 밝혔다.

[illegible]이 벌어졌다.

세이야씨는 현재 CIA를 그만두고 존스·홉킨스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데 나까소네 수상은 『내가 청년장교라고 불린때부터의 친구였다』고 밝혔다.

수상의 두뇌집단가운데 前CIA요원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소련의 KGB가 2백여명의 일본내 협력자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고 최근 폭로된 뒤에 밝혀져 일본에서 물의를빚고있다.

韓日議聯총회 참석 李載灐회장등 귀국

日本東京에서 개최됐던 韓日의원연맹제10차 합동총회에 참석했던 李載灐회장등 대표단52명이 23일하오 귀국했다.

朴判濟 청와대비서관 調達廳 차장으로

정부는 29일 調達廳차장(1級)에 朴判濟청와대비서관을 승진, 발령했다. 鄭鎬永차장은 이날자로 依願免職됐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633·2361

전통적 韓·美友誼 재확인

슐츠 美국무 訪韓의 意義

防衛공약·駐韓美軍 계속주둔 다짐

防産品 제3國수출·經協 협의할듯

조지·슐츠美국무장관의 방한에 대해 홀드리지 美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는 한국과의 전통적우의와 미국의 한국에대한 방위공약의 다짐이 가장 우선하는 방문목적이라고 말했다.

지난6월말 헤이그 前任장관으로부터 국무장관직을 떠맡은후 슐츠장관은 그의 성숙답게 조용히 국무성의 안팎을 다져왔다.

미국외교의 가장큰 현안은 소련과 중동문제다. 레이건대통령을 중심으로한 보좌관들과 모두 함께 협의되는 이슈라고한다면 유럽과 아시아는 슐츠자신이 좀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할 형편이고 이것이 취임6개월만의 유럽순방, 내년초 아시아순방을 낳게한것으로 워싱턴외교가에서는 보고있다.

슐츠는 한국과 아주 생소하지는 않다. 벡텔회장시절 한국을 다녀간일이 있을뿐아니라 벡텔이 사우디에 커다란 현장을 가지고있어 슐츠는 中東에 진출한 한국을 통해서도 한국을 알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李範錫 외무장관과는 지난가을 유엔에서 만나 양국의 기본입장에 대한 견해를 충분히 교환한바 있다.

당시 슐츠는 미국의 아시아에대한 관심을 특히강조한것으로 알려졌으며 캘리포니아에 근거를 둔 미국인답게 태평양에대한 인식이 미국정부내의 누구보다도 남다른편이다. 홀드리지차관보의 말처럼 일본·중공에이은 訪韓은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의 3대요소인 이 3지역에대해 미국의 의지를 다시한번 다지자는데 있다. 물론 일본과는 방위비증액문제, 무역역조문제가있고 中共과는 최근 中蘇화해무드등으로 나타나고있고 최근 수년간 어느때보다 소원해진듯한 美·中共관계를 재정립해 보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최근 얼마간 그 어느때보다 조용한 관계가 지속되어왔다는 점에서 이런 현안의 문제들보다 안보에 중점을둔 방위공약의 재확인,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등 종래 미국의 對韓정책에 대한 다짐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계속되는 이지역에 대한 소련의 전력증강, 북괴의 위협등에 대처키 위한 주한미군의 전력증강문제도 중요한 협의사항이 될것이며 따라서 한미간의 협의가 계속되어왔던 문제인 한국방위산업에 대한 미국의 지원문제, 군사판매차관(FMS)의 증액및 이자등 상환조건의 개선문제, 한국방위산업제품의 제3국수출 허가문제등도 협의대상이될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안보문제와 관련, 한국의 防産기술과 시설이 어느정도의 수준에 이르고있다는점에 비추어 항공기정비, 함정수리등 주한미군의 한국시설이용문제도 이에 포함될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성 고위당국자의 말을 빌면 경제협력문제도 중요협의사항이 될것같다.

현재 韓美간에는 단적히 말해 계류중인 경제문제는없는것으로 돼있다. 다만 지속돼온문제 즉 IMF, IBRD, 농산물수출신용자금등에 대한 미국의 계속적인협조와 원자력발전소등 기술협력의 문제등이 중요경제협의의대상이 될것같다.

또한 이번기회에 구체적인 업이 된다기보다는 미국측으로서는 최근의 다우·케미컬이나 컨트롤·데이터등 미국기업의 한국진출에대한 문제등을 제기할수도 있을것으로 보고있으며 한국측으로서는 알래스카産 원유구입, 쌀수입, 원양어업과 특히 미국의 한국산 철강·신발·섬유류 수출에대한 제한조치의 완화문제등을 협의대상으로 할것같다.

이런문제와함께 미국무성 당국자는 만약 인권등 한국 국내상황에대한 논의가제기된다면 이에대한 미국의견해도 전달할것이라고말하고 미국의 이런문제에대한 협의는 늘 조용한 외교라는 차원에서 이뤄져왔으며 한국과의협의도 그런차원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최근 한국정부의 金大中석방, 渡美허용, 관련자에대한 후속조치 가능성 시사에대해 미국정부가 크게 환영의뜻을 표했던 것에 비추어 협의도 미국정부의 성명문맥의 범주안에서 이뤄질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슐츠국무의 방한은 홀드리지차관보의 말처럼 전통적 우의의 다짐과 양국 상호간의 약속의 재확인으로도 요약될수있을 것같다. 슐츠장관으로서는 아시아 특히 한국을 좀더 깊게 이해할수 있는 기회가될것이며 이것은오랜 우방인 두나라 사이의 質을높이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은 내다봤다.

【워싱턴=李文熙특파원】

캐나다에 한국 佛敎 심고…

17년만에 "山寺그리워" 일시귀국한 三友스님

처음 地下室 살며 삭발한채 접시닦기

이젠 北美洲 3군데 어엿한 禪院세워

◇『聖地를 순례하는 마음』으로 17년만에 고국을 찾은 三友스님.

우리나라 스님으로는 처음 캐나다에 들어가 한국佛教의 터를잡은 三友스님(42)이 17년만에 서울땅을 밟았다. 三友스님은 60년대중반 터론토시내 貧民街의 누추한 지하방에서 禪房을 시작해, 지금은 北美지역에 당당한 면모를 갖춘 禪院들을 3곳에나 세워 놓았다.

『우리 山寺가 너무나 보고싶어 왔어요. 聖地를 도는 마음으로 智異山을 휘둘러 그쪽 山寺들을 모두 찾아 봤지요. 한참 목마르다가 淸水를 들이켠것처럼 이제 마음이 차올라요』

三友스님이 세운 禪院은 캐나다 온타리오에 두군데, 美國 미시간주 안·아버市에 한군데 있다. 온타리오 禪院은 수행자들과 그 가족들이모여 농사를 지으며 공동체를 이루고사는 농장식 선원. 미시간州 선원은 화가들과 陶工들이 모여살고있는 文化村 한가운데 서있다. 미시간 선원에서 수행하고있는 佛子들은 도자기나 그림을배워 한業으로 삼는계획을 세우고있다.

그는 이같이 3개선원을 이루기까지, 보통 移民者가 겪어야하는 고역보다 몇배심한 고생을 치렀다. 처음 캐나다에 도착했을때 방값하나 변변히 치를만한 돈도 없었다. 문을 세개나 지나야 들어갈수있는 어둡고 습기찬 방, 밀의 작은방에 세들었다.

지하방에 자리를잡은 그는 삭발한차림 그대로 가까운 식당에 취직, 접시를 닦는 설거지 일을했다. 접시닦기외에 우체국 사무도 맡아 소포, 편지등을 분류 운반하는 일을 했다.

『당시는 이미 서양일부지식인들 사이에서 佛敎붐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지요. 스님이 지하방에서 살고있다는 말이 퍼져나가고 캐나다사람가운데 몇몇이 지하실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렸어요. 그네들이 바라는대로 定을 익히는 법을 가르치게 됐어요. 그렇게 하는동안 더 많은 이들이 모여들고, 청승스러운 사람은 제주변으로 이사까지와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지요』

물질, 과학, 지식등을다 해보고도 마음이 불안한 서양인들이 『安心』을 얻기 위해 자기 가진것과 누린것을 일단 버리고 찾아온것이었다. 三友스님과뜻을 같이하는 캐나다 禪客 10명은 어엿한 禪院을세우기로 작정해, 각직장에서 일해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았다. 이 10명가운데는 해밀튼·맥머스트대학 사회학교수도 끼어있다. 三友스님 자신도 접시를 닦고 우편물을날라 번 돈을 거의 쓰지 않고 모았다. 그렇게 7년을 꼬박 지하실에서 살았다. 그 지하실은 살롱 토굴같이 寂寂에싸여 있기때문에 수행자들이 모여 定을 익히고 禪을 배우는데 알맞았다. 하지만 습기차고 환기가 되지않아 三友스님은 重症결핵에 걸려 수술을 받기까지했다.

『수년만에 1만여불이 모아져 절 터를 겨우 구했어요. 번듯한 건물은 집값이 비싸, 마약중독자와 알콜중독자들이 살던 퇴락한 집을 하나 사서 모두 부수고 重修했지요. 저 자신도 또 해밀튼·맥머스트대학 교수도 모두 木手가 돼 새로 집을 세웠어요. 일이 서툴러 무려 3년만에 완성시켰지요. 한번 그렇게 힘을내 밀어붙이니까 자리가 잡혀 얼마 뒤 다시 美國미시간으로 가게 되고, 농장식 선원도 마련할 수 있게 되더군요』

그는 이 서양인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이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주 많다. 禪과 定을 익히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무조건 가만히만 앉아 있다고 해서 깨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수 있었다.

한국 불교가 다시 싱싱해지려면 스님네들도 직접 무엇인가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됐다. 실제로 한국 高僧가운데는 그냥 편히 앉아서 깨친 스님을 찾아 볼 수 없고, 군불을 때다가, 절 마루를닦다가, 또는 물을 긷다가깨치는등 노동을 하다 見成한 스님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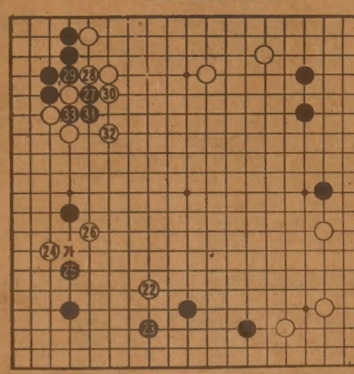
三友스님은 약 2개월에 걸친 순례를 마치고 지난 19일 캐나다로 다시 떠나갔다. 그가 머물고 있는 선원의 주소는 46 Gwynne Avenue, Toronto, Ontario M6K 2C3, CANADA.

名人战 第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6局 第3譜 22~33 (각5시간·덤5집반)

白(4段)姜 勳〈2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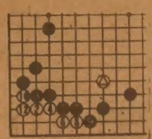
黑(7段)盧 永 夏〈2敗〉



姜4단은 이무렵 하변黑세를 삭감·파괴하려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白22로 23자리에 뛰어들 찬스였음은 전보에서 지적한바 있거니와 姜4단은 아마 黑23을 예상하고 그때는 숫제 좌하귀 3三에 침입할 생각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막상 白24를 두기까지 7분이나 소비하며 생각을 고쳐야 되었다. 이수로 참고도처럼 白2에뛰어들면 이하12까지 외길인데 이것은 △표의 악수로 되어버린다.

그래서 白24쪽에 침입했지만 黑25가 예리해서 白은 응수가 난처했다. 白26은 변화를 피하는 임기응변수.



左上귀 숙제거리

하지만 이것도 따져보면 白「가」로 몰아 꾹밀고 나오는수와 다를바가 없다.

盧7단은 좌변 좌상귀쪽 白을 즉시 공격하지않고 黑27로 白의 응수에 전향하여 타진했다. 민첩하고 노련한 솜씨였다.

그러나 白도 30이 준비된 호착. 이수로 33자리를 잇는따위는 전문기사로서 어불성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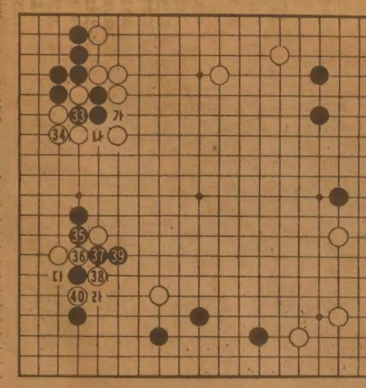
결국 黑33까지 정석의 일종이 생겼는데 이다음 白의 착점이 여간 어렵지않다. 자, 어떻게 할것인가. 【一凡】

名人战 第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6局 第4譜 33~40 (각5시간·덤5집반)

白(4段)姜 勳〈2勝〉

黑(7段)盧 永 夏〈2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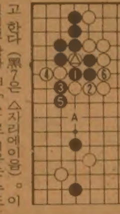


좌상을 黑33으로 따낸데서 白은 「가」「나」및 34의 곳중 어데를 잇느냐가 숙제거리였다. 姜4단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3분가량 생각하다가 돌소리도 야무지게 白34쪽을 꽉 이어 버렸다. 강직한 의사가 얼굴에 가득 차 보였다.

그러나 국후 검토때는 이수가 과했다는 중론이었다.

『白34는「가」와「나」두곳이 비어 있어서 회돌이수가 제격에 맞지않으니 기분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34는 참고도와 같이 白2쪽을 막고 회돌이 하는 것이 두터웠다고 한다(黑7은 △자리에이음).



엉성한 회돌이

이것이면 장차 白「A」로 씌우는 수도 남아있고 또 이 자체가 선수인 때문에 白4로 늘어선 2점의 손실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해야 옳다.

실전은 黑이 35에 선착하여 완전히 黑의 페이스. 盧7단은 힘을 내기 시작한다. 하나 당장은 白도 36에서 38로 나와 끊어 일전불사의 태도. 그리고 黑39에는 白40으로 단수를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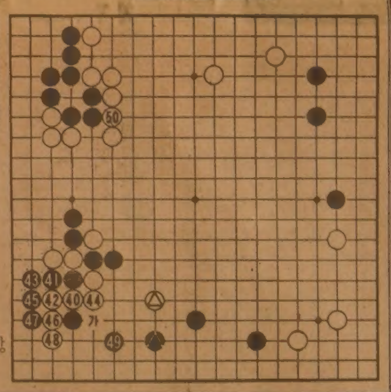
자, 이번에는 黑의 다음 수가 숙제거리다. 「다」와「라」어느 쪽일까. 【一凡】

名人战 第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6局 第5譜 40~50 (각5시간·덤5집반)

白(4段)姜 勳〈2勝〉

黑(7段)盧 永 夏〈2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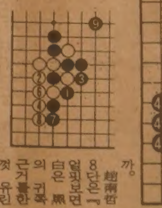


白40에 대하여는 黑41이 올바른 응수였다. 이수로 44쪽을 끊는 참고도는 白2로 따낼때 黑3이 절대. 여기서 白4이하 8까지 외길인데 黑9로 중앙을 차지하더라도 귀를 몽땅 잃어 손해가 크다.

실전은 黑41 이하 49까지 白이 아슬아슬한 고비를 용케넘기고 일단락 지었다. 수순중 白44로 45자리에 내려서면 黑에게 44자리를 끊겨서 낭패며 또 白46을 47자리에 막으면 물론 黑46으로 끊기고 黑「가」마저 선수로 들으니 역시 白이 낭패다.

이리하여 黑49까지 기호지세이며 필연의 과정인데 이 결과는 어떠했을까.

문제는 左下白馬



趙南哲8단은 『얼핏보면 白은 黑의 귀쪽의 근거를 한껏 유린하여 성과가 큰것같다. 그렇지만 白자체가 미생마로 안정을 얻고있어 별무소득』이라고 한다.

그뿐 아니라 초반에 △표와 ▲표를 교환한것이 계속 불만스러운 꼴로 남아있어서 白의 신경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좌하 白을 보강하는수도 마땅치않다.

白은 결국 좌하를 방치하고 白50쪽부터 보강했다. 黑의 태도에따라 임기응변으로 처리하자는 것인데 黑은 이白대마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一凡】

記者의 눈

지각 注意報

날씨에 관련된 예보와 각종 주의보가 전혀 맞지않거나 뒤늦어서 우스운꼴을 당하는 때가 많다. 그경우에는 아무런 예보도 하지않는 것만 못한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데, 보사부가 22일 통보한 방콕A형독감경보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보아진다. 환자의 가검물에서 바이러스균주(菌株)를 분리한데 성공했으니 20일의 인플루엔자주의보에이어 이날 독감경보를 내렸다는 경위에는 잘못이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독감환자는 벌써 지난달하순부터 급격히 늘어났고 요즘은 오히려 한물결이 지나간 뒤여서 이번 주의보와 경보는 예방조치의 구실을 못하게 된데 아쉬움이 따르는 것이다.

보사부가 이번 독감에구체적으로 관심을 보인 것은 지난주초부터로 11월부터 신경을 곤두세운다는 방행정방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지난해에도 12월10일 인플루엔자주의보를 내렸다가 지각한 것으로 지적됐었는데 올해에는 그보다 10일이 더 늦어지기까지했다. 주의보를 내릴만한 적당한 계기가없어 상당기간동안 서랍속에 낮잠을 재웠다는 얘기를 할 사람들도 없지않다.

협조를 요청받은 종합병원들이 환자발생을 신속히 파악하기위해 가져다준 자료를 활용하지않거나 가검물채취·연락업무의 협조에 소홀하다든지, 성인의 경우 증세가 심하지않으면 병원을 찾지않는등 독감발생추세를 제때 파악하지못하는 요인은 물론 많다.

그러나 「독감에 안걸리면 八不出」이란 말이 유행할만큼 환자가 번지고, 바이러스균을 분리하는데 16일이 걸린점등을 감안하면 이같은 고충마저 미리 계산에 넣은 행정이 이루어졌어야 하지않을까.

세계보건기구의 연초 통보에 의하면 올겨울에는방콕A형말고도 싱가포르 B형 브라질A형등이 크게번질 우려가 있다.

종합병원만으로 환자 발생상황이 잘 파악되지 않는다면 약국·약방등을 통해서 알수있는 제도를개발하는 것도 무익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의보나 경보는 국민보건과 건강에대한 행정의충실도를 보이는 것인만큼결재가 뒤늦거나 홍보전략차원에서 다루는 일은 없어야한다. 지각경보를 탓하는 이같은 글을 다시 쓰지않아도 되도록 해야할것이다. 【任赫淳기자】

教皇 암살기도사건 안드로포프가 조종

前駐日 波대사

【워싱턴UPI=聯】 미국에 망명하여 폴란드 당국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前일본주재 폴란드대사는 22일 소련공산당서기장 유리·안드로포프가 지난81년의 교황 요한·바오로2세 암살기도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치치스와프·루라르츠 前폴란드大使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로마에서의 교황암살기도 사건은 소련비밀경찰(KGB)이 교황에게 내린 비밀사형선고에따라 일어난것으로 여겨진다』면서 당시의 KGB총책은 지난달 레오니드·브레즈네프의 사망에따라 새黨서기장에오른 안드로포프였다고 지적했다.

河長春기자 歸社

한국일보 정치부 河長春기자는 金相浹국무총리의 南美4개국巡訪취재를 마치고 23일하오 歸社했다.

內外動靜

▲평화통일자문회의의 金貞烈수석부의장을 비롯한 간부 20여명은 23일 中部전선 ○○부대를 방문, 컬러TV등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人事異動

병무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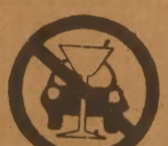
▲徵募국장 吳東烈(본부) ▲동원소집국장 鄭義憲(〃) ▲서울지방병무청장 李先熙(징모국장) ▲水原〃 李俊熙(동원소집국장) ▲春川〃 廉忠郁(光州〃) ▲大田〃 金容相(水原〃) ▲光州〃 柳忠熙(大田〃) ▲병무청본부근무 李炳雲(春川〃) (23日字)

국민은행

▲仁川간석동지점 朱安간이예금취급소장 金永泰 (24日字)

本社來訪

▲金榮玉(韓國開發投資株式會社 代表理事兼社長) ▲尹汝京(韓國開發投資株式會社 副社長) 開業 ▲林宇奎씨(專賣廳공보관) 신임인사차



82년도 인벤토리 스페샬

KAWAI PIANO·ORGAN 대매출!

날로 교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파격적인 염가로 교민 여러분께 다시 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단기분할 판매실시 (3~6개월)

이 기회를 꼭!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가와이 피아노는 일본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가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Upright피아노를 생산합니다. (Anthony Liversidge 기고 "House & Garden"에서)
⊙가와이 Keyboard Centre는 유일한 한국인의 딜러이며 항상 교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MALL (Don Mills & Steeles)
Tel: (416) 881-8230
9350 Yonge St. (Hillcrest Mall)
Tel: (416) 883-9407
President · LUCAS YUN 윤 호 섭
Sales Manager · ALLEN DUMA

加壓보일러爆發 둘 死亡

三興타이어再生공장 슬라브지붕 무너져

◇숨진元命淵씨

◇숨진朴炯毅씨

23일 상오10시55분께 서울 道峰區上溪2洞711 三興타이어 재생공장 (사장 鄭基明·39)에서 타이어 고무를 찌는가압보일러가 압력을 이기지못해 폭발, 작업중이던 종업원 朴炯毅씨(23·서울道峰區上溪2洞772)와 元命淵씨(36·서울中區 黃鶴洞1278)등 2명이 무너져내린 슬라브지붕에깔려 그자리에서 숨지고 공장옆 골목에서 놀던 엄정희양(11·천국교5년)이 날아온 고무과편에 얼굴을 맞아 전치10일의 부상을 입었다.

종업원 鄭寅圭군(20)에 의하면 공장옆공터에서 타이어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꽝』소리가 나며 20평크기의공장지붕이 가라앉았다는것.

사고는 이날 상오8시부터 타이어고무를 찌기위해 가압보일러에 남은고무조각을 쉬지않고 태워 허용한도인 3㎏이상의 압력이 가해져 일어났다.

폭발한 보일러는 5년전 두께5㎜의 철판으로 만든 높이 1m 직경1.3m의 원통형 보일러이다.

사고가나자 인근 주민1백여명이 폭음에놀라 대피소동을벌였으며 공장주변에는 파편조각과 타이어통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경찰은 사장 鄭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주물공장 불 1명死亡 2명重傷

【釜山】22일 하오4시께 부산北區鶴章洞717의10 삼부흥사 주물공장에서 원인을알수없는 불이나 이회사 사장 이기영씨(35)가 불에타 숨지고 공원 배우인씨(30)와 성인권씨(47)등 2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鉛】

41년만에 劇的상봉

韓·日·中共 3국離散 韓人 3자매

日大阪서

【東京=宋孝彬특파원】한국·日本·中共등에 각각 나뉘어살아온 6순의 세자매가 이산47년만에 백발의 할머니가되어 극적으로 재회했다.

일제의 사슬에서 아버지를 여의고 東洋3국에 각각 떨어져 살아온 세자매가 만난것은 22일상오 8시15분 大阪국제공항.

서울에사는 장녀 金玉蓮할머니(68·서울道峰區 孔陵洞684의48)와 일본 兵庫縣西宮市에사는 2녀 金玉禮할머니(66)는 물색 치마저고리를 입고 공항에 나와 北京에서 날아오는 동생 金玉順씨(62)를 한시간동안 초조히 기다린끝에 꿈에도 그리던 동생을 74년만에 얼싸안았다.

세월은 반세기를 지났지만 백발이 성성한 세자매는 건강한 모습에 말씨도 억센 경상도사투리 그대로였다.

이들은 아버지 金大鉉씨와 어머니 趙佳祥씨의 5남매로 태어났으나 아들들이 일찍죽는바람에 세자매만이 오순도순자랐다.

그러나 일제의 강압정책에 항거한 아버지가 36세의 젊음으로 옥사한뒤부터 집안이 몰락, 2녀와 3녀는 지난35년 각각 남편을따라 일본과 滿洲로 유랑을 떠났다. 이날의 만남은 한국적십자사와中共및 일본적십자사가 3각협력으로 3년동안 1백통이상의 편지를 교환한끝에 세자매의 거주지를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中共의 吉林省에서 농사를 짓고있다는 金玉順할머니는 장남인 金用甲씨(31)를 데리고 일본에 왔는데 『가능하면 고향에 돌아가 한국의 모습을 보고싶은게 꿈』이라며 울먹였다.

이날 공항에는 이들자매의 친족35명이 색동치마 저고리를 입고나와 함께 눈시울을 적시며 기뻐했다.

◇목메인 再會 재회의 기쁨에 목이메인 세자매. 왼쪽부터 金玉蓮씨(68·서울) 2녀 玉禮씨(66·日本) 3녀玉順씨(62·中共)。【大阪=聯】

海外취업자 편지 變造詐欺 기도

【釜山】부산 東萊경찰서는 23일 金명일씨(24·무직·東萊區巨堤4洞805)를 사기미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 15일 낮11시께 부산東萊區巨堤洞804의25 한도원씨(33)의 집대문의 편지함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취업하고 있는 남편 송종식씨(36)가 보내는 안부편지 1통을 훔쳐내 편지내용을 찢어 버린뒤 『사우디에서 값진 물건 5백50만원어치를 사면서 50만원을 지불하고 5백만원을 못주었으니 잔금 5백만원을 21일상오10시에서 10시30분 사이에 東萊區蓮山洞로터리에 있는 은행앞으로 나가면 손수건을 들고 서있는 사람에게 돈을주면 며칠뒤 물건을 갖고갈것이니 잘보관해 두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넣고 우편함에 다시 갖다 놓았다는것. 【鉛】

3억 상당 工具털어 전국돌며 41회 犯行

犯人·상인12명令狀

【大邱】대구中部경찰서는 23일 서울 부산 대구등 전국각지의 공구상을 대상으로 3억여원상당의 공구를 상습적으로 털어온 공구전문절도단 李炳植씨(26·경기廣州郡廣州面松亭里10-7) 李喜原씨(20·서울永登浦區新吉洞192)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이들이 훔쳐온 물건을 상습적으로 사들인 공구중개상인 노수익씨(25·경기光明市光明1洞74)등 공구상인 10명을 장물취득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4월8일 밤11시30분께 대구市中區北城路2가35 영하상사(주인 김영락·32)의 지붕을 뚫고 침입, 각종공구 3상자(싯가1천5백만원상당)를 훔쳐낸것을 비롯, 지난81년 12월7일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11회, 서울에서 17회, 부산에서 13회등 모두 41회에 걸쳐 싯가3억2백여만원 상당의 각종공구를 상습적으로 털어온 혐의다. 【鉛】

3人組복면강도 출몰 식품점등 2차례털어

釜山

【釜山】세밑 비상경계령이 내려진가운데 20대 3인조복면강도가 부산시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있다.

23일 새벽2시께 시내釜山鎭區釜田1洞2150 李원우씨(56)가 경영하는 식료품상회에 3인조 복면강도가 침입, 李씨부부를 칼로 위협, 미리준비한 나일론끈으로 양손을묶고 테이프로 입을막은후 장롱속의 현금1백16만원을 털어 달아났다.

또 22일 상오 8시40분께 시내 中區寶水洞88 朴종길씨(31)의 잡화상에도 흰복면을한 3인조강도가 침입, 혼자있던 朴씨를 칼로 위협 손과 발을 묶어놓고 현금25만원과 끼고있던 다이아반지등 1백여만원어치를 빼앗아 달아났다. 【鉛】

프로판개스 爆發 가족3명 重火傷

【釜山】22일 밤8시께 경남蔚山市岳音2洞·주공아파트404호 박종우씨(37)집 주방에서 프로판가스가 폭발해 박씨부인 김경숙씨(26)와 장남 성진군(4) 딸 보희양(2)등 일가족 3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김여인에 따르면 주방에 있던 가스통 메인벨브가 열려 가스가 새어나오면서 1m가량 떨어진 연탄불에 인화돼 폭발했다는것. 【鉛】

전국 보건소내에 가족保健係 설치

내무부는 23일 내년1월10일부터 전국시·군·구보건소에 가족보건계를 설치운영토록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인구대책을 강력히 시행하기위해 실제로사업을 집행하는 전국2백1개 보건소의전담요원을 3~6명으로 늘려 활성화하려는것.

지금까지는 각보건소에 전담기구도없이 전담요원 1~2명을 두었고 가족계획협회 도시·군지부에 간사1명만을 두고있어 적극적인 사업을 펴기어려웠다.

납치소동 미스서울 美法廷에서 追放令

【로스앤젤레스=聯】미스서울 납치소동의 장본인인 李淳福양(28)은 지난17일 덴버市법정으로부터 83년3월 이전에 미국을 떠나라는 추방명령을 받은것으로 22일 밝혀졌다.

덴버市법정의 재판관은 이날『李양이 허가없이 美체재시한을 넘겼기 때문』이라고 강제출국령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바다낚시 2명失踪

【麗水】22일하오3시께 전남麗川郡三山面巨文島 등대서쪽5백m떨어진 속칭 돌출바위에서 낚시질을하던 김춘부씨(38·부산西區忠武洞44)등 2명이 실종됐다. 【鉛】

「애어른」에 誠金 한국 야구르트乳業

한국 야구르트유업(주)사랑의 손길펴기회는 「애어른」金永秀군(한국일보 12월23일자 11면보도)에게 보내달라고 30만원을 본사에맡겨왔다.

5行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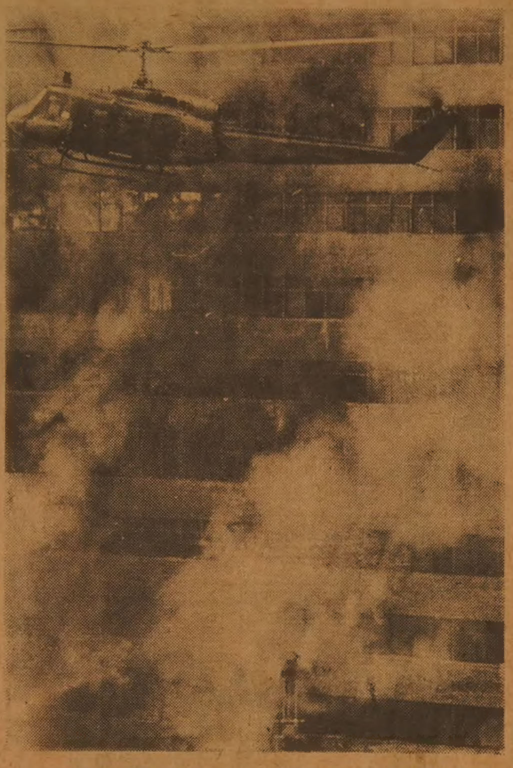
◆80代부부 연탄가스 中毒死 【馬山】23일상오9시께 경남馬山市玩月洞95 최경주씨(85)와 최씨의처 남이순씨(83)등 부부가 자기집에서 연탄가스에중독 숨졌다. 【鉛】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로프서 떨어진 사람 안타까워"

大然閣 화재…당시 헬機非常구조대 吳昊基씨


◇목숨을 걸고… 대연각화재때 투숙객을 구해냈던 吳소령의 헬리콥터가 수천도의 열을내뿜고있는 대연각빌딩에 접근할때의 모습이다.

"放縱·흥분뒤엔 災殃있다"

◇말끔히단장된 大然閣건물앞에선 吳昊基씨。吳씨는 11년전의 악몽같은참사를 회상하면서 크리스머스이브에는 모든사람들이 분수와 질도를 지켜야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 그사람

大然閣화재。꼭 11년전인 71년12월25일, 그리스마스휴일에 발생한 大然閣호텔화재사건은 사망자만 1백62명으로 세계호텔화재사상 최악의 참사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아직도 지니고 있다.

당시 서울中區忠武路1街25의5 大然閣호텔2층 코피숍에서 상오9시50분께 프로판가스취급잘못으로 일어난 화재는 복도를 연통삼아 20층까지 번지면서 하루종일탔다.

당시투숙객2백26명중 대부분은 전날밤 크리스머스이브를 이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즐겼거나 외부에서 망년회등을한뒤 투숙했던 남녀들이었다.

당시 화재현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하루종일 TV생중계됐으며 많은 시청자들이 참혹한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봤었다.

특히 이날 공군과 육군의 헬기들이 출동, 옥상으로 대피한 투숙객들을 구출하는 장면은 구조작업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곡예였다.

惨死 165명 世界최대

이번歲暮는 무사하게 넘겼으면

당시공군○○구조대비상대기조장이었던 吳昊基씨(47·空士8期生·현재 KAL점보기부조종사)가 현장에출동한것은 상오11시15분께(당시 吳씨의계급은 소령)。 부조종사 金鍾泰대위(공사15기·현空士교수·중령)등과 함께 大然閣상공으로 날아가자 아비규환의 현장이 눈앞에 나타났고 시커먼연기틈새로 시트를 흔들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투숙객들의 모습이 보였다.

吳소령은 자욱한 연기속에서 옥상 안테나를 기준으로 제자리비행을 하며 인양로프를 내려보내 로프에 매달린 남녀1쌍을 헬리포트가 있는 KAL빌딩옥상에 사뿐이 내려놓았다.

두번째로 18층에든 2명의 남자손님도 안전하게 구조했다.

그러나 비행기 밑바닥을 시꺼멓게 그을려가면서 감행한 3번째 4번째 시도는건물의 열기가 인양로프를 밀어내어 성공하지 못했다.

『다지난 얘기지만 그때는 매우 아쉬웠어요。 대담하게 접근하다가는 열기로 헬리콥터가 폭발할염려가있었지요』

吳씨는 다른 헬기의 로프를잡고대롱대롱매달려가다가 떨어져 숨진 1명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떠올라 안타깝기 그지없었다고 말한다.

吳씨는 이틀날 자신이 구조한 李龍根씨(당시36세)와 孫桂鉉씨(〃·재미 소아과의사)등 2명을만나 의형제를맺고 평생의知己를 얻은기쁨을 맛보았다.

77년 중령으로예편, KAL 조종사로자리를옮긴 吳씨는 해마다 성탄절이면 찾아오는 李씨를만나 우정을 깊게했고 미국으로간 孫씨는 그후결혼도하고, 필라델피아에서 소아과의원을 개업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러던 李씨가 6년전부터 소식을 끊었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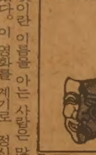
吳씨는 李씨등 당시헬기로 구조됐던 사람들7~8명의 소식을 금년세밑에는 알고싶다면서 『성탄절 전야의 방종과흥분뒤에닥친 재앙이라 지금도 느끼는바가 많다』고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申鉉鈺기자】

「35·5인치」 정신없이 벗은 스타 安昭暎양

製作者들 눈요기거리로 돈벌 궁리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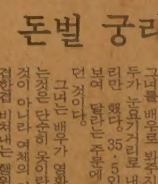
올 한해를 벗고뛴 글래머스타 安昭暎양(25·사진)을 보면 크지도 않은 몸매가 대단한 굴곡미를 지녔다는 생각이 든다. 키는161㎝로 보통이지만 가슴은 자그마치 35·5인치나 된다. 게다가 허리는 23인치로 잘룩해 가슴이 더 부각된다. 요절한 마릴린·먼로의 가슴이 36인치였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그녀 가슴의 풍만도를 짐작할만 하다.

그녀는 1년동안 이 큼직한 가슴으로 화면을 가득채웠다. 사실 그녀가 「愛麻夫人」이란 영화에서 알몸으로 말을 타고 관객들의 눈길을 끌기전까지만해도 영화팬중에서 安昭暎이란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않았다. 이 영화를 계기로 정신없이 벗고 뒹굴게 되었다. 올해 모두 7편의 영화에서 몸매를 자랑했고 자연스럽게 「安昭暎=벗는 배우」란 등식까지 등장했다.



여하튼 그녀가 출연한 「愛麻夫人」은 올해 한국영화최고의 흥행을 기록했다. 개인적으로도 돈방석위에 앉았다. 7편의 영화출연으로 5천만원을 벌었고 CF모델로 적지않은 수입도 올렸다. 35평의 아파트가 46평으로 변하고 포니2를 마련한것등 모두가 「풍만한 가슴」으로 벌어 산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올해를 며칠 남기지않고 한가닥 회한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벗는 배우」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의 주위엔 수많은 영화제작자가 몰려들었지만 그녀를 배우로 봐주지 않았다. 모두가 눈요기거리로 내세워 돈벌 궁리만 했다. 35·5인치의 가슴을 보여 달란는 주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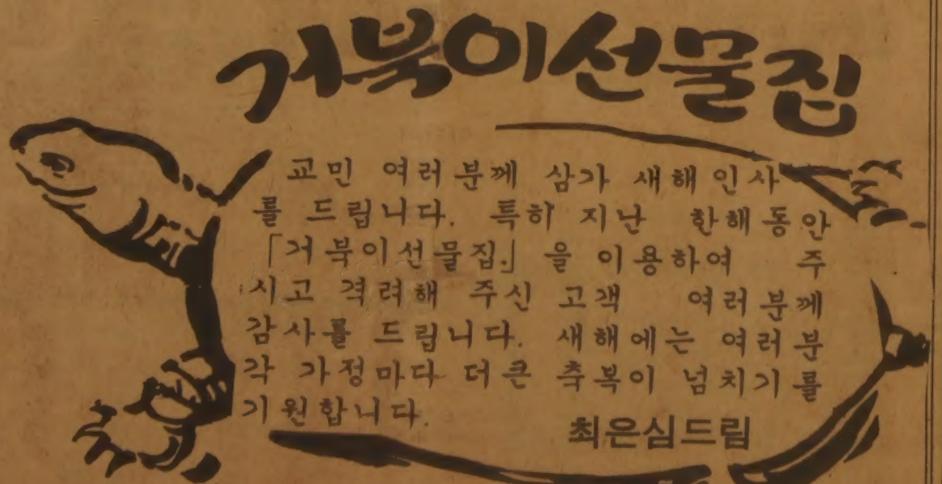


그녀는 배우가 영화에서 옷을 벗는것은 단순히 옷이란 물체를 벗는것이 아니라 여체의 아름다움을 한껏 비쳐내는 행위란는 나름대로의 예술관도 지니고 있다.

『마릴린·먼로나 브리지트·바르도가 오래 기억될수 있었던것은 뛰어난 아름다움이나 독특한 개성도 있겠지만 그들을 이해하고 영화를 이해하는 제작자등 많은 영화인들이 있었기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새해에도 감독의 주문이 있으면 벗겠다고 선언한다. 생각은 굴뚝같지만 현실은외면할수 없다는것인지. 그녀의 「알몸」이 설명해낼수 있을까. 【李亨基기자】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영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외국학생들을 위한 TOEFL과 미시간시험을 대비한 특별교실.
□기초반·중급반·상급반
□83년도 1월·3월·5월·7월·9월 그리고 11월에 수업시작.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외국학생의 비자신청 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왕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444-1136

새해복많이받으세요
거북이선물집

교민 여러분께 삼가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거북이선물집」을 이용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각 가정마다 더큰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최은심드림
617 BLOOR STREET WEST, TORONTO, ONT.
BUS. 535-2143

한양공고동문
신년파티
휘뫼에 높고도 푸른 뜻으로 한가람에 맑고도 깊은 맘으로…
회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한양공고 동문이 한자리에 모여 하룻저녁 회포를 풀고자 아래와 같이 자리를 마련하오니 부부동반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1983년1월15일(토)
　　　　오후8시~1시까지
장　소 : 뉴서울식당
연락처 : 김오석 534-3648(B)
　　　　신창국 742-9181
　　　　김풍수 832-1573(B)
한양공업고등학교
동문회장 김 오 석

멋진歲暮선물 蹴球回生

한국青少年、세계本選티킷

이라크 制壓 李基根·申連浩 1골씩

방콕亞洲豫選 우승

◇다이빙 追加골 한국의 申連浩(오른쪽하단에 넘어져있다)가 22일 방콕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 청소년축구대회 對이라크전 경기전반에서 멋진 다이빙헤딩슛으로 추가 골을 올리고 있다. 【방콕22日AP聯合】

뉴델리 아시안게임 예선탈락등 치욕적인 결과를 남겼던 한국축구는 청소년대표팀이 제23회 아시아청소년축구대회 최종 4강리그(한국 중공 이라크 아랍에미리트)서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82년 각판에 再起의 숨통을 트게 되었다.

한국대표팀은 북한의 자격상실에따라 국내에서 1주일간 손발을 맞춘 상태로 급히 대회에 출전했으나 孫壽榮단장·朴鍾煥감독·元興載코치의 지도아래 선수들이 강인한정신력으로 단결, 중공 이라크의 도전을 뿌리치고 예선1위로 내년도 멕시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획득했다.

7명의 새로운선수를 보강한 청소년대표팀은 국가대표의 뉴델리 참패에 큰 자극을 받아 만신창이가된 한국축구를 재건해야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경기에 임하여 기대이상의 좋은 성적을 올렸다.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보여주었다.

한국청소년팀은 22일밤 방콕국립경기장서 열린 이라크와의 최종경기에서 李基根·申連浩의 전반득점으로 2-1로 승리했는데 李基根(18·우신고·1m71·64kg)은 한국팀이 얻은 7골가운데 3골을 뽑아내 새로운 골게터로 각광을 받았다.

한국은 이로써 아시아청소년축구대회서 6번째 우승을 차지했으며 세계대회에는 79년 東京, 81년 濠洲대회를포함하여 3번째 출전하게 되었다.

내년6월4일 개막되는 멕시코 세계선수권대회에는 각대륙의 예선을거친 14개팀과 주최국·전대회우승국(서독)등 모두16개팀이 출전, 4개조의 예선리그후 각조1、2위팀이 8강토너먼트로 패권을 다투게된다.

朴鍾煥감독은 앞으로의 훈련문제에 대해「앞으로 계획을 통해 1차적으로 체력을 다듬고 3개월동안 조직적인 트레이닝을 하면 세계대회서 8강을 노릴수있다」고 밝혔다. 현 대표팀은 투지가좋고 기량이 고르지만 뚜렷한 대형선수가 없다. 한국선수단은 24일 泰國대표팀과 친선경기를 벌이고 27일하오 귀국할 예정이다.

◇청소년 대표팀명단

▲단장=孫壽榮
▲감독=朴鍾煥
▲코치=元興載
▲선수=姜承鎬(GK·영등포공) 金豊柱(〃·대우) 俞炳玉(FB·마산공) 金判根(〃·금호고) 文元根(〃·서울시청) 張政(〃·군산제일고) 盧仁佑(HB·고려대) 金鍾建(〃·동대부고) 金興權(〃·전남대) 金政根(〃·동국대) 黃永璣(FW·금호고) 李承熙(〃·강릉농공) 李太炯(〃·안양공) 金鍾珉(〃·한양공) 崔世根(〃·부산상) 申連浩(〃·금호고) 李基根(〃·우신고) 金平石(〃·서울시청)

내년 野球日程
봉황대기 8월5일
亞洲대회 9월3일

대한야구협회는 22일 82년도회종이사회를 열고 제12회아시아선수권대회등 83년도 각종사업계획과 이에 필요한 예산 6억2백26만6천4백39원을 확정, 전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83년 야구시즌은 오는 3월12일에 열리며 봉황대기고교야구는 8월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운동장과 잠실구장에서 벌어진다.

이밖에 대통령배 고교야구는 4월23~30일,청룡기고교야구는 6월1~9일,황금사자기대회는 9월15~22일에 각각 열리게 된다.

또 국제대회로는 제12회 아시아선수권대회(9월3~13일)와 美AIA팀초청경기(7월27~8월2일)등이 있고 한·미대학선수권(미국) 세계청소년대회(미국)대륙간배세계대회(벨기에)등 국외대회에 선수를 파견한다.

테니스女王 金壽玉 프로로轉向
渡美채비 "세계強豪와 겨루고파"
LA동포 柳仁浩씨·李德姬조언으로 勇氣

金壽玉이 프로로 간다. 뉴델리아시안게임 단체전 우승의 주역이자 국내여자테니스의 1인자인 金壽玉은 프로테니스 진출의 뜻을 굳히고 미국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이제 아시안게임도 끝났으므로 너무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과감한 플레이를 해보고 싶어요. 당장 프로선수가 된다기보다는 우선 1년간을 상위권진출의 준비기간으로 잡고 온힘을 쏟아볼 겁니다』

78년 테니스의 명문 브니엘여고를 졸업하고 곧 바로 방콕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등 5년째 국가대표로서의 위치를 굳혀온 金壽玉은『보다 넓은 국제무대에 나가 많은 경기경험을 쌓고 세계정상들과 어깨를 겨뤄보는것이 꿈』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했다.

그러나 국가대표에 묶여있는데다 혼자 외국의 프로에 뛰어든다는것이 엄두가 안나 미루어오다가 이번 아시안게임후 후원자인 재미동포 柳仁浩씨(41)의 다짐을 받으면서 용기를 얻었다.

金壽玉은 渡美의사를 소속팀인 農協의 洪淸水감독에 털어놓았고 홀어머니인 殷仲山씨(58)도 이를 응락했다고 한다.

金壽玉의 후원자가 될 柳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여행사와 무역업을 하는데 테니스狂.

柳씨의 누나 [illegible]씨도 미국에 테니스유학중인 [illegible]과 李수산나를 [illegible] 뒷바라지를 할 정도로 열성이다.

金壽玉은 지난7월 미국샌[illegible]에서열린페더레이션컵대회 참가차 미국에갔을때 LA근교에 있는 柳씨집에 1주일간 묵은바 있으며 이때 처음 柳씨로부터 프로진출의 의사를 타진받았다.

『지난 6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선수단 환영식때 柳선생님을 다시 만났는데 적극 후원해 줄테니 빨리 오라고 하시더군요』

金壽玉은『외국에 원정갈때마다 자신이 외국프로생활에 적응할수 있을까 스스로 테스트해보았고, 李德姬선배로부터 프로생활에대해 많은 조언을 들었다』며 오랫동안 품어온 기쁨에 들떠있다.

金壽玉은 또 자기의 나이가 21세로 되어있지만 실제나이는 59년생으로 23세라고밝히고 프로진출을 마음먹은바에야 더 늙기전에 떠나는게 좋을것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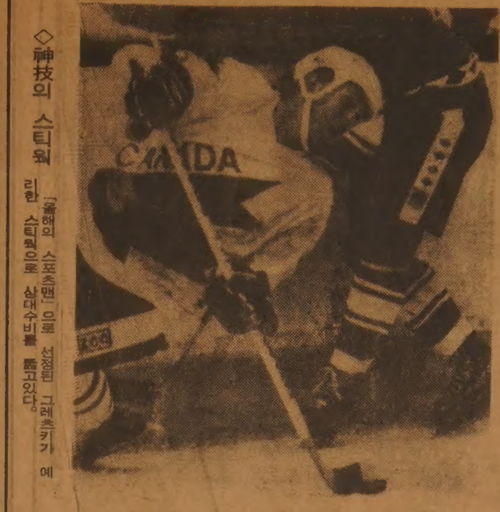
지금까지 체력관리에 남보다 신경을 써온 탓인지 아직 체력에는 자신이 있다고.

金壽玉은 한국선수들이 국제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한것은 경험부족에다 외국선수들의 템포에 부담감을 가지기 때문이라며 꾸준히 부딪치고싸우면 좋은 결과를 맺을수 있을것이라며 대단한 의욕을 보였다.

1m65, 57kg의 좋은 체격에 강한 포핸드·스트로크가 일품인 金壽玉은 79년10월아시아주니어선수권의 단체전과 개인전 단·복식을 휩쓸었고 80년에는 방콕아시아마스터즈대회의 패권을 차지한 국내 최강자이다. 【金英根기자】

◇웃음속 큰 포부 프로테니스 진출의 포부를 밝히고있는 金壽玉선수.

海外스포츠話題



◇神技의 스틱워크 「올해의 스포츠맨」으로 선정된 그레츠키가 예리한 스틱워크으로 상대수비를 뚫고있다.

恐怖의 아이스하키 得點王
시즌 212點 기록
加오일러즈팀 그레츠키 選手

◆…프로아이스하키(NHL)의 득점왕으로 각광받고 있는 에드먼튼·오일러즈의센터 웨인·그레츠키가 21일 스포츠전문주간잡지「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에 의해「올해의 스포츠맨」으로 선정되었다.

공포의 득점왕 그레츠키는 81~82시즌 92골, 1백20어시스트로 2백12점의 최고득점을 기록하며 소속팀 오일러즈를 스탠리·컵 결승에 이끌어 올렸다.

그레츠키는 NHL의 각종 개인기록중 27개를 보유, 이가운데는 1게임 5골 1회, 1게임 4골 3회, 1게임3골 10회의 기록등이 포함되어있다.

그레츠키도 82년 캐나다안·루·마치·상을 받았으며 3년연속으로 NHL의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트로피가 캐나다선수에게 주어지는 것은 30회의시상중 이번이 2번째, 하키선수에게는 3번째이다. 이트로피는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가 지난 79년 창간 25주년기념으로 스미소니언연구소에 기증한 기원전5백10년께의 그리스항아리의복제품이다. 【에드먼튼(캐나다) UPI聯合】

할렐루야·北京팀등 홍콩 蹴球大會초청

【홍콩=聯合】 홍콩축구협회는 할렐루야축구팀과 北京팀을 초청하여「新年초청경기」를 갖[illegible] 내년2월13일 한국할[illegible]

海外스포츠話題

프로野球선수 5年계약금
600萬弗(45억원)
美 가비選手, 파드레스팀 入團

◇스티브·가비

◆…美프로야구의 강타자 스티브·가비(34)가 6백만달러(한화 약45억원)의 사나이로 등장했다. 81년 시즌 로스앤젤레스·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제패에 공헌했던 오른손잡이 강타자 스티브·가비는 22일 자유계약선수로 샌디에이고·파드레스와 6백만달러로 5년계약을 체결했다. 가비의 연봉은 1백20만달러(한화 약9억원)。

스티브·가비는 로스앤젤레스·다저스의 3루수로 메이저·리그 선수생활을 시작, 1974년 1루수로 자리를 옮기며 공격·수비에서 모두 진가를 발휘해 내셔널·리그의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되었다. 그해의 타격성적은 3할1푼2리, 홈런21개, 타점 1백11점, 수비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며 골든·글러브상을 받았다.

74년이후 8년동안 가비는 꾸준히 타격 상위랭커로 자리를 지키며 평균타율 2할9푼7리를 마크, 9년동안 계속해서 올스타로 선발되었으며, 9년동안 평균 97타점을 올렸고 생애 평균 3할1리의 타율을 기록하고있다.

가비는 특히 큰 게임에 강해, 4차례의 내셔널리그결승시리즈서 3할5푼6리, 4차례의 월드·시리즈서3할4푼4리의 [illegible]을보였다.

원 소속팀 다저스의 5백만달러 4년계약을 뿌리치고 자유계약선수로 나섰던 가비는 9팀으로부터 스카웃제의를 받아 흥정을 벌였다. 최후까지 흥정대상으로 남은팀은 시카고·컵스, 샌프란시스코·자이언츠, 샌디에이고파드레스。가비는 그중에서LA자택과 가깝고 내셔널리그소속이며, 장차 정치적인야망을 키울수도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이고를 선택했다. 【샌디에고(미국)UPI聯合】

濠마라톤 賞金 9萬달러
美살라자르등 參加키로

◆…세계마라톤을 주름잡는 美國의 알베르토·살라자르와 濠洲의 드·카스텔라가 [illegible] 마라톤대회에서 2시간8분12초의 세계기록을세운 살라자르와 겨뤄볼기회를 갖게돼 기쁘다고 말했다. [illegible]

濠洲퀸즐랜드 [illegible] 마라톤대회에 [illegible] 참가키로 합의했다고 드·카스텔라는 21일 밝혔다. [illegible] 【시드니(호주)AP=聯合】

陸上萬m 國體추가
복싱헤비·슈퍼헤비

대한체육회는 22일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 대비, 미개발경기종목의 국내보급을위해 내년 제65회 전국체육대회(仁川)부터 육상1만m경보와 복싱헤비급(고등부)·슈퍼헤비급(일반부)경기를 신설키로 결정했다.

체육회는 이날 열린 제4차 이사회에서 또 65회체전에서 근대5종(육상·수영·사격)·다이빙·요트·롤러·롤러스케이팅등 5개종목을 시범종목으로 실시하기로했다.

체육회는 이들을위해 仁川에서 개최가 불가능한 요트는 忠南牙山灣, 다이빙은 서울, 조정은 水原 원천저수지에서 실시키로하고 롤러와 롤러스케이팅도 仁川의 시설이 보가 불가능할 경우 서울에서 실시키로 했다.

最優秀코치 方烈씨
最優秀선수 朴守敎
농구협회선정

대한농구협회는 금년도 최우수코치에 方烈(현대감독), 金東旭씨(태평양화학코치)를 선정했으며 최우수선수에 朴守敎(현대)洪惠蘭(태평양화학)을 각각 선정, 오는 29일 열리는「농구인의 밤」에 표창키로 했다.

부드러운 겨울 ㉑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301>

아내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 그는 철따서니 없게도 아내가 죽으면 따라 죽을 것을 하늘에 맹세했고, 기적적으로 아내와 아기가 다 살아나자 그 기쁨을 잠꼬처럼 흥작했다. 이상하게도 아내가 목숨걸고 낳은 아기가 그가 그렇게도 바라던 아들이란것은 별로 기쁘지않았다. 아내가 살아난 격정적 기쁨이 가라앉고도 아들을 얻었다는 사실은 기쁨으로서가아니라 덤빈 허망감으로 다가왔다.

그 주체할수 없는 허망감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일남이를 발견했다. 원수로서가 아닌 늠름한 장남으로서 일남이가 그의 커다랗게 뚫린 허망감을 뿌듯하게 채우기시작했다. 그는 그가 아내가 죽을까봐 울고하고 절망하고기원하고, 아내가 살아나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동안, 그의 곁에서 일남이 역시 그와 똑같은 고통과 기쁨을 겪으면서 그를 돌보고 염려하는 일까지 함께하고 있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처음으로 일남이를 따뜻하게 포옹했다. 그리고 그에게 구박받으면서도 얼마나 단단하고 늠름한 소년으로 자랐나를 몸으로 느꼈다.

『오오, 일남아, 내 아들, 내 새끼!』

그는 목메어 부르짖었고 일남이는 아버지, 아버지하면서 감격 울부짖었다. 그때 일남이가 새롭게 얻은 [illegible] 아들이라기보다는, 한가지의 어려운 일에 똑같이 힘을 모아 넘긴 동지로, 한 여자를 놓고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극진히 사랑한 가족일수도있었다.

충동적이 격정된 후 그는 자주 일남이와 단둘이만 있을 기회를 만들었다. 그럴때마다 그는「아빠없는동안 엄마 잘 부탁한다」는 말을 했고, 가족이 함께 있을 때도 자주 단둘이서만 눈을 맞추고「너만 믿는다」는 간곡한 의사전달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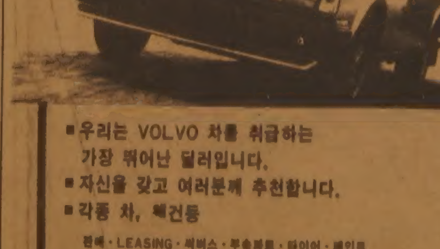
때로는 아빠하고 팔씨름 할래? 권투할래? 하기도 했고, 붙잡아 [illegible] 메다꽂는 장난을 치기도 했다. 그런 방법으로 일남이의 단단하지만 아직은 작은 몸과 부대끼면서 그작은 몸에 얼마나 엄청난 짐을 실어주려 하는가? 자신의 잔혹성에 경악했고,그가 없는 동안 그 작은 몸이 힘겹게허덕일 생각으로 마음이아프고 쓰렸다.

모든 것이 잘 되겠지? 우선 경제적으로 풍부해졌[illegible]까, 이렇게 그가 없는동안을 낙관하려들어도 오욕이의 건강은 간신히 봉해놓은 괴물단지처럼 그를 위협했다.

전전긍긍 잠못이루는 그와는 달리 오욕이는 내일 남편이 떠날텐데도 초저녁부터잘잤다. 낮동안 지칠줄 모르고 바삐게 움직이던것과는 딴판으로 잠들면 시체처럼 세상몰랐다. 다만 낮동안 헤프게 흘린 웃음처럼 밤새도록 헤프게 식은땀을 흘렸다. 어둠속에서 수초처럼 눅눅하게 처진 머리를 뒤로쓸어모으고 얼굴을 더듬으면 그의 손바닥에 들어오게 작은얼굴이 섬뜩한 촉감으로 만져졌다. 숨결은 가쁘면서도 미미했고 식은 땀때문에 차가운 이마에 입술을대면 높은 신열이 입술을 말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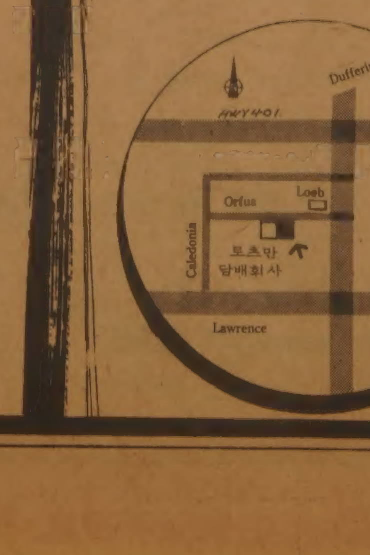
마지막 날 그는 죽은듯이 잠든 아내를 가슴에 품고 생각했다. 그가 십여년동안 힘겹게 자신을 극복하고 일남이를 아들로,가족으로,아니 동지로 새롭게 맞아들였다는건 오욕이의 그의 가장큰 보람이었다. 자신속의 그것을 극복했기에 그는 그게 얼마나 지긋지긋한 악귀란는걸 알고있었다. 그런데 문득 그가 십여년동안 오욕을 다해 죽인건 그신속의 악귀가 아니라 아내였던 생각이 든것이다. 십여년동안 아내를 가금씩 조금씩 살해해왔던 가책으로 그는 사납게 뒤채기 시작했다.

S.T.S Motors
자랑스런 차
각종 VOLVO
(스웨덴)



■우리는 VOLVO 차를 취급하는 가장 뛰어난 딜러입니다.
■자신을 갖고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각종 차, 새건등
판매·LEASING·써비스·부속파트·타이어·페인트
S.T.S.MOTORS
전화: 751-7664 (■■스×EAST OF WARDEN)
2116 LAWRENCE AVE. E.

도매상 Cash & Carry
DOMINION SMALLWA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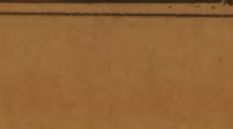


확장이전공고

한인교포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저희 도매상은 아래의 장소로 확장이전하게 됨에 인사드립니다.
배전의 성원을 바라오며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요.

대표 Sol Dennis 쎄일즈·매니저 김근대 올림.

새주소: 47A Orfus Rd.
(도매상 Loeb근처)
☎: 789-7214~5
(종전과 같음)
이전날자: 1983년1월4일(화)



맛 사 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한국일보
국민의理性은健全한新聞

24개 國營업체 대폭改編

人事·豫算독립 자율화
조직·機構도 축소整備

韓電과石公, 주택공사, 도로공사, 무역진흥공사를 비롯한 24개정부투자기관의 조직과기구가 내년부터 대폭적으로 축소 정비·개편된다.

정부는 국영기업체의 경영쇄신을위해 인사, 예산을 독립시켜 자율화하는한편 경영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 이사장제도를 새로도입하고 이사장을 책임자로하는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사장책임하의 집행기구와 분리시켜 조직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二元化하고 大部·大課원칙에 따라 유사한 部·課와 불필요한 중간조직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22일 관계당국에의하면 이같은 조직개편은 국영기업체의 경영을 효율화하기위한경영개선 종합대책에 따른것으로 내년초 국회에서 관계법률안이 통과·확정되는대로곧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정부투자기관경영개선방안은 국영기업에대한 정부의 통제, 승인, 보고, 감독업무를 대폭축소시켜 자율적인 경영체제를확립하고 경영실적에대한 사후평가제를도입, 실적이 좋은 기업에대해 장려금지급과 인사고과반영을하고 실적이나쁘거나 과실이있는 기업에대해서는 인사상문책은물론 재산상책임까지 묻는 엄격한책임경영제를 실시하며 경영의 효율화를위해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경영조직을 대대적으로 축소개편 정비한다는것등을 골자로하고있다.

개편되는 국영기업의 경영조직은 이사장 (상근)과 이사 (상근및비상근)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의결기능만전담, 집행부서에 업무적간여를 할수없도록하고 사장↓專擔部署長↓실무계통으로 구성되는 집행부서는 사장이 독자적으로 인사권과 경영권을 행사하며 경영에대한 책임을 이사회에대해 지도록 하는 체제로 돼있다.

경영의 자율성 보장을위해 정부는보고,승인,통제,감독, 감사 업무를 대폭줄여 1백 30여종의 각종 보고·승인사항을 폐지하고 감사기관을일원화시켜 은행의 경우 은행감독원 재무부 경제기획원감사원등으로 부터 중복감사를 받게돼있는것을 앞으로는 은행감독원 감사만으로 일원화하고 다른 기관의 경우도 감사원감사만 받게할방침이다.

정부는 일련의 경영쇄신방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해 『정부투자기관 경영합리화 촉진을위한 기본법』 (가칭)을 제정, 내년초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현행 정부투자기관 관리법은 이를 폐지하고, 24개의 각종공사 설립법과 보조금관리법등 16개관련법률등 40여개법률은 새로 제정되는 기본법에의해 저촉되는 관련조항이 법적효력을 잃도록 할방침이다.

에브렌 터키 大統領 회견
"經濟·文化관계協力 더욱增進되길 희망"

◇에브렌 터키대통령이 국립박물관을 방문, 전시품을 둘러보고있다。

케난·에브렌 터키대통령은 22일 『이번 訪韓을계기로 양국우호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희망하며 全斗煥대통령과의 頂上회담을통해 양국이 더욱 밀접해지고 더 잘 이해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믿는다』면서 『全대통령과제반문제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앞으로 양국은 더욱더 상호신뢰하고 협력해 나갈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에브렌대통령은 이날하오 6시 新羅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말하고 양국의 경제관계에 대해 『우방및 형제의 나라인 양국은 불행하게도 近年에 경제관계에 있어서 큰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한후 『개발도상국인 두나라가 가까운장래에 만족할만한 경제관계가 증진될것으로 믿으며 양국간의 문화관계협력도 더욱 증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에브렌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상오 날씨관계로 당초예정됐던 昌原공업단지등 지방시찰일정을 취소하고 서울국립박물관을방문, 1시간동안 문화재를 관람했으며 하오엔 水原에 있는 三星電子공장을 시찰했다.

내년 議員外交 적극화
IPU總會 誘致계기
阿洲·동남아·中東중점

국회는 내년10월에 열리는 IPU (국제의회연맹) 서울총회 유치를 계기로 年初부터 아프리카·東南亞·中東지역국가들에 대한 議員外交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같은 방침에따라 오는 28일 의장단·총무단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의원외교활동운영협의회를열고 83년도 의원외교활동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이다.국회사무처가 마련한 방안에 의하면▲常任委10개팀▲의원친선협회15개팀▲6·25參戰협회 2개팀▲議長團2개팀등 모두29개팀1백30여명의 의원들을 각국에 파견하는 한편 뉘니지국회의장, 페루상원의장등 32개팀1백90여명의 외국의원들을 초청할계획이다.

특히 내년이 韓英, 韓獨修交 1백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에서 금년의 韓美修交1백주년 행사와 비슷한 의회차원에서 의원교류를 추진하고 IPU제1백32차 이사회와 APPU (아시아·太平洋의원연맹) 총회등 국제회의에도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의원외교활동이 미약했던 아프리카·中東·東南亞등 취약지역에 의원단을 집중파견하는한편 가급적 중복방문을 피하도록 해 내년에는 60여개국을 방문할수있도록 했다.

국회관계자는 이같은 의원외교활동방안이 확정될경우 내년까지는 延人員으로 전체의원의 1백30% (금년까지 93%) 가 1회이상의원외교에 참여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

金總理, 멕시코 大統領과 요담

【멕시코시티=河長春특파원】 멕시코를 방문중인 金相浹국무총리는 20일하오(韓國시간 21일하오)새로 취임한 델라·마드리드 멕시코대통령을 대통령궁으로 예방, 양국간의 관계증진및 상호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델라·마드리드대통령은 지난1일 취임했으며 취임이후 수뇌급인사로는 金총리를 최초로 만났다.

金총리는 이로써 지난3일이후 中南美4개국순방을 모두 마치고 미국로스앤젤레스를 거쳐 23일하오 귀국한다.

金총리는 델라·마드리드 대통령과만난자리에서全斗煥대통령의 취임축하인사와 訪韓초청내용이 담긴 친서를전달했으며 이에대해 델라·마드리드대통령은 『앞으로 기회가 나는대로 한국을 방문하겠다』며 訪韓초청을 수락했다.

델라·마드리드대통령은 세계의 긴장된 분위기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제, 『대화와 교류를 통한 한국의 평화통일정책에 깊은공감을 갖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위해 양국의 외무장관과 관계경제장관들이 구체적으로 협의하자』고 제의하고 『경제분야뿐 아니라 문화·사회등 각분야에서도 협력을 증대시켜나가자』고 말했다.

金총리는 이에앞서 곤잘레스상원의원을 만나 조찬을함께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슐츠訪韓 미정

【로스앤젤레스=聯】柳炳賢 駐美대사는 20일 조지·슐츠 美국무장관의 공식적인 한국방문계획이 아직 확정되지않았으며 美국무성이 현재 그의 訪韓계획을 검토중인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公職者 86만명 經濟교육 실시

정부는 22일부터 내년2월까지 5級이상 공무원과 部長級이상 산하단체 任職員등 公職者 86만명에대해 경제교육을 실시키로했다고 총무처가 22일 발표했다.

이번 공직자 경제교육은▲1단계 (22~30일) 는 在京공직자 1만2천명 ▲2단계 (1월10~20일) 는 道廳소재지별로 지방공직자 8천명 ▲3단계 (2월중) 는 기타직원 84만명에 대하여 각기관장책임하에 직장단위로 실시되는데 각부처차관보 8명과 전문가들로구성된 교관단의 特講과 『경제정책에서 이기는길』, 『쌀과우리경제』등 3편의 슬라이드가 放映된다.

社會漫評

조심 콜록…하시오 콜록…

地平線

트랜스포테이션·푸어라는 말이 있다. 직역을 하면 교통빈곤층이 된다. 공공 교통기관에서 소외되고 자기차를 못 가졌기 때문에 교통편一발을 빼긴 노인이나 어린이, 더나가서는 교통소외지대의 주민들을 말한다. ▼트랜스포테이션·푸어에는 노령자 신체장애자 어린이들도 있지만 기후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교통빈곤층이 되는 사람도 있다. 눈이내리면 먼지대사람들은 택시잡기도 힘들고 노약자는 언덕길을 오르내릴엄두를 못내게 된다. 서울시내에 육교가 상당히 있지만 눈이오거나 비바람이 불면 미끄러워지기 쉽고 겁부터나서 이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시민들도 없지 않다. 버스나 택시가 늘기는했어도 트랜스포테이션·푸어 또한 어느새 그처럼 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들락거리기힘든서울에 매일처럼 나오는 근교사람들이 하루에 52만명이나 된다고한다. 安養, 富川, 城南, 水原, 仁川, 議政府등의 인구가 최근17%까지늘고 매일 출근하는 사람만도 약31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령 52만명이 한 버스에 50명씩탄다고하면 버스만해도 약1만대가 있어야된다는 계산이니 어마어마한 숫자다. ▼거의가 서울에 직장이나 생활수단을가진채 서울의 집값이 너무비싸 근교로이주한 사람들이기때문에 교통난은 조금도 완화될기미가 보이지않는다. ▼서울에는 초고층빌딩이 밀집해있는데 여기에도 한계는 있다고한다. 가령 4백층의 건물을 세우게되면 사무실이나 화장실이 전혀 없고 엘리베이터만으로 그 빌딩이 꽉차야 교통정리가 된다고 계산한 건축가가 있었다. 엘리베이터만있는 4백층빌딩, 생각만해도 현대도시문명의 모순을 잘 말해준다. 4백층건물의 교통인구를 제대로 소화하기위해서는 배보다배꼽이 커야 한다는 결론이다. 점보비행기도 마찬가지로 수백명을 넘게되면 좌석마다 토일렛을 겸하게 설계해야된다고 한다. ▼그러고보면 우리 서울에 자꾸 고층빌딩만 밀집해도 좋은게 아니다. 눈에띄는 큰길이 정비됐다고 트랜스포테이션·푸어가 없어지지 않음을 뼈아프게 느껴야될것이다. 눈만 조금와도 비스正經노선이 생겨야 하는판에 바깥 나들이가 불편한 일부 시민을 위해서 좀더 짜임새 있는 배려가 아쉽다 하겠다.

방콕A型 독감注意報
高熱에 기침·콧물
어린이·老弱者 조심을

우리나라 전국이 독감권에 들었다. 보사부는 지난20일 인플루엔저주의보를 내린데 이어 22일 전국에 방콕A형 독감주의보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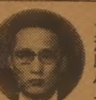
보사부는 이날 전국감기환자62명의 가검물을 채취, 검사한결과 이날까지 22명으로부터 방콕A형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히고 특히 어린이·노약자들이 주의해줄것을 당부하면서 내년 3월말까지는 이독감이 계속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밝혔다.

그런데 독감환자는 이미지난달하순부터 전국에번져서울지역의 경우 하루70~80명의환자가 약국을찾는등 기승을 부리고 병원마다 평소의 2배가량 환자가 늘어나고있는 실정이어서 주의보가 뒤늦게 내려진 셈이다.

보사부는 이달중순부터 환자발생이 심각하다고보고 병원과연락, 보건요원을 파견하는등 가검물채취에나서 20일 인플루엔저주의보를 내렸는데 그나마 뒤늦게 발표된것으로 지적됐던 지난해12월10일보다도 10일이늦었고 방콕A형환자도 이날 밝힌숫자보다 훨씬더많이 번져있는것으로 보인다.

보사부관계자는 주의보가 뒤늦은데 대해 『그동안 인플루엔저주의보를 내릴만한 적당한 계기가 없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選管委 사무처장 金瀅駿씨를 選任



중앙선관위는22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靑瓦臺司正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鄭寬溶前사무처장후임에 金瀅駿중앙선관위원 교육원장 (사진) 을 선임키로 議決했다.

◇金처장略歷 ▲黃海道長淵출신·52세 ▲高大경제과卒 ▲총무처 인사제도·인사과장 ▲"인사·행정관리국장 ▲"기획관리실장▲訴請審査위원장▲중앙공무원교육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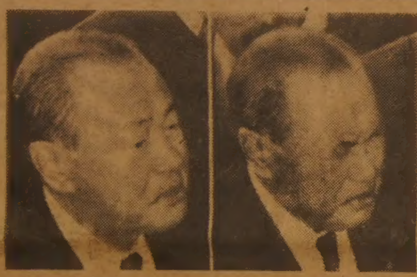
日, 내년초 總選실시
나까소네 1월중 衆議院해산 示唆

【東京=聯】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 일본수상은 21일 내년은 선거가 계속되는 숙명의 한해가될것이라고 말해 지방선거·참의원선거등과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중의원 해산總選을 단행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고 일본신문들이 이날크게 보도했다.

나까소네수상은 自民黨 선거본부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내년은 戰後 총결산의 해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 國政의 방향을 새로이 이끌어가는 한해가 될것』이라고말하고 『政黨은 모든 선거계전력을 기울여야할 숙명적인사명의식을 안고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나까소네수상의 선거관계발언과 관련, 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이날 석간에서 『내년1월 개최될 정기국회중 중의원해산에의한 총선거실시방안등이 제의될것이라고 보도하고 정부와 自民黨은 물론 야당가에서도 83년을 정치결전의해로 삼고있을뿐만아니라 록히드事件을 둘러싼 다나까(田中角榮)前수상관련재판을 고려해볼 때 중의원해산은 내년상반기중에 단행될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록히드收賄사건
다나까 前 日首相 내달 26일에 求刑


◇'괴롭다' 다나까·가꾸에이 (田中角榮) 前 日本수상이 22일 록히드사건과 관련, 도오꾜 (東京) 지방법원에 출두, 증인석에 앉아있다. 【東京22일AP電送=聯】

【東京=宋孝彬특파원】록히드社로부터 5억엔을 수뢰한 혐의로 기소된 前首相다나까·가꾸에이(田中角榮) (64) 에대한 구형공판이 내년1월26일로 정식확정됐다.

東京地裁는 22일 다나까前수상에대한 사실심리를 끝으로 6년동안끌어온 록히드재판에대한심리공판을 맺었다.

다나까前수상은 검찰측에 대한 심리를 계속 거부했으나 이날 오까다(岡田)재판장의 사실심문에는 응해 『록히드社로부터 항공기의 매각협조를위해 5억엔을 받은사실이 전혀없다』고 전면부인했다.

다나까전수상의 전면부인에도 불구하고 내년1월26일에 내려질 구형공판에서 무거운 실형구형이 내려질것이 확실시되므로 自民黨 일부에서는 정치적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조기국회해산론이 대두되고 있다.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精誠… 큰뜻 이루게

<22일접수>
電話접수 722-4171

▲三銃商事(株)회장 名譽經營學博士 李演用씨=2백만원 ▲韓國友愛(株)대표이사 김영래씨외 임직원一同=50만원 ▲구인회(회장 조용만)회원 (황의모 유명희 송홍해 서영시 나기수 장지성 박성철 김연수제씨) 一同=30만원 ▲황해도 은률군 장련면 관해리 봉산향우회일동=3만원 ▲청운중대예비군일동=8만5천9백원

三銃商事(株) 李演用회장 2백만원
韓國友愛(株) 50만원
구인회一同 30만원

◇李演用씨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거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Happy Holiday Season
韓國料理의 傳統을 이어
韓國的인 멋을 겸비하게 된 토론토의 명물
※이미 일류요리사 유숙명씨(중화요리 전문)가 일을 하고 있읍니다.

한국관

ㅁ크리스마스 년말파티 예약 접수중,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5주년 개업기념 봉사
기간 : 11월29일부터 (단 토·일요일은 제외)
짜장면 $3.25
곰 탕 $3.25
냉 면 $3.25
비빔밥 $4.00
육계장 $4.00
영업시간 : 오전10시~새벽1시까지

대표 나 옥녀
628 BLOOR ST. WEST, TORONTO
☎ 531-0277

이란、곧 대규모 報復攻勢

이라크 미사일沮止위해 全戰線서 일제히

【테헤란UPI=聯】이란은 21일 이라크의 데즈풀에 대한 미사일공격을 보복하기 위해 곧 새로운 대규모 공세를 감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알리·하메이니 이란대통령은 이날 테헤란방송과의회견에서 『새로운 공세가 이라크가 이번 데즈풀공격때보다 더욱 먼 거리에서도 우리들의 도시를 공격할수 없도록 만들기위해 대규모 작전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라드·시아지 이란 육군사령관은 이날 별도회견에서 이란의 새로운 공격이 모든 전선에서, 그리고 매우 신속히 감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5개公式用語 내년에 아랍語追加

【유엔본부AP=聯】유엔은 英語·佛語·中國語·露語·스페인語등 5개공식용어외에 아랍語를 추가, 오는1월1일부터 시행키로 21일 결정했다.

유엔安保理는 이미 總會와 특별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랍語를 유엔 공식용어및 실무용어로채택할것을 표결없이 결정했다.

프랑스와·질리아니 유엔대변인은 아랍語의 추가로인한 비용은 번역기구입에 40만달러가 드는외에 매년 1백50만달러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外國軍 침공등 有事時에 日、3개海峽 봉쇄

谷川방위청장관 밝혀 "潛水艦·항공기등 동원"

【東京聯=聯】일본은 불가피한 사태발생시 自國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外國船舶등에 대해 쓰시마(對馬)·소야(宗谷)·쓰가루(津輕)등 3해협의 통과를 봉쇄할지 모른다고 다니가와·가즈오(谷川和穗)방위청장관이 21일 밝혔다.

다니가와방위청장관은 이날 參議院예산위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은 유사시 잠수함및 항공기동원과 機雷설치등의 방법을 통해 3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니가와장관은 그러나 일본自衛隊는 외국군이 일본을 공격하지 않는한 3해협에 파견되지는 않을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수상도 이위원회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3해협의 봉쇄는 일본의 독자적 방위구역범위내에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白堊館서 聲明 발표하는 후세인 訪美중인 후세인 요르단王이 21일 레이건美대통령과 회담한뒤 백악관밖에서 성명을발표하고있다。【워싱턴21日AP電=聯】

엘살바도르에 쿠데타준비說

【산살바도르UPI=聯】엘살바도르우익지도자 로베르토·다우비손소령이 알바로·마가나 대통령에대한 쿠데타를 준비중이라는 풍문이 20일밤(현지시간)엘살바도르정가에 파다하게 나돌았다.

이같은 풍문은 다우비손소령이 마가나대통령의 내각총사퇴요구를 거부한뒤 나돌기 시작했다.

다우비손소령은 대통령이 내각총사퇴를 요구한 목적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아레나당을 내각에서 제외함으로써 基民黨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있다고 말했다.

아레나黨과 基民黨간의 긴장은 아레나黨이 基民黨의 쿠데타준비설을 비난하면서 시작됐으며 基民黨은 이에맞서 아레나黨이 농지개혁을 방해하고 基民黨員살해및 납치행위에 관련돼있다고 비난했다.

마가나대통령은 앞서 그의 내각총사퇴요구가 행정부재편성을 위한 예비조치라고 해명한바있었다.

埃에 전투기提供

中共、F7 60~80臺규모

【카이로AP=聯】중공은 최소한 60대의 F7(미그21機의 中共式變型)전투기를 이집트에 공급할것이라고 압델·하림·아부·가잘라 이집트국방상이 21일 밝혔다.

가잘라국방상은 이날 이집트를 방문중인 趙紫陽중공수상과 호스니·무바라크이집트대통령간의 회담이 끝난후 기자들에게 중공이 60~80대의 F7전투기를 이집트에 공급키로했으며 이전투기들은 모두 중공기술자들의 감독하에 이집트에서 조립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중공의 F7전투기공급문제가 趙紫陽수상의 이집트방문이전에 이미 합의된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말·하산·알리 이집트外相은 이날 무바라크대통령이 내년4월초 중공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波、政治犯석방 성탄절 이전에

【바르샤바UPI=聯】폴란드정부는 21일 정치 기소된 「수」명의 중범자를 제외한 모든 정치범들을 성탄절이전까지 석방할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대변인 예르지·우르반은 이같이 말하고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탈세혐의로 조사받고있는것은 사실이나 정식기소되지는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석방될 정치범의 규모및 명단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현재 폴란드는 대부분이 자유노조간부들인 약2백명의 정치범을 2년전부터 억류하고 있다.

1월에 퍼싱II 3次시험발사

美國防省 "성공땐 생산비승인기대"

【워싱턴=聯合】미국방성은 말썽많은 퍼싱II核미사일의 3次시험발사를 오는 1월초 실시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헨리·캐토국방성대변인은 퍼싱II미사일이 일단 성공적으로 발사될 경우 議會가 지난달 삭감한 5억8천60만달러규모의 생산비를 다시 전액 승인할것으로 국방성이 믿고있다고 말했다.

퍼싱II미사일은 지난 7월첫시험발사에 실패했으며 2차시험발사때도 제대로 기능이 발휘되지 못했다.

蘇민족감정문제尙存

안드로포프 聯邦60周演說서 단합호소

【모스크바UPI=聯】유리·안드로포프소련공산당서기장은 21일 소연방창설60주년기념연설을 통해 소련의 소수민족문제와 관련, 아직도 소련내에는 민족감정문제가 야기되고있다고 지적하면서 諸民族간의 단합을 호소했다.

그는 소련은 그동안 인민들의 평등과 형제애를 구현시켜왔다면서 그러나 2억6천5백만 소련인민들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경제적인 민족감정과 제정러시아의 유산을 일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련계독일인및 루트족등 아직도 그들의 지방정부를 갖지 못하고 있는 이들 4개소수민족문제에 언급, 『이들 시민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소련시민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주를 바라고 있는 많은 소련거주 독일인문제와 소련계유태인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국내의 농업개발문제와 관련, 수개월전 브레즈네프정권에 채택된 식량계획에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보다 신중하고 지속적인 농업발전계획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人事異動

內務部 ▲李必雨(서울경무과기획계장) ▲李 煥(경북외사과장) ▲金大圓(서울경비과경호계장) ▲盧尙基(본부보안과소년계) ▲金英植(〃외사과범죄수사대) ▲黃文圭(부산경무과경무계장) ▲崔基昊(경기〃인사〃) ▲金容寬(충남〃인사〃) ▲姜信鍾(서울서대문서경비과장) ▲徐廷玉(〃동대문서경보〃) ▲崔熙洵(강원경무과경무계장) ▲權重聲(충북진천서장) ▲鄭淳嗣(경북영천서장) ▲洪淳茂(서울동대문서대공〃) ▲朴庭植(〃경무과경리계장) ▲金載穀(〃교통과 안전〃) ▲尹在得(본부정보2과1분실) ▲吳一泰(〃정보3과) ▲金元珠(전남화순서장 직대) ▲劉成國(본부작전과3계) ▲全鎭棠(서울노량진서 수사과장) ▲李賢淳(〃정보과2계장) ▲權常輝(대구동부서경무과장) ▲鄭海燮(서울종로서〃) ▲薛柄善(본부치안감사담당관실) ▲李鍾元(서울서부서경무과장) ▲金載元(〃 경무과) ▲權彝炯(전북순창서장직대) ▲羅斗鉉(전남진도서장〃) ▲權圭一(서울종암서 수사과장) ▲朴吉煥(본부통신과유선담당·직대) ▲申完秀(해경여수지구대) (21日字)

國民銀行 ▲金山土성동支店 괴정동출장소易預金取扱所長 諸章根 (23日字)

保社部 ▲국립公州결핵병원장 柳元夏(보건기감승진) ▲부이사관 李玉順(의원면직) (21日字)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社說

原油購買방식 再考를

—世界기름事情과 빈會議서 살필點

복잡미묘해지고 있는 국제石油정세에 슬기롭게 對處하여 가장 有利한 原油도입이 가능하도록 국가利益추구를 앞세워나가야 하겠다.

基準油價(배럴當34弗)의 引下및 產油量配當문제를 둘러싸고 세계의耳目을 집중시켰던 제66차 OPEC(석유수출국기구)각료회의는 참가각국의 利害가 착잡하게 얽힌가운데 論議만 되풀이하다가 별 성과없이 2일간의 「빈」회합을 끝마쳤다.

中東產油國을 중심으로 13개국 石油相이 모였던 이번회의의 폐막성명을보면 현행기준가격을 고수한다는것과 전체회원국 산유上限量을 현행1천7백50만배럴에서 1천8백50만배럴로 늘리기로 하였다는 표면적인 것말고는 별다른 합의를 못보고있음이 분명해졌다.

우리가 이번회의를 별성과없이 끝난것으로본 까닭은 ①기준가격을 내리지 않기로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現物市場가격은 사실상 배럴當30弗을밑돌고 있는만큼 기준가격의 拘束力은 거의 없는셈이고 ②전체產油上限量도 1천8백50만배럴로 늘린다고하나 이미 비공식적 실지생산량은 1천9백50만배럴이상에 달하는것으로 보고있으므로 이역시 산유국들에의해 지켜질는지가 의문이라고 아니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로서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優先으로 책정돼있는 나라별 할당량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한다는 이란側의 요구와 하루 7백50만배럴수준의 유지를 고집하는 사우디측의주장이 맞서있고 그밖의 나라들도 外貨收入증대를 위해서 할당增量을 희망하고 있어 이래저래 지켜지기는 어려워보이는것이다.

두차례의 石油쇼크, 특히 79년 제2차 石油價引上(34弗기준)으로 전세계경제를 장기침체의 늪으로 빠뜨리게한 OPEC의 카르텔威勢(가격및物量공동행위)가 조금씩이나마 약체화되고 있는것은 소비국인 우리로서 해롭지 않은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실질적인 利益은 적다고 하더라도 產油할당량이 지켜지지않아 現物市場에 보다 많은 物量이 나돌경우 스포트價가 30弗이하로 떨어지게되는 한편, 결국은 기준가격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설령 OPEC의 결속이 지속된다하여도 작금년에 이르러 멕시코를 비롯한 非OPEC산유국의 생산량과 수출량이 漸增추세에 있는 만큼 지난날과 같은 OPEC의 지나친 恣意的行爲는 재연되기 어려울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제석유동향에서 잠시도 눈을 뗄수 없는 계제를 맞고있다. 국제原油가격이 평균해서 1弗만 내려도 우리로서는 약1億8千萬弗이상의 外貨절약이 가능하다. 국내기름값과의 연관점도 따른다.

이와관련, 지난번 정부에서는 만약 이번 產油國회의에서 그값이 32弗선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국내油價는 引下조정될것이라고 내다보는 반면, 34弗선이 유지될경우엔 그간의 換率변동을 감안해서 새해 油價引上이 뒤따라야 할것이라고 추리한 바있었다.

이로미루어 볼때 이번 OPEC회의가 별성과없이 끝나긴했어도 34弗 기준가가 전면적으로 무너진것은아니므로 현실적으로 外貨부담이 줄어들거나 국내油價를 引下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못하게될지도 모르겠다. 공급물량이 많아지고 現物市場값은 내리는데 오히려 購買條件의 不利함이 겹쳐 油價引上의 口實이 될수도 있음은 기막힌노릇이 아닐수없다.

지난날 가장 不利할때 가장 不利한 條件아래 產油國과더불어 長期購買계약을 체결함으로써 不利益을 自招하고 있는 터이다.

이제 이같은 「拘束」에서 속히 벗어나야 할것은 긴설명이 필요없다. 그를 위한 국가적次元에서의 판단과 결단을 내려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국내油價재조정은 그뒤로 미루는것이 좋을듯 싶다. 지금처럼 국제原油시장이 購買者本位市場으로 전환되고 있는 마당에서 아직껏 供給本位市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것은 깊이 성찰돼야할 문제상황일것 같다.

解氷없는 美蘇 核대결

—안드로포프의 減縮제의와 그底意

21일 안드로포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이 蘇聯邦창설60주년기념식에서 한 연설은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한다. 18년간의 브레즈네프통치에 이어 우선 權座에 오른 안드로포프가 黨서기장에 취임한지 한달 남짓해서 중요연설을 하고, 東西간의 核군축문제를 그 연설속에 담고 있기때문이다.

美蘇군축문제는 두초대국간의 利害관계에 국한된것만은 아니다. 그 波長은 美蘇의 영역을 넘어 세계로 번져가는것이다.

물론 美蘇간에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 폴란드사태및 그밖에 제3세계로의 세력팽창같은 허다한 문제가 가로놓여 있으나, 核군축문제는 그양국관계를 좌우하는 으뜸을 이룬다. 核군축협상에서 이견이 팽팽히 맞설때, 美蘇간의 전반적 和解란 바랄수없고 긴장이 고조될 따름이다.

또 어느 한쪽이 지역적 팽창주의로 흘러 양국이 예각적으로 대립하면 그것은 곧 核군축협상 테이블에 영향을 주게된다.

우리는 戰略核 減縮회담I(SALT)이 비준된후 이른바 70년대 美蘇간의 데탕트가 시작되었고 소련軍이 아프가니스탄에 侵攻함으로써 가조인된 SALTII가 비준되지않은채 유산되었음을 잘 알고있다. SALTII의 유산은 80년대 美蘇간의 대결과 긴장고조로 연결되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서 세계는 브레즈네프死後, 美蘇가 긴장과 과도한 군비경쟁으로 치닫는 대결에서 벗어나 和解로 되돌아오게되기를 기대하고 모스크바의 동태를 주시해 왔었다. 하나 안드로포프의 21일연설은 그런기대와는 거리가 먼것이었다.

그의 연설중 가장 큰 관심을 끈 군축 사항은 유럽戰域核미사일 감축부분이었다.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에 배치해있는 미사일수와 동등수준으로 소련이 이미 배치한 중거리 미사일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배치한 중거리미사일은 162기이다. 그러므로 그정도로 소련이 이미 배치한 최신형 SS20을 둔다는것은 말할것도없이 소련이 對유럽 核優位戰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소련은 미국이 유럽의 戰域核미사일불균형을 바로잡기위해 83년말까지 신형 퍼싱II미사일과 巡航미사일 약 5백70基를 그곳에 배비하려는 계획을 이 제안을 통해 무산시키려 획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레이건미대통령은 소련이 西歐를겨냥한 SS20중거리核미사일을 해체하면, 퍼싱II의 83년유럽배비계획을 백지로 돌릴수있다고 작년말 제의했었다. 이른바 「제로 옵션」(零의선택)으로 불려진 제안으로 서방측대부분으로부터 유럽核군축을향한 진지한 제안이라고 환영받은바있다.

안드로포프의 제의가 미국내 MX미사일개발이나 퍼싱II미사일의 유럽배치를 둘러싸고 미국및 유럽에서 일고있는 일부 좌경평화주의의 반대여론을 부추기려는데 그동기가 있는것도 뻔하다.

그는 장거리미사일에 언급 『우리는 전략무기를 25%이상 감축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소련이 감축할 경우 양국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미국도 그만큼 감축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소련이 미국보다 더 核군축을 원한다는것을 과장선전하기위한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 해도 안드로포프의 연설이 일단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별다른 놀라움은 없을 것이라 하겠다. 나토의 한대변인은 이를 오고있다.

故브레즈네프의 연설보다 안드로포프의 어조는 한결부드러운인상을 주는것같다. 브레즈네프는 미국이 퍼싱II를 유럽에 배치하면 소련도 그에 상응하는 방책을 강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 상응하는 방책이 무엇인지 밝혀지지않았으나, 美본토에 가까운 中南美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하는것으로 해석되었다.

그에비해 안드로포프는 『우리는 미국의도전에 대해 비슷한 무기체제를 배치함으로써 대응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불려지는 인물다운 세련된 표현이다.

하지만 西方세계는 그 어조에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유럽에서의 核우위와 對美核대결의 입장을 그는 누그러뜨리지 않고있다. 그만큼 해빙은 아직 먼것처럼 느껴진다.

年末 經濟

어려우리라던 연말 자금사정이 의외로 풍성하다。백화점의 휴일매상이 7억원대를넘고 지난해보다 60~70%이상의 매출액 신장을 가져올 것이라한다。시중자금사정을 나타내는 부도율은 0·03(서울지역)으로사상가장 낮은수준을 보이고있다。

私債金利도 내리고 채권수익률도떨어지고있다。기업도 예년처럼 자금조달에 큰어려움이 없는듯 하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때문이다。6·28金利인하와 7·3實名거래제발표 영향으로 돈은 은행을 떠났고 거액어음사기사건수습을 위해자금은 폭포수처럼 쏟아져 과잉유동성 연말 자금사정을 풍성하게 하고있다。

부동산 투기쪽으로 몰렸던 돈이 다시 私債시장과 短資시장으로 쏠리고있다。활기를되찾은 서울 明洞일대 私債시장의 1일 거래량은 2백억정도로 私債파동이전 거래량의 90%정도까지 회복됐다。이에따라 私債金利도 月0·0~%까지 떨어졌다。우량기업의 어음은 없어서 못살정도다。

그런데 풍요속의 빈곤이라고할까、은행의 자금사정은 어렵다。

韓銀이 연말통화증가율을 가능하면 30%이하로 낮추기위해 고삐를 단단히 쥐고있기때문이다。支準부족에는 가차없는 과태료부과라는 食刀를 빼들고 방만한 자금운용을 못하도록 경계하고있다。

예금이 들어온 범위내에서만 대출을 하자는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다。시중에 돈은 많이 돌아도 은행으로는 들어오질 않는다。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국민의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한은이 책정한 12월중 은행을통한 민간여신공급규모는 6천억원 정도여서 지난해 12월의 9천억원보다 오히려 3천억원이 적다。

그래서 대출신청은 밀려들고있으나 절반도 공급을 못하는 실정이다。넉넉하다는 자금사정속에서 은행의 대출수요는 원활하지못한 기현상을 보이고있다。

기업은 그동안 고금리의 단기자금을 확보했으면서도 저금리에 따른 가수요를 늘리고있는 현상이 원인이다。다시말해 싼금리의 은행돈은 多多益善이므로 시중자금사정과는 아랑곳없이 은행자금사정은 더욱 어려워진것이다。

실명거래제와 저금리가 가져온 경제의 난기류라고 할만하다。

통화당국은 돈이 많이풀렸어도 화폐의 유통속도가 낮아 물가를 자극할 염려가 없다고 강조하고있다。그러나 화폐의 유통속도는 경기가 활발해지면 가속도가 붙을것이므로 내년물가에대한 걱정이 생길수밖에 없다。

적정한 통화공급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경기활성화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는 내년에 더큰 시련이 예상된다。【申相頤기자】

政局往來

"전국구의원은 지역대표아닌 職能대표라는 점을 명심해야"

◆"24년전의 한국과 너무나차이"

케난·에브렌터키대통령은 22일하오 新羅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떠났을때인 59년도의 한국과 오늘의 한국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고 24년전 유엔軍의 일원으로 이곳에서 1년간 근무할 당시를 회고하면서 『訪韓전에 한국의 발전상에 관하여 많이 얻고 듣기도 했지만 실제로 목격하고 보니 읽고들은 것 이상으로 발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피력.

그는 이어 『한국국민들은 발전속에서 직접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어린 자식이 커가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한국의발전상을 외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잘 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면서 『우방국 대통령으로서 한국의 발전에 대해 크게 만족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브렌대통령은 이날 상오 내린 눈때문에 지방산업시찰계획을 취소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약1시간동안 문화재를 관람했는데 안내를 맡은 崔淳雨박물관장이 미륵상 앞에서 『6억8천년후에 이 세상에 나타날 부처님』이라고 설명하자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조크하기도.

◆丁의장…陸·空軍부대찾아慰問

丁來赫국회의장은 22일 눈발이 휘날리는 空軍○○전투비행단과 西部전선의 陸軍전진부대를 차례로 방문, 장병들을 격려.

惡天候로 헬機대신 陸路로 위문활동에 나선 丁의장은 『여러분이 쉴때 쉬지못하고 잘때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고생하는 덕분에 우리 정치인이나 학생·사업가들은 후방에서 안심하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치하하고 『국회의원전원의 마음과 정성을 대신 전한다』며 금일봉을 전달.

丁의장은 또 안내차 일부러 이부대까지 나온 李基百육군참모차장과 환담, 『아무리 훌륭한 거점을 확보하더라도 決死의 각오가 있으면 勝戰하게마련』이라며 軍지휘관시절의 경험담을 나누고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陸士교장근무당시의 생도가 육군대령으로 근무하는것을 보니 마음이 기쁘다』고 말하기도.

◆국민심판받은 의원이 지역을대표

民正黨의 權翊鉉사무총장은 22일 일부지역에서 연말을 맞아 당소속 지역구의원과 전국구의원간의 善心공세 경쟁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명백한 사실은 11代국회임기중 국민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받아 당선된 의원이 그지역을 대표하며 그대표권은 아무도 침범할수없는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전국구의원도 지역구출신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중앙당을 통해서 해야한다』면서 『전국구의원들은 職能대표라는 관점에서 활동을 해야한것』이라고 有權해석.

한편 民正黨은 개별적으로 지역구에 年賀狀을 보내지 않기로 한대신 기관지인 「民正黨報」와 당원교육용책자 「平生同志」를 市道版으로 만들어 출신지역 의원의 사진과 인사말을 넣어 배부키로했다.

◆民韓黨, 非黨權派격려사통해舌戰

民韓黨은 지구당 개편대회가 본격화되면서 점차 전당대회 기운도 감돌기 시작, 黨權派와 非黨權派는 모두 致辭와 격려사를 통해 전당대회를 겨냥한 발언들을 하고있어 注目。

이같은 舌戰은 21일의 서울城北지구당대회부터 두드러져 柳총재측이 현재의 黨지도부와 운영방향을 적극옹호하고나선데 반해 非黨權派측은 지도노선을 비판하여 對照를 보였다.

이날 辛전총장의 격려사가 끝나자 趙鍾益의원이 『柳총재를 중심으로 단결해야한다』고 격려사를통해 밝히자 韓光玉의원은 『제1야당으로 自生力을 키워야한다』고 應酬.

또한 같은날 淸州지구당대회에서 柳漢烈사무총장이 『참지 못하고 죽는것은 간단하나 참으면서 갈길을 꿋꿋이 가기는 어렵다』는 선친인 故柳珍山씨의 말을 인용, 柳총재의 지도노선의 정당성을 강조한데반해 이에앞서 20일의 高陽·坡州지구당대회에서 高在淸 전원내총무는 『지금은 정치가 미미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해놓은 일은 하나도 없다』고 분발을 촉구하기도.

◆民權…黨憲무시한迎入으로陣痛

民權黨은 지난 6일 黃明秀의원(無)의 부총재迎入을 계기로 일대 黨勢확장의 기치를 내건 民權黨개편을 단행했지만 舊당직자들의 거센 반발로 중앙선관위에 아직도 등록을 못하는등 不協和音이 계속.

이같은 陣痛은 金義澤총재의 장기臥病으로 출범한 金正斗직무代行체제가 黃의원을 迎入하고 주요당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黨憲에의한 政務회의의 결의 절차를 생략한데서 비롯됐는데 舊당직자들은 『曺基洪전사무총장등 舊당직자들은 사퇴한 사실이 없기때문에 黨憲상 3인으로된 부총재가 현재 4명이된 상태』라고 黨憲위배를 주장하면서 不服.

한편 黃明秀의원은 22일 『金대행이 아직 기틀을 못잡았다』고 말하면서 『시끄러운 黨을 잘 조화시켜 멋진 미술작품을만들어야하는데…。곧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신장개업

개업일자 83년1월2일

마쵸레스토랑

새해에도
우리교민들께 많은 복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제가 카나다에서는 가장 오래된 한국 일류 요리사를 모시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1차 왕림하셔서 저희음식을 맛 보십시오.
자신있게 말씀드리오니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해 창 올림

□주류일체 취급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넓은 파킹장 교통 편리
□영업시간 : 오후4시~새벽1시
□주 소 : 4035 Gordon Baker Rd. (스카브로) ☎ : 498-1300

레이건 제의「零의選擇」정면拒否
蘇의「核優位」으름장

건국60周… 안드로포프 첫 演說

核관련 美·西歐를 離間
「波·越문제」注力등 골자

소련건국 60주년을 기념해 21일 열린 연방최고회의,黨중앙위원회및 15개공화국 최고회의 합동회의에서의 유리·안드로포프의 연설은 그가 브레즈네프 뒤를이어 소련의 최고실력자가 된뒤 처음갖는 공개연설이란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

4천여명의 대의원과 바르샤바조약국 수뇌진원을 포함한 1백20여명의 해외경축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행해진 안드로포프의 이날연설은 소련전국에 TV로 직접 중계됐다.

안드로포프는 60분 연설중 50여분 이상을 核무기문제를 포함한 對外정책에 할애했다.

3∼7시간씩 미사여구를 늘어놓곤 했던 브레즈네프연설에 비해 간결하고 평이해서 소련국민이 알아듣기 쉬웠다는게 현지특파원들의 評이다.

안드로포프가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 核문제의 골자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미국이 퍼싱Ⅱ미사일(MX미사일)과 크루스미사일(순항미사일)등을 실전배치할경우 소련도 이에맞서 새로운 장거리미사일을개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리고나선 레이건이 제의한 제로·옵션(零의선택)을 정식거부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현재보유하고있는 미사일 숫자만큼 SS20미사일수를 줄이겠다고 제의했다.

SS20등 유럽을 겨냥한 소련미사일의 완전철수를 요구한 레이건의 제로·옵션을 거부하고 그수를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하고있는 미사일수만큼만 줄이겠다는 것으로 소련이 이미 확보한 유럽核우세의 旣得權을 포기할수없다는 내용이었다.

또 안드로포프는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전략무기 감축협상(START)을 의식, 美·蘇양국이 보유하고있는 전략미사일수를 25%이상 감축할것을 제의했다.

안드로포프가 처녀연설의 대부분을 核문제에 할애한이면에는 5백72基의 크루즈및 퍼싱Ⅱ미사일의 유럽배치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西歐와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서방세계에서 활발히 전개되고있는 非核평화운동을 부추겨보겠다는의도가 숨어있는것으로 보인다.

안드로포프의 제의는 소련이 최신형 이동미사일인 SS20을 우랄산맥서쪽에 계속배치시키면서 미국의 최신형미사일인 크루즈와 퍼싱Ⅱ를 유럽에 발붙이지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소련이 이미 유럽에서 확보한것으로 알려진 核우위를 계속 지켜나가면서 이에대한 미국과 西歐국가의 대응책을 미국과 西歐를 이간시킴으로써 분쇄하겠다는 것이다.

안드로포프의 核감축제의에 대한 미국과 유럽국가의 반응이 부정적이고 냉담한것은 당연한다.

미국무성은 소련이 SS20의 유럽배치를 고집하는것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주장하고 모든 核미사일을 유럽에서 완전히 철수하자는 제로·옵션입장을 재확인 했다.

특히 미국무성은 소련이우랄산맥동쪽으로 감축이동할 SS20이 아시아쪽을 겨냥할 경우 이는 또다른 禍根을 아시아지역 안보에 초래할것이라고 우려했다.

영국·프랑스·서독등도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는 별도의 核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를 싸잡아서 군축대상에 포함시킴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들국가들은 소련의 SS20미사일이 이동식미사일이어서 우랄산맥동쪽으로 옮겨진다해도 유사시엔 언제나 유럽쪽으로 이동배치할수 있고 SS20과 영국및 프랑스가 보유하고있는 구식중거리 미사일과는 그성능이 비교가 안된다고 말하고있다.

결국 안드로포프가 제의한 核감축안은 세계의 관심을 다시한번 核무기감축에 집중시키고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전략핵무기 감축협상에 하나의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상징적 의미만을 갖게된 셈이다.

核문제말고도 이번 합동회의에서의 주요관심사는 안드로포프가 국가원수격인 최고회의간부회의의장에 선출되어 명실상부한 1人支配體制를 구축하느냐였다. 그렇지만 최고회의 간부회의의장선출은 이번 회의에서 없을것으로 알려졌다.

최고회의간부회의의장이내년봄께 개막예정인 다음회기때까지 공석이 될것이라는 얘기이다.

여기에는 크게 상반되는두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안드로포프가 확실한 권력기반을 아직도 굳히지 못해 최고회의 간부회의의장이 못되고 있다는 견해이고 또다른 해석은 최고회의간부회의의장 자리가 實權이 없는 儀典상 자리이기 때문에 안드로포프가 일부러겸직을 꺼리고 있다는 얘기이다.

브레즈네프가 죽은지 사흘만에 전격적으로 權力을 승계한 안드로포프가 6주가채 못되어 1人체제를 구축하려들경우 많은 반발을 받을것이라는점을 고려에 넣고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드로포프는 6주간의 짧은 執權기간에 확실히 權力기반을 다지고 있는것으로알려지고 있다.

그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침체에빠진 소련경제,특히 농업부문을 활성화시키는것과 만연한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당기구를 쇄신시키는일이다.

안드로포프는 이를 위해 그동안 3∼4차례의 중간권력층 개편을 단행했다.

黨선전부장과 농업담당각료를 경질한데 이어 요직인 KGB의장과 內相을 바꿨다.

자신의 심복인 KGB의장 페도르추크를 內相에승진기용하고 그후임에 자신이 KGB의장으로 있을때 부의장이었던 체브리코프를 앉혔다.

안드로포프는 자신의 권력기반인 KGB와 경찰력을 장악하고있는 내무성을통해 부정부패추방 캠페인을 벌이고 反체제인사에대한 탄압을 강화할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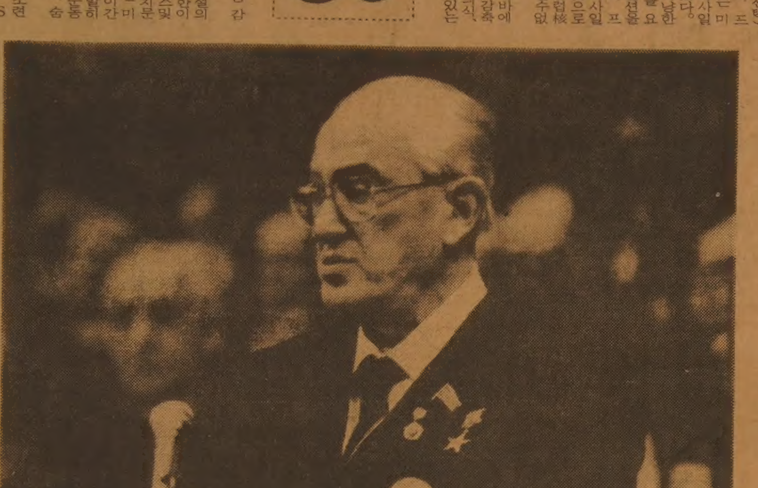
그는 이를위해 KGB에있는 자신들의 심복을 속속 등용하고 있는 것이다.

안드로포프가 부정부패추방에 착수한것은 경제난등으로 불만에찬 소련국민들에게 환심을 사기위한 조처로 보인다.

브레즈네프는 장기집권을 해오면서 상당한 부분에 달하는 부정부패를 묵인해온것으로 밝혀졌다.

안드로포프는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경축사절로 참석한 공산국가수뇌들과 활발한 접촉을 벌여 현안문제타결에 힘쓸것으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의 카르말,폴란드의 야루젤스키,베트남의 레·두안등과도 만나 브레즈네프가 남긴 유산인 아프가니스탄문제,폴란드문제,베트남문제해결에 우선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李炳圭기자】



◇안드로포프의 첫연설 蘇공산당서기장 유리·안드로포프가 21일 크렘린宮에서 蘇聯邦창설60주년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모스크바21日AP=聯合】

突風의 日나까소네內閣
「國會해산論」들먹

인사이드

「록히드裁判」등 難題만쌓여 "국민審判으로 國政판가름"

일본정국이「국회해산」쪽으로 서서히 굴러가고 있다.

나까소네내각이 발족한지 채 한달도 못되어 대두되고 있는 국회해산론의 목적은 내년에 내려질 다나까前수상의 록히드공판이 유죄로 판결될것이 확실하고 재정재건과 행정개혁등 산적한 문제를 총선이라는 정치적 방법으로 일괄타결하려는데 있다.

나까소네수상은 21일 自民黨선거대책본부사무소개소식에서『내년은 戰後37년을 총결산하는 해이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 국정의 향방을 가름할 해이기도하다. 야당이 내년을 정치決戰의 해로 세우고있으므로 우리도 선거체제를 갖추어 앞서 나가자』고 국회해산의 의욕을보였다.

자민당 최대파벌의 총수인 다나까도 이날 自派소속의원 망년회에서『내년이 지방선거의 해일뿐더러 參議院선거가 겹쳐있고 衆議院의 임기도 1년정도밖에 남지않아 내년은 중요한 선거의 해가 될것』이라고 말해, 衆·參의원동시선거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니까이도(二階堂進)간사장은 국회해산론에 뒷받침하여 내년을「여·야정치결전의 해」라고 규정함으로써국회해산론에박차를 가했다.

특히 나까소네수상이 국민의 심판으로 국정을 가름할 뜻을 한것은 다나까파가 내세우고 있는 내년 국회해산과 동시에 衆·參議院선거를 실시하자는 주장에 동조한것으로 해석되어 큰 파문을 던졌다.

야당도 衆議院임기가 1년밖에 남지않아 언제 국회를 해산하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분위기이므로 자민당주류가 내세우고있는 국회해산론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까소네수상은 국회해산론에 대해『야당이 83년을 정치결전의 해로 정하고 있기때문에 자민당도 이에맞서 언제 선거를 치르더라도 승리할수있는 체제를 갖추자는 뜻에서 발언한 것이므로 내년에 반드시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으나 다나까前수상의 록히드재판이 1월중순에 논고될것에 대비하여 국회해산을 은밀히 계획하고 있다는것이 중론이다.

해산의 시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1월말과 3월, 그리고 5월설등 3가지로 나눠지고 있다. 첫번째는 조기해산으로 내년1월말 정기국회가 소집된뒤 나까소네수상의 시정연설과 각당대표의 대정부질문만을 듣고 해산하는 경우가 상정되고있다.

이것은 83년 예산안이 정기일내에 성립되지 않게되어 정치적 공백이 생길뿐아니라 명분도없어 자민당이 총선에서 大敗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더우기 다나까前수상의 1월공판에서 5년의 實刑이 구형될것이 확실시되므로 이 시기를 피하는 것이 좋다는의견이 지배적이다.

두번째는 3월말에 해산하여 4월24일 각지방선거와 총선거를 동시에실시하자는 안이다. 2월말께 중의원에서 8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참의원에 넘기면 30일이 경과된뒤 자연히 예산안이 성립되기때문에 이때를 잡아 국회를 해산하자는 안이다. 현재로는 이안이 가장 가능성 있는것으로 보인다.

세째는 5월말 국회해산, 6월 衆·參의원 동시선거를 실시하는방안이다. 정기국회가 5월26일까지 끝나기때문이다. 예산안을 다처리한뒤 5월20일께국회를 해산하여 중·참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조직과 자금력이강한 여당이 대승할것이라는 판단에서 다나까파가 이를 강력히주장하고있다.

그러나 나까소네수상은 6월중·참의원 동시선거에 소극적이라고 전해지고있다. 그이유는 행혁과 재정재건, 그리고 록히드재판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동시선거를 실시할 경우 자민당 의석수가 줄어들 공산이 크며,그럴경우 자연히 나까소네수상에대한 인책문제가 거론될수 있기때문이다.

나까소네수상은 선거에 귀신이며 컴퓨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다나까파의 고또오다(後藤田正晴)관방장관을 측근으로 앉혀놓고 전가의 보도인 국회해산을 언제할것인가를 가늠하고 있다. 【東京=宋孝彬특파원】

◇『헛소리만 떠들지말고 덤벼들어』【讀賣新聞】

낸시女史 피부癌
★입술조직검사…증세輕微

레이건美대통령부인 낸시여사는 일종의 경미한 피부암에 걸린것으로 판명됐다고 백악관이 21일 발표했다.

낸시여사의 공보비서 세일러·테이트여사는 20일의 수술로 낸시여사의 윗입술부위에서 떼어낸 細胞조직을 검사해본결과 그것이 가장흔한 일종의 피부암세포이며 가장 치료하기도 쉬운 종류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유형의 피부암은일반적으로 장기간에걸쳐 태양광선에 과다노출됐을경우 발생하는것으로서 단지 발생부위의 피부제거수술로 치유될수있지만 재발위험성도있다. 【워싱턴=AP聯】

海外토픽

레이건飛機사고…九死一生
간디·베긴首相 權座밀려나
美占星家들 83년세계운세 예언

미국의 저명한 점성가들은 癸亥年인 1983년에는 레이건美대통령이 항공기추락사고를 만나 금년에 이어 또 다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것이며 인디라·간디印度수상과 메나헴·베긴이스라엘수상이 실각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점성가들은 또「세기의 미인」엘리자베드·테일러가 금년에 그레이스왕비와 死別한 모나코의 레이니에公과 사랑의 행각을 벌일것이라고점쳤다.

점성가들은 83년을「재앙의 해」로는 보지않고 있으며 비교적 낙관적인 운세를 예언하고 있다.

美라스베이가스의 MGM호텔 화재참사를 정확히 예언한바있는 캐시·미니어 여사는 소련 공산당서기장 유리·안드로포프가 내년에 백악관의 초청으로 미국을 공식방문, 레이건 대통령과 바베큐를 들면서 우정을 나누게될것이며 이로인해 美·蘇가核전쟁의 공포를 효과적으로 극복할수 있게 될것이라고 예언했다.

주디·힐리 여사는 베긴수상이 권좌에서 물러나게 될것이며 美·이스라엘 관계도 개선될 것이라고 점쳤다.

힐리 여사는또 간디 수상이 내년에 각료들의「무혈궁정혁명」으로 실각, 비극적인 권력의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뉴욕=聯】

◇007본드役 다시맡은 코너리 英國비밀첩보요원 007 제임스·본드역을 다시맡은 숀·코너리(左)가 007시리즈최신작「네버·세이·네버·어겐」(Never Say Never Again)촬영도중 금발의 본드·걸 킴·베이징거와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있다. 【런던21日AP=聯】

메아리

디에스 논

연말이되니 새달력들이 많이 나돈다. 유럽쪽에서는 연말때 가게에 가봐도 화려한 달력들은 별로 눈에띄지않고 회사들이 다투어 대형달력을 만들어 내는 일도 흔치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돌돌말린 달력몇장은 쥐어야 한해가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다.

인쇄된 달력이 어디서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모르는 모양이다. 달력이란 해를넘기면 버리게 마련이어서 古曆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고 15세기에 독일에서 나온것이 발견되어있다. 처음에는 달력이 多年用의 萬歲曆같은 것이었지만 차차 1年用의 암마나크가 되었다. 15, 16세기에는 占星術이 융성해서 점성이들은 프라티카라 불리는 예언을 수년치 한데모아 출판해오다가 달력이 나오자 프라티카를 그속에 합쳐버렸고 그래서 달력은 豫言書의 구실도했다. 1560년 카를9세는 정치적 예언은 달력에 싣지못하도록 금지한적도 있다.

지금 우리가 쓰고있는 달력의 曆法은 말할것도 없이 그레고리우스曆이다. 로마의 시저가 만든 율리우스曆은 1천년이상동안 유럽각국에서 쓰여왔지만 율리우스曆의 1년은 길이가 실제보다 11分 길었기 때문에 그 誤差를 고치기위해 1582년 교황 그레고리우스13세가 새曆法을 만들었다.

유럽 각국은 대부분 이新曆을 채용했으나 러시아는 혁명후인 1918년에, 그리스는 1923년에야 따라왔다. 당시 이 新曆에 반발한 나라 가운데는 영국이 있었다. 엘리자베드1세치하의 영국에서는 新曆의 채용이 교황에 굴복하는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율리우스曆은 그후로도 1백70년동안 계속 사용되었다.

1751년 천문학의 발달로 율리우스曆의 모순이 확실해지고 외국과 日曆이 같지않음으로써 외교상의 문서나 협정에 많은 혼란이 생기자 체스터필드卿이 改曆案을 의회에 냈다. 이해의 春分은 당시 쓰고있던 율리우스달력상의 3월21일보다 11일앞에 일어나 있었다. 이 11일을 처분하기위해 이해 9월2일 다음날을 9월14일로하고 그후로는 그레고리우스曆을 쓰기로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그러나 改曆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지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은 컸다. 地主·小作人·商人들은 날짜가 바뀌면 地代·어음·부채상환등에 여러가지혼선이 생긴다. 聖職者는 크리스마스등 종교상의 祝祭日 날짜가 달라지는것은 不敬이라고 들고 일어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의회가 달력에서 훔쳐가버린 11일만큼 수명이 단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큰 문제가 있었다. 체스터필드卿이 거리에 나가면「우리들의 11일을 돌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이 뒤를쫓아다녔다. 이 빼앗긴 11일을 사람들은「디에스 논(DIES NON)」이라불렀다.

「디에스 논」은 라틴어로「없는날」이라는 뜻으로 상점의 휴업일, 법정의 休廷日을 뜻할때도 있지만 잃어버린날, 허송한날을 말한다.

생물학에는 헤켈의 법칙이란것이있다.「個體發生은 系統發生을 되풀이한다」는 법칙이다. 무슨뜻이냐하면, 예컨대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은 인류의進化史와 비슷하다는 말이다.

달력을 한장한장 넘기며 지나온 우리의 한해는 曆法의 歷史의 되풀이일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의 한해에「디에스 논」은 없었던가. 잃어버린 나날처럼 無用했던 날들이나 낭비한 세월은 없었던가.

한해를 정리한다는 것은 자기가 3백65일을 하루하루 다 살았는가를 계산하는 일이다. 허송한 날은 없었던 날이나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영국사람들이 생각했듯이 그만큼 생명이 단축된것이나 다름없다.

한해는 누구에게나 똑 같은 길이가아니다. 그리스 神話에서 제우스는 비너스가 사랑한 美少年 아도니스에게 1년을 세토막 내어 그 3분의1만 그의 시간으로 주었다. 아도니스는 그것으로도 남의 1년을 다 살수 있었다.

고대 그리스의 曆法에는「아이티오스 에니아우토스」라는「無限한 1年」의 단위가 있었다. 이것은 요즘 曆法의 8년에 해당하여 살인범이 속죄하는 기간이었지만 살인범으로서는 긴 고통의 나날의 1년만 할 리가 없었다.

한 개인뿐 아니라 한 나라도 지난 한해는 充滿한 한해였는지, 우리의 노력에 漏出은 없었는지, 空轉없는 바퀴를 굴려왔는지를 생각해 볼 때다.

金聖佑 <編輯委員>

ZENITH
최신형 제니스 비데오 출현
* 7 DAYS RECORDING
* 35채널 케이블 가능함.
기간 : 1월7일(금) 까지
스페샬가격 : $799.-

FINCHWEST MALL
3487 WESTON RD. WESTON.
WESTON & FINCH
아카데미 TV. STEREO
대표 : 전광재 ☎ 745-5555

外來 관광收入 5년째 제자리

유치施設·특산품개발등 不振
돈안쓰고 쓸곳도 없어

「관광투자」가 없는 탓인지 올해 「관광수입」이 신통치 않다. 정부는 외래관광객을 중요한 외화수입원으로 보고 유치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힘들이는 만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것도 아니고 관광객들의 씀씀이도 예상만큼 늘지않고있어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

22일 교통부집계에 따르면 지난5년동안 외래관광객이 계속 1백10만명선을 맴돌고 있고 이들의 달러소비량도 1인당 4백50달러를 밑돌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는 최근불경기때문에 관광객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탓도있지만 우리나라의경우 관광시설이 근본적으로 모자란데다 특산품개발부족등으로 관광객들이 돈을쓸수있는 유흥및 쇼핑시설이없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관광전문가들은 현재의 관광유치방법이나 관광시설로는 국제적인 경제여건과는 상관없이 한국의 관광산업 성장한계에 이른것이라고 지적, 개선해야할것이라고 입을모으고있다.

특히 이같은 관광불황은 여행사자유화방침에따라 여행사가 42개사나 늘었고 이들이 내년부터 모두 자유경쟁을 벌일경우 덤핑 유치현상이 한층 심화될 전망까지 낳는다.

교통부에의하면 외래관광객은 1백만명을 최초로 넘어선 78년의 1백7만, 79년의 1백12만, 80년의 97만, 81년의 1백9만등 최근5년간 줄곧 1백10만명선을 맴도는 부진한실적을 보였다.

금년에도 관광객유치목표를 1백25만명으로 잡았으나 지난19일현재 1백11만명을 넘어서 연말까지 가더라도겨우 1백14만명에 머물 전망으로 목표에는 11만명이 부족하다.

이와함께 외래관광객이 국내에서 뿌리고 가는 달러도 78년3백78달러, 79년3백90달러, 80년3백78달러, 81년 4백9달러였고 82년에는 4백26달러에 지나지 않을것으로 추정되고있다.

교통부는 올해 5억5천만달러로 잡았으나 10월까지실적이 4억1천만달러였다.

이같은 액수는 웬만한한국인 해외여행자의 한번쇼핑비용에도 못미치는 액수로 제값받기 관광객 유치와 함께 돈쓰는 시설이 절실함을 반증하고있다.

이같은 현실은 각국의 관광자원이 즐기고 쇼핑하는쪽으로 개발되고있는데반해 한국 관광은 여전히 보는 관광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일례로 관광공사가 普門단지나 中文단지를 개발하면서도 호텔등 숙박시설만하는 것으로 끝내는등 구경이끝난후 돈을 쓰며 놀기에 알맞는시설투자에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객들이무리많이유치해도 돈을 안써주면 의미가없다.

그대표적인 예가 지난4월 미드웨이호가 입항했을때 [illegible] 승무원6천여명이 모두30억원을 환전했으나 돈쓸곳이 없어 절반만겨우쓰고 나머지 15억원은 다시환전하는 소동을 벌였는데 釜山에는 이런경우가 많다는것.

외국관광객이 돈을 안쓰는 것은 쇼핑할 물건이 없는데도 문제가있다.

관광지나 관광에서 1~5달러에 값싸게 살수있는 토산품이나 특산품이 눈에 띄지 않을뿐더러 있다해도 질이 조잡해 관광객이 외면한다. 또 도자기등 고급품은너무고가여서 현재로선 대중적인 쇼핑대상이 못되고있다.

또 하나 달러수입을 못올리게하는것이 덤핑관광요금이다. 2박3일동안 묵는 일본관광객 1인당 관광요금이 최소 1백달러는 돼야하는데최근 60달러로 떨어지고 있다. 이 요금안에는 2일간 호텔숙박비, 교통비, 식대등이 다 포함된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안가는 자살행위로 싸구려관광의 이미지만 심는다. 【金舊宗기자】

銀行비서실장에 돈뜯으려다 잡혀
私製銃 자살기도 重態

22일하오2시45분께 서울 中區 明洞2街31 제일백화점 앞길에서 權鉉鍾씨(45·폭력전과2범·서울 城東區杏堂洞298의40)가 제일은행 비서실장 朴모씨(43)로부터 6천만원을 빼앗으려다 경찰에 검거되자 가지고 있던 사제총기로자신의 복부를쏘아 중태에빠졌다.

權씨는 20일상오8시께 서울江東區蠶室洞아파트에 사는 제일은행비서실장에게『사업자금이 필요하니 현금6천만원을 준비하여 22일하오2시30분정각에 明洞제일백화점앞 신문가판아주머니(50)에게 맡겨라』고 협박해와 이날 경찰이 종이돈을 갖고 현장에 나가 나타난 權씨를 덮치려는 순간 안주머니에 숨겨두었던 길이 26㎝, 지름3㎝의 원통형 사제총기를 꺼내 갑자기 자신의 배를 향해 쏘았다는 것.

범인 權씨는 朴씨집에 8차례 전화를 해『신문가판아주머니에게 돈을맡기면 내가 영수증을맡기고 찾아갈 것이다. 만일 이에 따르지않으면 가옥을 폭파하고 가족들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을 했었다.

경찰은 범인이 사용한 제총기는 원통형으로 레밍톤 피터스 산탄 엽총알을 사용한것인데 격발소리와 위력이 사냥총과 거의 맞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범인의 집에서 4·5구경 유니버설 권총모양의 사제총도 발견했다.

범인 權은 사건후 중태에 빠져 明洞 성모병원에 입원 치료중인데 생명이 위독해 범행동기를 밝히지 못하고있다.

경찰은 사제권총과 산탄엽총알 24개를 압수했다.

"漢藥業士制 폐지를"
光州약사회 완전醫藥분업등건의

【光州】光州市약사회는 22일 정기총회를열고 완전의약분업의 실현과 한약업사제의 폐지등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 관계요로에 건의키로 했다.

시약사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21일 木浦市 약사회의 완전의약 분업촉구에관한 결의에 동조하는것으로 한약업사제도까지 폐지토록 추가 결의 함으로써 새로운 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총회에는 5백70명회원중 4백20명이 참석했는데 회원들은 의료보험의 재정보호와 정착화를 위해서는 약국의 1차투약권이 절대필요하다고 한약업사제도는 현실에 모순이많으므로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鄭】

침몰어선 구조하다 선원 로프맞아숨져

【群山】21일 하오7시께 전북沃溝郡미성읍於靑島 동쪽 0.3마일해상에서 침몰하는 어선의 어부들을 구조하던 오성호(20톤) 선원 한점식씨(36·群山市海望洞山4)가 떨어져서 휩긴 로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1차 運動능력평가후 학과·機能시험치뤄야
治安本部 장애자 운전免許시험 절차발표

치안본부는 내년부터 신체장애자도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수있게 됨에따라 이들의 운동능력측정방법, 면허조건, 응시요령등을 마련, 21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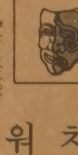
이규정에 의하면 장애자의 운동능력측정기를 서울시경면허과에 설치, 전국의 응시자는 먼저 이곳에서 운전가능성을 측정받은후 신체검사학과및 기능시험은 각시도에서 치르도록 했다.

또 면허시험에 응시할수없는 신체장애자는▲한쪽 팔꿈치관절이[illegible] 팔사용이 전혀불가능한 사람▲다리 머리 척추등에 장애가있어 앉아있을수 없거나▲시력과 청력이 2종면허적성검사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으로 정했다.

응시요령은 ▲1차에 의사의 신체검사(시력·청력)를 받고 2차에 경찰관의 운동능력측정을 받은뒤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치른다.

「어린이 中學生」
키 1m 중학2년생 金永秀군
가정형편 어려워 치료도 못받아

22일 하오4시께 키가 1m60㎝는 넘어보이는 중학2년생이 키가 1m 남짓한 꼬마를 데리고 사회부를 찾아왔다. 두사람을 본 순간 중학생이 길거리를 방황하는 어린이의 부모를찾아달라고데리고온줄알았다. 중학생은 사회부데스크로 다가와 『제 친구에요』하고 더듬거렸다. 『뭐 친구라고?』『예 그런데 키가 안커요』하며 고개를 푹 수그렸다. 키가 큰 학생은 文一中2학년 金成泰군(15)이었고 키작은 학생은 같은학교의 동료 金永秀군(14·사진)이었다. 金군의 키는 1m10㎝, 몸무게 20㎏에 신발은 185㎜를 신는단다.



국민학교 입학할때는 98㎝로 좀 작기는했으나 친구들과 비슷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키차이가 났다. 국민학교 졸업할때의 킨는 1m였다. 이때문에 학교에들어간 이래 맨앞자리를 고수해왔다. 국민학교 4학년때 병원에가봤더니 『성장호르몬이 덜분비되는 신체적인 「애어른이」』라는진단이었다. 신체주사를맞으면 1년에 10㎝정도는자랄수있다고 했으나 집안형편상 치료는 꿈같은 이야기였다. 주사를 못 맞으니 마음이 아팠으나 우선 키가 작아 겪어야하는 불편함이 괴로왔다. 전화를걸때나 버스를 탈때마다 어려움을 겪었고 규격화된 학교책상도 金군에겐 너무 컸다.

창경원 친구집등 가보고싶은곳도 많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까만 눈과 조금큰 앞니가 장난스런기만 한 金군은 호기심어린 사람들의 눈초리가 싫었다. 혹시 친구집에가더라도 친구엄마들이 키가 작다고 꼬치꼬치 캐물어 싫다. 혼자있게되면 집근처산에 떨어지는 나무잎을 바라보게된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래서 생긴취미가 나무잎모으기와 우표수집. 예쁜 나무잎을 두꺼운 책갈피에 말리고 습자지사이에 넣어 주운장소와 이름, 주웠을때의 느낌을 적어놓는다. 金군은 4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두형 그리고 누나와 함께 산다. 형과 누나는 보통 키가 넘는다. 어머니는 金군의 작은키가 느껴질때마다 『에미가 정성에 죄를지어 그런가보다』고 눈물 짓는다. 金군은 그럴때마다 무언가 만들며 슬픔을 잊는다. 장래희망은 전자기술자. 그러나 우선은 친구집에 마음놓고 가보고 싶은 소망을 어쩌하기 어려운 가여운 소년이다. 【徐華淑기자】

勇氣있는 아빠를 기억하라

그때 그사람

68년 靑瓦臺 기습 무장共匪 육탄방어 — 故崔圭植경무관 미망인 柳貞和씨

1968년 1월21일 청와대를 향해 쳐들어오던무장공비 일당을 육탄으로덮쳐 산화 순국한 故崔圭植경무관(당시36·종로경찰서장)의 미망인 柳貞和씨는 홀로된 15년의 세월을 남편의 「뜻」과 함께 살아가고있다. 「성실하고 인내하는 생활인이 되자」는 崔경무관의 좌우명을 지킨다.

「성실·忍耐의 삶」 실천 "어려운일은 사진속 그이와 의논"

서울 梨大를 나온 柳씨는 남편이 사거한후 정부종합청사내 5평짜리 구내약국을 맡아 지금까지 경영하면서 생계를세워왔다.

15년전의 영결식장에서 울망졸망한철부지3자녀에 둘러싸여 울음에 몸을가누지 못하던 미망인 柳씨는 내년이 50세.

그세월동안 장녀 淑容양(22)과 장남 民碩군(21)은 대학생으로, 막내딸 希容양(15)은 여고1년생으로 자라났다.

柳씨는 해마다 1월21일, 현충일, 휴일이면 아이들 손을잡고 국립묘지나 崔경무관동상이 서있는 淸雲洞山1번지 자하문고개를 오르는것이 유일한 즐거움.

柳씨는『철모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을 찾을때는 설움이 북받쳤으나요즘엔 오히려 아이들이 위로를 한다』고 했다.

장남 民碩군을 아버지동상이 서있는 곳에서 가까운 경복국민학교에 입학시켰던것도 짧은 한평생을나라와 겨레를 지키다간 용기있는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기위한것이라고 말했다.

「평소에는 남편의「不在」를별로 못느끼고 있다가도 아이들이 병이났을때나 진학문제,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아빠가 간절히 생각나 응접실에걸어둔 남편의 대형패널사진과 무언의 대화를나눠 위로와 독려를 받고 일을 결정한다.

1·21사태때 무장공비의 일당으로 내려왔다 생포된후 전향한 金新朝씨와는 가끔 만난다며『金씨가 이북에 두고온 가족도 있고해서 심적으로 불안정할테니 정신적위안을 주어야 할것』이라며 『자유대한에서 행복된 삶을 계속 누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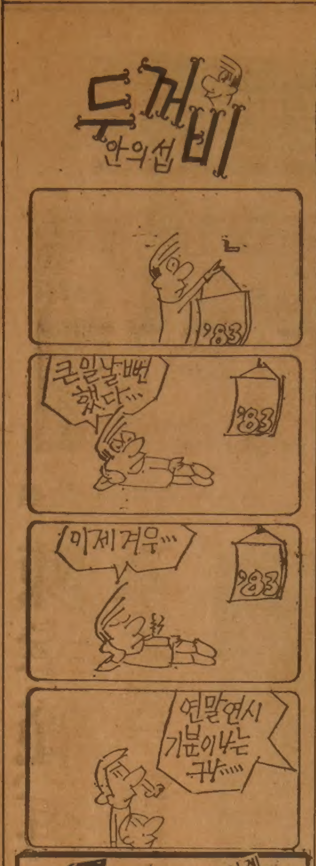
柳씨는 金씨와는 같은기독교인이고 金씨의 부인과는 이름도 같다는것.

이젠 大學·女高生된 자녀들이 위로

△남편(故崔圭植경무관)의 초상화밑에서 사거후15년의 생활을 담담히 털어놓고있는 柳貞和씨。

崔경무관 사거직후에는 억대 조위금설때문에 협박을 받은일도 있었고 집의 창살만해도 구설수에 오른 일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구설수와는 달리연금은 崔경무관이 군에서예편(중령), 경찰에 투신한 지가얼마되지않아10여년간 월1천3백여원씩 받아 오다 올2월부터 시어머니 鄭여사생활보조금조로 4만여원을 지급받고 있다.

게다가 올해 연금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종합청사내 약국관리가 총무처에서 관리공단으로 넘어가 개인은 약국운영이 불가능하니 폐쇄한다는 통고를 받았다고 했다. 柳씨는 『약국을 그만두면 아이들교육비며생계대책이걱정』이라고말끝을 맺지못한다. 宋大洙기자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20代여인 變死
下衣 벗겨지고 목졸린채

21일하오7시20분께 서울 江西區 新月2洞427의3 반도연립주택105호에서 成丁慶씨(33·운수업)의 내연의처 李正任씨(22)가 목이졸린채 숨져있는것을 成씨가 발견했다.

成씨에 의하면 이날 현관문이 잠겨있어 [illegible]통해 안방에 들어가보니 李씨가속옷과 수건으로 입이 막히고 전기밥솥과 TV코드로 2번 목이 졸려 숨져있었다는것.

李씨의 시체는 하반신이 모두 벗겨졌고 장롱서랍이 어지럽혀져 있었으며 카메라 2대, 금목걸이·금반지3개, 주간지등이흩트러져있었다.

成씨는 이날새벽2시께 李씨집에서 잠을잔뒤 상오7시께 서울麻浦區孔德2洞에있는 본처金모씨(32) 집에 들렀다 하오 다시 李씨집에왔다가이같은사실을발견했다.

경찰은 숨진李씨가 이날하오2시~3시 사이에 피살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외상이나 반항흔적이 없고▲피해품이 전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면식범이 [illegible] 위장, 범행한 것으로보고 주변인물중심으로수사를펴고있다.

숨진李씨와成씨는 지난해 6월 李씨가 서울鍾路區上道洞 모술집에서 호스티스로 일할때 만나 지난해12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는데 지난10월17일 成씨가 1천9백70만원을주고 이집을사들여 함께살아왔다.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연탄재 돼지사료에섞어먹이면 각종 질병예방 成長에 큰효과"
鄭鉉丞교수 논문

【晉州】가정에서 쓰고남은 연탄재를 돼지 사료에 섞어 먹이면 광물질 결핍으로인한 돼지 설사병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성장에도 큰효과가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晉州농림전문대학축산과 鄭鉉丞교수가 연탄재가 돼지의 성장육성 비육등에 미치는 영향에관한 연구논문을 한국축산학회에 보고함으로써 밝혀졌다.

鄭교수는 이논문에서 연탄재 1㎏속에는 철분3·7㎎을 비롯 마그네슘 0·18㎎ 아연 1백39㎎등 각종 미량의 광물질이 포함되어있어 이를사료에 섞어 새끼 돼지에 70일간 먹인결과 설사를 예방하고 광물질 결핍으로 생기는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이 생긴것을 알수있게 되었다고밝혔다.

鄭교수는 또 연탄재를 먹인 사료를 먹인 새끼돼지는 1일 최하 21g에서 최고 94g까지 체중이 늘어나는 놀라운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晉】

總警승진후보 選拔

내무부는 22일 82년도 총경 승진후보자 34명을 선발했다. 【명단2면】

倒産기업主 구속 滯賃후 달아나

노동부 부산 북부지방사무소는 22일 반도식료품 대표 孫晉劍씨(44·부산北區德川洞139)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노동부에 의하면 孫씨는 반도식료품 주식회사를 지난해 10월24일 폐업하면서 종업원 30명의 임금·퇴직금등 1천2백76만원을 체불하고 달아났었다는 것이다.

海洋훈련 소년단원 보트전복 2명失踪

22일하오5시15분께 경기 廣州郡東部面渼沙里앞 한강에서 해양훈련을하던 한국해양소년단소속 홍성문군(17)과 구대진씨(26)등 2명이 모터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실종됐다.

경찰은 사고즉시 八堂댐하류인 사고지점에서 구조작업을펴고있으나 날이어두워 실종자를 찾지못하고있다.

●백하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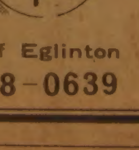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82 現場 — 프로야구 元年 ②

有料 百50만명… 수입 23억9천만원

걱정씻고 大히트…"어린이에 不和" 비판도

3월5일 82년 첫 시즌의 스케줄이 확정발표되면서도 프로야구의 창설은 커다란 모험이었다.

『때가 이르다. 시기가 좋지않다』

여러가지 우려속에 3월27일 신생프로야구의 개막일이 다가왔다. 창단작업을 맡았던 사람들, 마지못해 구단창설에 참여했던 사람들… 모두가 설레이는 가슴으로 서울운동장 개막식장을 향했다.

『유료관중 2만3천9백98명, 입장수입 5천3백7만7천7백70원』

프로야구는 개막 첫게임부터 기대이상의 대히트였다. 단일게임에 이토록 관중의 성원을 받은 야구경기도 없었다.

75년 在美동포 실업인 洪淳甲씨가 처음 권 첫사진이 호응을 얻지못해 구겨진지 7년. 프로야구는 마침내 국내최초의 본격적인 프로스포츠 조직으로 뿌리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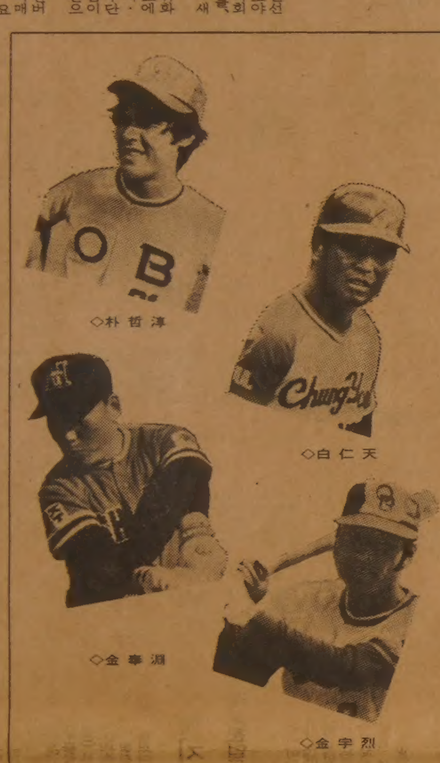
수십년 전통을 가진 고교야구와 뜨거운 애향심이 프로야구를 위한 기름진 토양이 되었다. 고교야구의 인기를 업고 배출된 스타들, 그들에게 쏟아진 수천만원의 돈, 신생스포츠에 대한 매스컴의 대대적인 보도가 또한 프로야구의 성장을 재촉하는 자양분이 되었다.

스포츠는 스타를 만들어 내고 스타는 그 스포츠의 인기를 더해준다.

『어린이에게 꿈을, 젊은이에게 정열과 용기를, 국민들에게 즐거운 오락을 선사할것』을 약속한 프로야구는 무미건조한 우리사회에 새로운 화제의 스타를, 꿈많은 어린이들에게는 새 우상을 만들어 주었다.

『어린이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곰·사자·호랑이·용등 갖가지 구단 마크가 붙은 야구유니폼이 어린이들의 새로운 패션으로 각광받았다.

구장을 떠나는 야구단버스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매달려 스타들의 사인을 요구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인기를 모은 것은 朴哲淳·金奉淵·金宇烈·白仁天등이었다.


◇朴哲淳 ◇白仁天 ◇金奉淵 ◇金宇烈

朴哲淳은 노련한 게임운영, 쾌속구로 경이적인 전연승 대기록을 세웠으며 36게임출장, 24승4패7세이브, 방어율1·87로 투수부문을 휩쓴 마운드의 왕자가 되었다.

金奉淵은 시즌도중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74게임에서 22개의 홈런을 날려 82년 홈런왕이 되었다. 프로경력 20년의 白仁天은 유일한 4할대를 넘기는 강타력으로 국내 프로첫해의 타격왕이 되었다. 金宇烈은 전기시즌동안 가장 먼저 11개의 홈런을 날리며 프로야구의 열기를 드높였다.

82년 프로야구는 정규시즌 2백40게임, 올스타및 결승시리즈 9게임으로 총 1백50여만명의 유료관중을 모아 23억9천2백67만여원의 입장수입을 올렸다. 6개구단별로 15억원안팎의 투자를 계산하면 큰적자이다. 그러나 창설 첫해의 예상된 적자이기도 하다.

프로야구의 첫해는 몇진안타였다. 창설 초기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낸 각구단은 새로운 스포츠산업 프로야구의 앞날에 부푼 기대를 안고있다.

82년 프로야구는 가장큰 과제이던 국가대표출신의 병역문제를 해결, 우수선수공급에 숨통을 열었다. 그러나 더 어려운 문제는 국가대표경력이 없는 선수들의 군복무기간동안의 선수활동문제다. 창설초기의 미흡한 조직·규약, 각구단과 야구위원회간의 불신과 마찰도 해소, 정비되어야할 새로운 과제들이다.

82년은 프로야구의 출범으로 국내스포츠史에 프로스포츠紀元으로 기록될 것이다. 【大韓崔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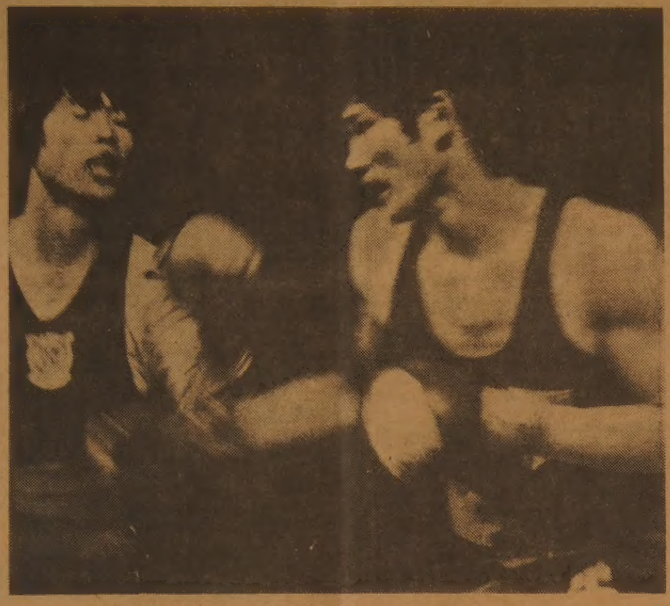
슈퍼헤비級 혼자出戰··· 웰터級 기권··· 6체급 判定으로

헤비級만 RSC

아마복싱選手權겸 印尼파견 13人우승자 판가름

陳幸範, 再對決 김정보 連打 — 라이트

고교생 金仁洙 다운 두번 뺏겨 — 헤비級


◇"그만 얻어맞자" 기권敗 웰터급 결승전에서 河鍾湖(한국체대③)가 金相海(동아대)와 강타를 교환하고있다. 河가 3회2분만에 기권승했다.

제36회 전국 아마복싱 선수권대회겸 제6회 인도네시아 대통령배대회파견 선발전이 22일 동국대 체육관에서 폐막, 12개 체급 우승자를 가려냈다.

플라이급 결승전서 金容相(전남체고)은 蔡憲國(부평체)에 힘겹게 판정승, 우승을 차지했다.

金容相은 양훅을이용한 저돌적인 공격으로 1·2라운드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으나 마지막 3라운드에 체력이 달려 고전했다.

밴텀급서는 洪東植(동아대)이 치고빠지는 전략으로 강호 朴炯沃(인천광성고)에 판정승했다. 洪東植은 1·2라운드에서 아웃복싱으로 朴을 괴롭혔으며 마지막라운드서도 맹렬히 몰아붙였다.

라이트급서는 陳幸範(영산포상고)이 올해 전국체전에서 맞서 승리한바있는 김정보(원주복싱)와 재대결, 역시 판정으로 이겼다. 陳幸範은 연타가 좋았으나 세기가 약했으며 김정보는 덤다들 졌지만 펀치력이 돋보였다.

라이트웰터급의 李奉來(한국체대)는 강한 왼훅주먹으로 1·2라운드에 각각 한차례씩 다운을 뺏으며 孔相澤(안양체)에 여유있게 판정승했다. 왼손잡이인 李奉來는 종전까지는 라이트급으로 뛰었으나 이번대회 들어 한 체급을 올려 출전, 왼훅의 위력을 떨쳤다.

라이트미들급 安達鎬(일우공영)는 宋仲錫(한국체대)과 대결, 2라운드부터 롱훅으로 점수를 따내 판정으로 이겼다. 安達鎬는 2라운드 중반 왼손훅을 두차례 宋仲錫의 안면에 적중시켰으며 마지막라운드 중반에는 위력있는 오른쪽 스트레이트를 宋의 얼굴에 퍼부었다.

미들급의 尹永北(경희대)은 申俊燮(원광대)과 접전끝에 판정승했다. 마지막 경기로 벌어진 헤비급결승전서는 朴釗一(동아대)이 金仁洙(김포종고)에 1라운드 55초만에 RSC로 이겨 관중들의 갈채를 받았다.

朴釗一은 경기개시 공이울리자마자 라이트훅을 터뜨려 첫 다운을얻고 이어 강펀치를 퍼부어 두번째 다운을 뺏고 승리했다. 슈퍼 헤비급서는 金南熙(전매청)가 혼자출전, 한게임도 치르지않고 우승했다.

◇최종일 결승전적

▲라이트플라이 金光善(한체) 판정 朴濟錫(홍비)
▲플라이 金容相(전남체고) 판정 蔡憲國(부평체)
▲밴텀 洪東植(동아대) 판정 朴炯沃(인천광성고)
▲페더 이충길(영산포상고) 판정 金東燮(경북체고)
▲라이트 陳幸範(영산포상고) 판정 김정보(원주복싱)
▲라이트웰터 李奉來(한국체대) 판정 孔相澤(안양체)
▲웰터 河鍾湖(한국체대) 기권 金相海(동아대) 3회2분
▲라이트미들 安達鎬(일우공영) 판정 宋仲錫(한국체대)
▲미들 尹永北(경희대) 판정 申俊燮(원광대)
▲라이트헤비 張漢坤(한국체대) 판정 崔賢鎬(경남대)
▲헤비 朴釗一(동아대) RSC 1회55초 金仁洙(김포종고)
▲슈퍼헤비 = 金南熙(전매청)

WBC, 고메즈 「이달의 복서」로 選定

醫療기록 안내면 랭킹 除外

【멕시코시티(墨)=聯合】 WBC(세계권투평의회)는 21일 한국선수 11명이 포함된 각체급별 12월랭킹을 발표하고 루페·핀토르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슈퍼밴텀급챔피언 윌프레도·고메즈(푸에르토리코)를 「이달의 복서」로 선정했다.

라파엘·오로노(베네수엘라)에게 패배한 金喆鎬선수는 슈퍼플라이급 2위로 떨어졌다.

WBC는 각국선수들에게 최근의 의료검진기록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83년2월부터 랭킹에서 제외될것이라고 경고했다.

◇WBC12월랭킹

▲헤비급=챔피언 래리·홈즈(미국) ▲크루저급=챔피언 고든(미) ▲라이트헤비급=챔피언 드와이트·브랙스턴(미) ▲미들급=챔피언 마빈·해글러(미) ▲슈퍼웰터급=챔피언 토머즈·헌즈(미) ⑩白仁鐵 ▲웰터급=챔피언 공석 ▲슈퍼라이트급=챔피언 러로이·헤일리(미) ⑥金相賢 ▲라이트급=챔피언 알렉시스·아르게요(니카라과) ▲슈퍼페더급=챔피언 보비·차콘(미) ⑦崔忠日 ⑨李日福 ▲페더급=챔피언 후안·라포르트(미) ⑧柳煥吉 ▲슈퍼밴텀급=챔피언 윌프레도·고메즈(푸에르토리코) ②鄭巡鉉 ▲밴텀급=챔피언 루페·핀토르(멕시코) ▲슈퍼플라이급=챔피언 라파엘·오로노(베네수엘라) ②金喆鎬 ⑩裵錫哲 ▲플라이급=챔피언 엘레오실·세스(도미니카) ⑥權順天 ▲라이트플라이급=챔피언 일라리오·사파타(파나마) ⑤張正九 ⑥金煥珍

체육豫算 17억늘은 98억원

LA등 대비 4백여명 3百日훈련

체육회·KOC합동회의策定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22일 체육회 10층강당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83년도 예산규모를 금년보다 약17억원이 늘어난 98억4천5백만원(국고보조90억3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날 합동회의는 내년도사업계획도 확정, 29억원을 들여 농구, 배구, 레슬링, 궁도등 4개전용훈련장을 증축하는한편 하계유니버시아드(7월·캐나다)와 월드게임(6월·영국) 및 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 대비, 경기력향상을 위해 23개종목 4백94명(임원70·선수4백24명)을 선발하여 3백일간 집중강화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남녀 2백50명을 수용할 1천2백평규모의 선수숙소를 泰陵선수촌에 신축키로했다.

이날회의는 내년 2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동계 유니버시아드에 3개종목 86명, 7월하계 유니버시아드에는 8개종목 78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아슬아슬 妙技 82년 체조6걸을 가리는 종합선수권대회에서 여자1위를 차지한 郭善行의 평균대 회전연기.

대한체육회 常勤부회장 金鍾烈씨 辭表수리

【身上 이유로】

金鍾烈 대한체육회상근부회장이 22일 사임했다. 제9회 아시안게임 한국선수단장이었던 金씨는 이날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제출했으며 鄭周永대한체육회장이 이를 수리했다. 金씨는 대한체육회 고문으로 추대됐다.

22年 복싱심판 方辰煥씨 은퇴

◇方辰煥씨

22년간 복싱 심판으로 활약해온 方辰煥씨(57)가 22일 전국복싱 선수권대회를 끝으로 심판유니폼을 벗고 은퇴했다.

22세때인 47년 복싱에입문, 53·54년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을차지했던 方씨는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宋順天선수를 비롯 金基洙·金德八·成般·金賢治·朱虎등 우수선수들을 지도했다.

체조 남녀1位 蔡廣錫·郭善行

종합選手權

蔡廣錫(한국체대1년)과 郭善行(한국체대1년)이 82년 체조 남녀 랭킹1위를 차지했다.

22일 한국체대 체육관에서 열린 82년도 체조종합선수권대회에서 蔡廣錫은 54—40점으로, 郭善行은 37—30점으로 각각 남·녀개인종합1위를 차지했다.

蔡廣錫은 종목별경기 철봉과 마루운동에서 9·35점으로 1위, 뜀틀과링에서 2위, 평행봉과 안마에서 3위를 기록했다.

郭善行은 뜀틀에서 9·25점, 평균대에서 9·10점, 마루운동에서 9·20점으로 각각 1위를, 이단평행봉에서 2위를 기록했다.

82년 체조남녀 6걸을 가리는 이번대회에는 남·녀1위 蔡廣錫·郭善行을 제외한 국가대표 모두 불참하고 남자선수 15명, 여자 10명만이 출전, 종합선수권대회의 권위를 의심케했다.

◇개인종합순위

▲남자=①蔡廣錫(한체대) ②嚴辰鎬(한체대) ③宋有鎭(대전체고)53·5260점 ④崔永鎭(공군)51·4935 ⑤尹錫虎(대전체고)48·85 ⑥韓相鉉(한체대)48·40점 ▲여자=①郭善行(한체대)37·3536점 ②金英蘭(한체대)35·7537 ③鄭賢美(부산수정여중)34·3460 ④沈載英(대전여중)34·35 ⑤申諸永(충남여고)34·10 ⑥韓順(수정여중)34·05점

프로야구

◆프로야구日程 오늘결정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3일 실행위원회를열고 83년시즌 프로야구일정을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MBC와 재계약한 白仁天의 선수자격문제도 다루게된다.

◆韓大化, OB베어스入團

◆…OB베어스는 22일 국가대표출신 韓大化(동국대)와 입단계약을 체결, 83년시즌을 위한 신인선수계약을 완료했다. 구단측은 韓大化가 계약금 1천5백만원, 연봉1천8백만원으로 책정된 A급수준의 대우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해태 房水原 26일결혼식

◆…해태 타이거즈 투수 房水原(22)이 26일 하오1시 光州 고려예식장에서 金春姬양과 결혼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300>

부드러운 겨울 ㉖

『내일 모래야. 떠날 날이』

일환이는 오목이가 히히덕대는걸 막아보려고 한껏 심란한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걸 누가 몰라요. 어서 후딱 두밤 잤으면 좋겠네. 당신 정말 비행기 타나 보게』

오목이는 심란해지기는 커녕 새록새록 히히덕댔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 나 없는 동안…』

『괜찮지않으면요?』

오목이는 말귀를 못알아들은 것처럼 시침을 뗐다. 일환이는 고개를 돌리고 눈으로 일남이를 찾았다. 일남이는 보이지않았다. 가슴 밑바닥에서 말할수 없는 초조함이 센 불에서 졸아 붙는 마지막 기름한방울처럼 지글대는걸 느꼈다.

『일남이는 어디 갔소?』

『걔가 집에 붙어있을적이 어디 있우? 책가방 들고 공부방인가 친구집으로 가나봅니다』

『그 녀석도 공부방이 있어야하는데』

『공부방있는친구가서로좋쇼, 욕쇼 한데요. 제녀석 말이긴 하지만 아주 거짓말은 아닌가봅니다. 집에선 원수를 대도 학교선 공부도 잘 하고 시체말로 인기도 있대니까요. 그것도 제녀석의 말이지만서두…』

오목이가 또 히히덕댔다.

『누가 걜 원수를 댄다는게야? 다신 그런소리 입에 담지말래두…』

『아새끼가 한방에서 다섯이나 뒹굴으니까 하는소리죠 뭐』

막내인 영남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일환이는 그야말로 원수처럼 일남이를 미워하고 구박했었다. 못된것은 다 일남이 탓이었다. 지지궁상의 가난도, 남달리 많은 딸년들도, 자신의 못된 술버릇도, 걷잡을수 없이 고약한 심미도, 되는 노릇이라곤 없는 악운도, 날로 나빠지는 오목이의 건강도 다 그 원수같은 놈의 탓이었다. 일환이의 속을 들여다보듯이 오목이는 말끝마다 일남이를 원수 같은 새끼로 불렀다. 일환이의 포악과 살림의 가난이 극도에 달할 때마다 오목이는 저 원수 같은 새끼를 고아원으로 보내버리라고 울부짖곤 했다. 그럴때마다 그는 단호하게 꾸짖었었다.

『이게 남편을 뭘로알아? 내가 아무리 못돼먹기로서니 제자식을 고아원에 버리게 다된 놈으로 보여?』

그럴 때마다 오목이는 여보 정말은요, 하면서 중대한 고백을 하려고했다. 그러나 그는 잽싸게 오목이의 입을 틀어막고 다음 말을 듣지않았다. 그는 물론 듣지않고도 오목이가 말하려는게 일남이가 그의 아들이 아니란 소리라는걸 알고 있었다. 번연히 알고있는 사실이면서도 그걸 오목이의 목소리로 듣는다는건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돋게 싫었다. 처음엔 그런 고백을 들음으로써 아내의 부정을 확인한는게 그렇게 두려운줄 알았다. 그러나 차차 그게 아니라 일남이를 뺏기기가 싫어서 그 고백을 안들으려고하는 걸 알게됐다. 왠지 일환이에게 일남이는 원수이자 또한 삶맛이었다. 사사건건 원수처럼 미워했지만 없는다고 생각하면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잃는것처럼 허전해서미리 비틀댔다.

막내를 낳을 때 오목이는 처음으로 병원신세를 졌고 작은 병원에서 내쫓겨 큰병원으로 옮겨갈 때 그녀는 기지사경이었다. 큰병원 의사는 그런 건강상태에서 임신을하고 열달을 채운걸 신기해하는 한편, 아이를 넷이나가진 가난한 막벌이 다 망가진 아내에게 다섯번째의 아기를임신시킨걸 경멸하고 분노하는것 같았다.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 소: 529 BLOOR ST. W.
전 화: 533-3545~6, 533-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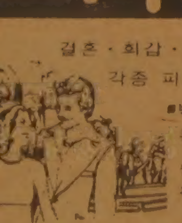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이한구
1575 WESTON RD. ☎: 247-7161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596-7311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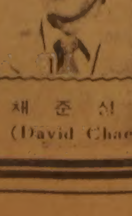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밴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 화: (B) (416)497 8900 채 준 식
(R) (416)633 7892 (David Chae)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빅·세븐 선물쎈타
• 중국산·한약·직수입
• 인삼·녹용 :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식 당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구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리아하우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국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693 Bloor St. W 전화: 535-9541

호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울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밭식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울식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터의 상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cian
전화: 769-5956 김명근.

여 행 사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리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찬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터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더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병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병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치 과

Dr. Mark Kochman ◉전화: 233-9454, 233-4888
(월~토)9:00am-6:00pm, (목)9:00am-9:00pm
3101 Bloor St. W. Ste 203. "Season's Greetings"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주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 - 5:00 p.m
화·수·목: 오전8시 - 오후6시
금 : 오전8시 - 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7학년 남학생 공부 도와주실 분
영어, 수학 위주.
전화 : 767-1702(오후 6시이후)

Smoke & Gift 가게 풀타임 캐쉬어 구함.
오전9시~오후5시, 2180 Yonge St. 3층
M & M Shoppes. Mr. or Mrs. Dharsee. 내방바람.

좋은사람 구함. Full Time 주유소(Gain) 영주권자로써 1년 이상 거주자. ◉877 Dundas St. W.(Bathurst St. 서쪽 300M)
내 방시간: 9am~3pm, 7pm~9pm

풀타임, 파트타임 남자헬퍼 구함.
전화 : 622-2643

Donut Shop Casher 구함.
학생환영(스카보로 지역)
전화: 497-4221 Mrs 김.

한식·일식·중식 겸한 요리사 3명 구함.
초봉 : $1,400 (일식·중식은 한국스타일 원함)
전화 : (403)252-2225 (캘가리)

Part time 스토아 캐쉬어 헬퍼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 488-1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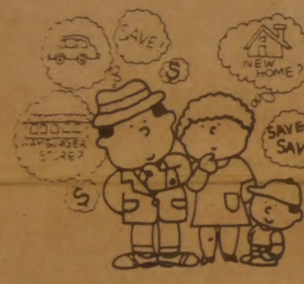
급히 아주머니 헬퍼 구함.
전화 : 532-1054 Mrs. 오

점심시간 Dish Washer구함.
오전 11시30분~오후 2시30분. 젊은부인 환영.
영어 못해도 무방함. 421-6016, 421-2258

시외 그로서리가게 메니저 구함.
Barrie 근처.
전화: 1-705-458-4326

입주하셔서 아이들(2명) 돌봐 주실분 구함.
752-1467(오후1시 이후)
빅토리아·팍×에그린톤 근방.

5일에 $15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광고문의 533-2361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칭(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1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박수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3-3674
숭공문화협회	444-3658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실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윈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Tofel Michigan Test 준비
아동학습지도(다년간 지도경험) Honour B.A.In Economics
최미경 전화: 242-4745(오후 6시이후)

매 매

Van Truck - 77년도 Dodge 흰색
6만5천 Km. Excellent Condition
전화 : 533-2363 Mrs. 김

빌딩과 비지네스 매매.
잘 꾸며진 작은 레스토랑과 2층에 2 Bed Room 아파트.
Queen St. East.(of Dufferin)
아스킹 : $193,000
전화 : 363-2440.
G.R.Paterson Real Estate Ltd.

해밀턴 큰길에 있는 플라자내의 경쟁없는 그로서리 스토어. 주매상 5천보장.
렌트 700불. 7년간+10년옵션.
Asking $52,000+스탁. 좋은 조건으로 양도함.
8Door Walking Cooler, New Equipment.
문의처 : 1-388-4825

Montreal Trust Company Realtor.
플라자내에 좋은 비지네스를 원하는 투자가를 찾읍니다.
다운페이: $250,000이상.
딴 여러가지 종류가 많이 있읍니다.
당신에 스페샬 리스트 Dave Lal
전화: 275-5555

주인이 정년퇴직으로 구두방과 빌딩매매
또는 가게렌트도 합니다.
803 St.Clair Ave. W. 전화 : 654-1455

Take-Out 햄버거 비지네스 팝니다.
Income: $85,000/Y ◉주6일 영업. ◉하루12시간 오픈
문의시간: 오전9시~오후9시. 782-6893 Peter.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광고국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효과있고 신속한 광고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광고에 관한 문제라면 언제든지 저의 광고국으로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협조해 드리겠읍니다.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오후 5시반)
토요일(오전 10시~오후 4시)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토요일도 광고접수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 국 일 보 광 고 부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여자를 메이트 구함. 1 Bed-room
(베다스트와 에그링톤)
전화 : 782-9777 (오후5시반 이후)

Office space for rent
1500 Sq.Ft. 1736 Queen St. W. 불에 타지 않는 안전창고 100 Sq.Ft. 전화 : 960-1888

아파트 쎄브렛. 3Bd. Rm. ◉Albion & Weston에 있는 새아파트. ◉리스: 83년 8월까지.
전화: 488-2436(B), 745-0409(R)

1 Bed Rm. 아파트렌트(서브렛)
Don Mills 지역. 월. $311.00
전화 : 447-1785

방세 놓습니다. ◉여자분에 한함.
적당한 가격.
전화: 481-4330(저녁)

새로 꾸민 지하실 2 bdrm(거실, 부엌, 목욕탕) 세 놓습니다. Bathurst와 St.Clair 지역임. 월 $280
출입구 따로 있음. Mrs.채 Tel: 651-5388

방세 놓음(Victoria Pk. & Finch)
1Room(월 120불) 여자분에 한함.
전화: 497-4221 Mrs. 김

집 매 매

디타치드 2층집. 3Bd. Rm. 응접실. Dining Rm. Family Rm. (Fire Place) Calif Kitchen. 지하실 잘 꾸며져 있음. Outstanding House.(Steeles & Warden) 475-0894(6시 이후)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지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화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연락처 : (416)461-3363(H), 463-7423(B) 송영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1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배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서)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C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하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246-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킴스 카메라.
각종사진 현상, 증명사진, 회갑·결혼사진등.
619 Bloor St. W. 534-1085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대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문호

HOME COMPUTERS
▲판매및 수리 ▲파트타임 비지네스에 관심있으신분 전화바람. 전화 : 239-1698 오후6시~9시 (MR. 이)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에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즐거운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교민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은행을 애용하시고 후원하여 주신 교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일일이 찾아 뵙지 못하고 황망중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은행은 교민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협조에 힘입어 세계 일류은행들의 대열에 끼어 하루 하루 착실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싶이 세계 100대은행의 하나이며 한국의 대표적 은행인 한국외환은행을 모행(母行)으로 하는 캐나다한국외환은행은 풍부한 자금, 숙련된 써어비스, 우수한 자질의 직원 및 광범위한 해외 점포망을 바탕으로 하여 캐나다내에서 어느 은행이나 어느 금융기관보다도 신속하고 친절하며 유리한 조건으로 봉사하고 있읍니다.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임직원 일동은 배전의 노력과 보다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충실한 재정적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하오니 저희 은행을 더욱 더 애용하시어 여러분의 사업과 가계(家計)를 더욱 힘차게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임직원일동

본점	블루어지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P.O.BOX 402, TOR., ONT. M5X 1E3	629 BLOOR STREET WEST TORONTO, ONTARIO M6G 1K8
364-2890	**533-8593**

영업안내/ 예금. 대출. 수출입. 송금. 모기지

캐나다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를 보장합니다.